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중 고전소설의 비교연구

- 중국재자가인소설과 17세기 한글소설을 중심으로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 전공

강 미 선

2004년 2월

한 · 중 고전소설의 비교연구

- 중국재자가인소설과 17세기 한글소설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classic novel with
Chinese classic novel
- focusing on Jaejagain novel of China and 17th Century
Korean novel -

지도 : 송 성 욱 교수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 전공

강 미 선

강미선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주심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2003년 12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목 차>

● 논문개요	i
I. 서 론	1
1. 연구사 및 연구방법	1
2. 작품비교를 위한 기본적 고찰	6
II. 재자가인소설과 한국고전소설의 모티프 비교	13
III. 배경 설정에 따른 당대 의식의 차이	29
1. 異界 설정의 유무와 역할	29
2. 서두에 나타난 가족 구성원의 비교	38
3. 결말에서 보이는 작가의 이상향	49
IV. 인물 형상화의 비교	57
1. 이상적인 남성상의 유사함	57
2. 이상적인 여성상의 다른 모습	68
V. 중국 재자가인소설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소설의 독자성	80
VI. 결론	89
● 참고문헌	92
● 영문초록	95

논문 개요

본 논문은 중국소설과 우리소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 대상과 결과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才子佳人小說이면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옥교리〉, 〈호구전〉, 〈평산냉연〉과 한국고전장편소설인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현씨양옹쌍린기〉를 비교하여 우리소설이 중국소설과 연관성과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우리소설의 독자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재자가인소설과 한국고전소설이 각각 유형성을 띠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각 작품에서 비교적 비중 있는 모티프를 추출하여 비교하고 표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재자가인소설과 우리소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모티프도 있고, 일부 작품의 경우 매우 유사한 모티프를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반면, 우리소설에서만 나타나는 모티프도 있으며, 비슷한 모티프라고 해도 당대 이데올로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재자가인소설에서는 異界가 설정되거나 異人이나 신비한 물건이 등장하는 일이 거의 없거나, 있되 비중이 적은 반면 우리소설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긍정적 인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러한 모티프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재자가인소설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현실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異界가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서유기〉나 〈봉신전〉 같이 본격적으로 귀신이나 요물, 異界를 소재로 한 소설들이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발달되어 있었던 것도 재자가인소설이 이러한 모티프를 다루지 않은 한 요인일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재자가인소설이 서두에 개인의 존재를 강조한 것과는 달리 우리소설에서는 가문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자가인소설에서는 獨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반면 우리소설, 특히 18세기로 접어들수록 다수의 형제가 등장하여 작품을 이끌어 가는 것도 두 소설 사이의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이 차이는 결말부에서 재자와 가인이 혼인하여 개인의 행복과 명예만을 서술하는 재자가인소설에 비해서 우리소설의 경우는 한 사람 개인의 영화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더욱 가문을 번창시키는 이야기까지 서술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우리소설에서는 자녀들의 후일담을 쓰는 것에서 확장하여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따로 서술한 연작들도 있어 당시 사회가 가문의 번영과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물들이 애정을 발현하는 모습은 재자가인소설과 우리 소설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남성인물들의 경우 대체로 애정 추구형과 도덕 추구형의 두 가

지 인물형으로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의 비호를 받으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마음껏 누리는 당대의 이상적인 남성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애정 추구형이건 도덕 추구형이건 중국 소설의 남성들보다 우리 소설의 남성들에게서 더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었다. 게다가 중국소설에서는 한 작품에 한 가지 추구형의 인물만 등장하는 반면, 우리소설에서는 한 작품에서 애정 추구형과 도덕 추구형이 함께 드러나고 있어 이상적인 남성상에 대해 생각하게끔 하고 있다.

여성 인물들의 경우는 중국소설의 여성들의 애정 발현 양상이 남성 인물들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소설의 여성들은 애정을 발할 경우 부정적으로 처리되거나, 아예 악인으로 설정되어 있어 남성들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여성들의 애정 추구나 주장은 남성들의 용인이 있어야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제공되며, 이들도 중국에는 남성들이 세운 가부장적인 논리와 순종적인 여성상이라는 틀에 갇히게 된다. 이것은 중국소설에서 남·녀 인물이나 우리소설에서 남성 인물들이 애정과 도덕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위에서 제시했던 차이점과 유사점을 통해 우리소설의 독자성에 대해서 고찰한 결과,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는 우리소설은 혼인 전의 이야기보다 혼인 후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소설보다는 우리 소설에서 애정 발현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양상은 18세기로 갈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소설에서 개인보다 가문을 중시하는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가문을 지키는 인물이 아버지이다. 그런데 개인을 강조하는 재자가인소설에서는 아버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난다고 해도 그 존재가 미미한 반면, 우리소설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곧 집안의 분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일 정도로 아버지의 존재는 매우 절대적이다. 엄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존재해야 한 가문이 훌륭하게 지속,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비록 비슷한 모티프와 인물들이 등장하여 일면으로는 유사하게만 보이는 재자가인소설과 한국고전소설이라도 그 이면에 나타나는 사상을 살펴보면 개인보다 가문을 강조하고, 부부 갈등을 통해 가문의 안정과 영화를 추구하는 우리소설만의 독자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는 중국소설 중 재자가인소설과 우리 소설 중 장편소설만을 대상으로 연구한데다가 그 중에서도 일부 작품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폭이 매우 좁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다루지 못했던 중국과 한국의 다른 소설들의 연관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I. 서론

1. 연구사 및 연구방법

우리고전문학은 예로부터 공동문화권이자 같은 문어를 공유하고 있던 중국 문학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었고, 고전소설의 형성과 발달과정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17세기부터 한글로 번역, 번안되어 유입되어 폭 넓게 읽힌 중국 소설은 우리나라 소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비단 소설뿐만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왔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소설과 중국소설과의 연관성은 일찍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의 고전소설과 중국소설의 관련성을 가장 먼저 거론한 사람은 김태준이다. 김태준은 『조선소설사』에서 〈삼국연의〉, 〈수호전〉, 〈서유기〉 등 조선시대에 수입된 명대소설들을 소개하면서 이 소설들이 조선시대 소설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옥교리〉나 〈호구전〉, 〈평요전〉 등이 흘러들어 당시 우리소설계에 활기를 준 것은 물론 “문예 발흥의 직접적인 誘因”이 되었다고 하였다.¹⁾ 정규복은 한국설화와 중국설화, 한국소설과 중국소설을 비교하여 두 나라 문학 비교의 폭을 넓혔다. 특히 우리나라 군담소설이 모든 면에서 〈삼국지연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대작에 대응할만한 작품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운 점이라 평가하고 있다. 한편 〈서유기〉는 한국고소설의 괴담에 영향을 많이 주었으며, 〈구운몽〉의 환생담이 한국적으로 변형된 것은 매우 큰 의의라고 하고 있다.²⁾ 이상익은 한국소설에 미친 〈서유기〉의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한편, 〈삼국지연의〉, 〈금병매〉, 〈수호전〉, 〈전등신화〉 등과 우리나라 소설을 비교·연구하여 중국소설과의 영향관계를 밝혔다.³⁾ 신동일은 明末 단편소설이자 우리 나라에서 매우 인기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금고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명대 단편소설이 우리 소설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글에 따르면 우리 소설인 〈채봉감별곡〉, 〈창선감의록〉, 〈배비장전〉 등과 《금고기관》에 수록된 여러 단편들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소설이 중국 소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주

1)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2) 정규복, 『한중문학비교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7.

3) 이상익, 『한중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 삼영사, 1983.

는 것이라고 하였다. 4)

위의 연구들에 따르면 17세기 이후 우리 영웅소설, 역사소설, 가문소설은 중국 연의소설의 영향을 상당수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연의 소설은 이미 16세기부터 조선에서 읽혀진 것이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던 중 주로 연의소설과 우리소설과의 관계에만 주목하였던 초기 연구에서 조금씩 벗어나 폭넓은 관점으로 다른 류의 중국소설과의 비교에 눈을 돌리게 된다. 특히 박재연이 낙선재에 있던 중국 통속소설의 번역본을 발굴·정리하여 구체적인 비교의 바탕을 마련하게 한 것이 이러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6) 또한 연의소설과 다른 류인 재자가인소설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재자가인소설이 우리소설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7) 연의 소설이 군담류에 영향을 끼쳤다면 남녀간의 애정과 혼인을 주로 다룬 재자가인소설 8)은 가문 소설의 애정, 결연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 개별 작품간의 비교 연구도 상당수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우리소설이 일방적으로 중국소설의 영향을 받았다는 데에 그치고 있을 뿐 그 이면에서 드러나는 우리소설만의 독자성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공동 문화권이기 때문에 중국소설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나,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소설만의 독자성을 추구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중국 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소설의 독자성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보이는 연구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조동일은 우리 소설이 중국 소

4) 신동일, 「한국고전소설에 미친 명대 단편소설의 영향 - 혼사장애주지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5) 장효현은 17세기 후반 김만중의 소설을 필두로 하여 등장한 장편 가문소설이 대부분 역사의 실존인물과 가공의 허구적 인물을 섞어 등장시킴으로써 실감을 돋우고 대를 이어가면서 파란만장한 역정을 펼쳐 보여주는데, 이러한 점은 중국 연의소설의 영향에서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효현, 「장편 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태」, 『정신문화연구』 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참조)

6) 박재연,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 - 낙선재본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박재연, 「완산 이씨 『중국소설회모본』에 대하여」, 『한국 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7) 이혜순, 「호구전 연구」, 『이화논총』 30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77; 박영희, 「17세기 재자가인 소설의 수용과 영향 - 〈好逑傳〉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집. 보고사, 1998.

8) 재자가인소설이란 남녀간의 애정과 혼인을 제재로 하여 주로 명말청초에 지어진 소설을 일컫는다. 이들 소설은 대부분 뛰어난 외모와 재주를 가진 남(才子)녀(佳人)가 부모의 중매없이 만나 서로의 재주를 확인하고, 우여곡절 끝에 혼인한다는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기로 하겠다.

설의 영향은 받았지만 독자적인 여건과 요청에 따라 자라나면서 필요한 요소를 중국 소설에서 받아들여 보완했을 따름이라고 하였다. 그 예로 “〈전등신화〉와 〈금오신화〉, 〈수호전〉과 〈홍길동전〉의 관계를 들어서 중국소설의 모방에서 우리 소설이 시작되었다는 주장까지 있었으나, 〈금오신화〉는 주제의식이 한층 심오하고, 〈홍길동전〉은 독자적인 전통에 따라 형성되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하였다.⁹⁾ 또한 “한국에서만 크게 발전한 한문 소설은 중국문학을 받아들여 토착화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택한 재창조의 좋은 본보기”라고 하였다.¹⁰⁾ 송성욱은 조선시대 한국에서 번역·번안된 중국소설과 우리나라 영웅소설, 장편 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시대 소설에는 주인공 가문의 번영과 창달이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¹¹⁾ 그리고 중국재자가인소설 〈옥교리〉와 〈호구전〉을 분석하여 우리소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 우리소설이 혼인 후의 사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역사와 개인이라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이는 중국소설에 비해 우리소설은 역사와 개인의 문제를 가문의 공간에서 함께 다루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¹²⁾ 장효현도 그간의 한국고전소설 비교 연구의 현황을 정리하고 우리 고전소설의 발달·전개의 흐름을 따라 중국소설의 영향을 살피면서 우리소설이 중국 소설의 소재와 창작 수법을 우리의 생활과 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변용시켜나가면서 고유한 우리의 소설사를 확장해 나갔음을 주장하고 있다.¹³⁾ 전성운은 〈구운몽〉과 중국염정소설인 〈空空幻〉의 비교를 통해서 〈구운몽〉에 내재되어 있는 창작의식과 동시대적 문학 풍토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면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밝혀내고자 하였다.¹⁴⁾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소설과 우리소설을 비교하는 연구 작업은 아직도 미미하여, 대개 개별 작품에 대한 비교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비교대상 역시 몇몇 작품에 한정되어 있을뿐더러 대개 한 두 작품만을 근거자료로 한

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권, 지식산업사, 1994. 112~116쪽.

10) 조동일, 「한국·일본·월남의 중국소설 수용양상 비교연구 서설」,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집문당, 1998. 22~31쪽.

11) 송성욱, 「한·중 고전소설의 친소관계」, 『인문과학연구』 5,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한국 대하소설의 미학』, 월인, 2003에 재수록.

12) 송성욱, 「17세기 중국소설의 번역과 우리소설과의 관계」, 『한국고전연구』 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송성욱, 「명말청초 소설의 번안과 한국소설-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소설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발표문, 중국연변과기대, 2001.

13) 장효현, 「한국 고전소설 비교 연구의 현황과 전망-중국소설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0, 2001.

14) 전성운, 「〈九雲夢〉의 창작과 명말청초 艷情小說」, 『고소설연구』 12집, 2002.

개별 연구이기 때문에 거론된 성과들 역시 그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중국소설, 특히 그간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재자가인소설과 우리나라 장편소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중국소설과 우리소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우리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측면이나 사상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재자가인소설이 유입, 향유되는 시기이자, 우리나라의 장편 소설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인 17세기에 주목하였다. 17세기는 이전의 연의소설과 함께 새로운 장르인 재자가인소설이 한글로 번역, 혹은 변안되는 시기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소설 형성기의 모습과 이후 가문 소설의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며, 다양한 장르와 향유층, 작가층이 어울리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¹⁵⁾ 또한 이미 유입되어 유행하고 있던 연의소설과의 관련성에만 국한된 연구에서 벗어나 동시대에 유입되어 함께 유행하던 재자가인소설과 우리소설의 비교 연구는 중국소설의 영향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음은 물론, 우리소설의 독자성을 찾는 데도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가문소설이 완전히 정립되는 시기인 18세기의 작품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영향과 차이는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품은 모두 7작품이다. 우선 중국의 재자가인소설로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널리 향유되었으며, 그 현상이 기록상으로도 남아있고 당시에 유행하던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인 〈평산냉연〉, 〈옥교리〉, 〈호구전〉을 선정하였다.¹⁶⁾ 17세기의 우리 소설로는 본격적인 가문소설의 초기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소현성록》¹⁷⁾,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창선감의록〉, 17세기 소설사의 모습이 골고루 투영되어 있는 〈구운몽〉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18세기 작품이자 우리나라 장편소설의 전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는 〈현씨양옹쌍린기〉를 택하여 함께 비교해볼 것이다. 이들 작품들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창작 시기나 향유층, 작가층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의 연구가 다양하게 진

15)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 <사씨남정기>,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16) 〈옥교리〉는 재자와 가인의 매우 자유로운 애정 추구를 재제로 하고 있으며, 〈호구전〉은 이와 반대로 철저하게 도덕과 명교를 중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평산냉연〉은 다소 〈옥교리〉에 가깝기는 하나 대체로 위 두 작품의 중간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17)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21권 21책 서울대본 《소현성록》은 〈소현성록〉과 연작인 〈소씨삼대록〉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소현성록》’으로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소현성록〉과 〈소씨삼대록〉을 나누어 논의하도록 하겠다.

행되어 검증된 객관적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중국소설의 우리나라 유입상황과 당시의 사회상, 소설에 대한 시각이나 사상 등을 검토하여 작품을 비교하기 전 전제되어야 할 사항들을 2장에서 서술하기로 하겠다.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들 7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소설의 기본 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을 중심으로 각 작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소설이 중국소설과 비교하여 어떠한 독특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 우리소설만의 독자성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옥교리〉 3권 3책 동경대본.

〈평산냉연〉 10권 10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본,

〈호구전〉 한글탈초본. 선문대중한번역문헌연구소

〈구운몽〉 4권 4책 규장각본.

〈창선감의록〉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10권. 아세아문화사

《소현성록》 21권 21책 서울대본.

〈현씨양옹쌍린기〉 10권 10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본.

2. 작품비교를 위한 기본적 고찰

중국소설사에서 말하는 才子佳人小説은 明末에서 시작하여 淸初에 이르는 시기까지 매우 성행한 중편으로 된 소설들을 일컫는 것으로 人情小説¹⁸⁾ 혹은 世情書¹⁹⁾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才子佳人小説에서 才子라는 명칭은 원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도덕적인 인물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뛰어난 시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 의미가 변화하여, 元代에 이르러서는 재자의 요건이 시를 잘 짓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급제하여 입신하는 의미까지 포함하게 된다. 佳人이라는 말은 매우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언어로 주로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明末에 이르러서는 용모와 情과 才를 두루 갖춘 여성들을 일컫는 말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²⁰⁾

재자가인소설이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재자와 가인이 만나 서로의 외모와 재주에 이끌려 애정을 갖고 혼인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최수경은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과 많은 텍스트를 분석하여 재자가인소설의 기본적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인물유형으로 용모와 재주를 모두 갖춘 미혼 남녀인 재자와 가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야 한다. 둘째, 章回小説이라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셋째, 3회에서 40회 사이의 길이를 가진 중편이어야 한다. 넷째, 언어는 기본적으로는 白話文이나 종종 文言과 韻文이 삽입되어도 좋으며, 다섯째, 줄거리는 재자가인이 인연을 맺고 시련과 우여곡절을 거쳐 혼인에 이르는 과정을 위주로 하고 반드시 재자와 가인이 혼인하고 대단원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구성은 상대적으로 단일하고 집중적인 플롯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淸 順治 연간부터 신해혁명 이전까지(1644-1911) 창작된 소설이어야 한다.²¹⁾

이러한 재자가인소설이 청대 초반에 매우 전성기를 누렸던 데에는 당대의 사회적 배경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명대에 들어서면서 상공업과 도시 경제가 발달하

18) 인정소설이라는 용어는 노신에 의해서 처음 제기된 용어로 대개 명말의 〈금병매〉로부터 청나라 중반 〈홍루몽〉에 이르기까지 명청 양대에 걸쳐 근 300여년동안 이어진 大流波로, 연애와 혼인 및 가정 생활을 제재로 하여 현실을 반영한 중단편 소설을 말한다.

19) 세대의 묘사를 통해 인생살이에 있어서 영고성쇠를 드러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노신, 『중국소설사략』, 살림출판사. 1998. 420쪽.

20) 최수경, 「청대 재자가인소설의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25-26쪽 참조.

21) 위의 글, 14쪽 참조.

고, 이에 따라 시민 계층의 의식이 점차 높아져 가면서 사람들은 기존의 역사소설, 영웅전기, 神魔소설과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다룬 소설을 원했다. 게다가 명나라 중엽 이후 황제권이 실추되고 환관의 권력이 상승하면서 날로 정치는 부패해지고, 지식인들의 직설적인 현실 비판이 어려워지자 작가들은 현실 상황의 애정과 혼인의 이야기와 결합시켜서 비판, 묘사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또한 명말에 이르러 주자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계몽사상가들이 인간의 자유로운 가치와 개성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심과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등장한 소설이 〈금병매〉를 필두로 등장한 인정소설, 즉 재자가인소설이다.²²⁾

재자가인소설들은 작품 수도 많을 뿐더러, 명말 청초 이래 중편소설의 변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쳐 청대를 대표하는 소설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 중에서도 〈옥교리(玉嬌梨)〉, 〈평산냉연(平山冷燕)〉은 프랑스어 번역본이²³⁾, 〈호구전(好逑傳)〉은 프랑스어와 독일어 번역본이²⁴⁾ 존재하고 있어, 이들 소설들은 일찍이 외국으로 번역되어 널리 읽힐 정도로 매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작품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옥교리(玉嬌梨)〉는 현존하는 판본이 청초의 것은 아니지만 순치 연간에 창작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평산냉연(平山冷燕)〉은 현존하는 최고 판본이 순치 15년(1658)년에 나온 것으로 미루어 순치 연간에 창작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을 한데 묶어 「天花藏合刻七才子書」라하여 출판된 것도 존재한다. 〈호구전(好逑傳)〉은 노신에 의하면 18회로 되어있는 소설로 일명 〈협의풍

22) 고민희, 「명말 인정소설의 대두에 관한 고찰」, 『중국소설논총』 제2집, 1993.참조.

23) 〈옥교리〉의 불역본 <ju-kiao-Li〉는 프랑스인 M.Atet Rémusat(銳摩沙)가 최초로 번역한 것인데 다시 <두 명의 사촌자매(兩個表姐妹)〉(<Les deux cousines〉)라는 제목으로 1826년 파리에서 출판되었다. 그 후 다시 Starn Julien(裘利恩)의 번역본이 역시 <두 명의 사촌자매(兩個表姐妹)〉라는 제목으로 1864년 파리에서 출판되었다. 〈평산냉연〉의 불역본 <Ping Chan Ling Yen〉은 Starn Julien이 번역한 것인데, 다시 <재학을 갖춘 두 젊은 처자(兩個有才學的年青姑娘)〉(<Les deux jeunes filles lettrées〉)라는 제목으로 1860년 파리에서 출판되었다. 노신, 앞의 책, 455쪽.

24) 〈호구전〉의 불역본에는 G.d'Arcy(阿賽)가 번역한 <Hao-Kbieou-tschoyan〉이 있는데, 다시 <아름다운 아가씨(完美的姑娘)〉(<La femme accomplie〉)라는 제목으로 1842년 파리에서 출판되었다. 독일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Haob Kjo'b Tschwen〉으로 C.G.Von Murr(摩爾)가 영문판에서 중역한 것이며, 제목을 <호구의 즐거운 이야기(好逑快樂的故事)〉(<Die angenehme Geschichte des Haob Kyo'b〉)라고 붙였으니, 잘못되어 '호구(好逑)'가 이름으로 되어버렸다. 1766년 라이프치히에서 출판되었다. 직접 중문판에서 번역된 것으로는 <빙심과 철중옥(氷心與鐵中玉)〉(<Eisherz und Edeljaspis〉)이라는 제목으로 F. Kuhn(法郎茲·孔)이 번역한 것이 있고, 또 <행복한 결혼이야기(一個幸福的結合的故事)〉(<Die Geschichte einer Glücklichen Gattenwahl〉)라는 제목으로 1926년 라이프치히에서 출판되었다. 위의 책, 455-456쪽.

월전(俠義風月傳)》이라고도 하고, “명교중인 편차(名敎中人編次)”라고 제하였다고 한다.²⁵⁾ 이 작품은 작자, 평자가 고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生花夢〉 등에서 모방한 것으로 미루어 청대 강희 초기에 나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1782년에 〈옥교리〉와 합각한 것도 존재한다.²⁶⁾

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호구전〉과 달리 〈옥교리〉와 〈평산냉연〉에는 작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옥교리〉의 저자에 대해 노신은 청대 張勻이 지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손해제의 『서목』의 설을 따른 것이고, “이적산인편차(荑荻山人編次)”라고 적혀있다고 했다. 〈평산냉연〉에는 ‘적안산인편차(荻岸山人編次)’라고 적혀 있는데, 清代 성백이가 이 작품은 嘉興의 張博山이 열너댓 살때에 지은 것으로 그 부친의 친구인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어서 완성했다고 하였다. 장박산이란 인물은 청대 강희 연간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평산냉연을 그의 작품으로 보았지만, 노신은 문장과 내용이 진부하므로 아이가 지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²⁷⁾ 게다가 이 두 작품에는 모두 天花藏主人의 序가 쓰여져 있어 이 두 작품을 지은 작가가 天花藏主人이 아니냐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天花藏主人은 16편 이상의 작품의 序를 쓰고, 발행에 관계한 인물로 소설가일 뿐 아니라 소설 편집자거나 출판상일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다.

어쨌든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호구전〉, 〈옥교리〉, 〈평산냉연〉 등은 유럽 등지로 번역되어 갈만큼 인기가 높은 소설이었고, 이미 백제시대부터 중국문학이 유입되고 있었던 우리나라 실정²⁸⁾으로 보았을 때 이들 작품은 당연히 들여와 번역, 출간 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짐작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 또한 존재한다. 〈평산냉연〉이 유입된 시기는 1717년 이전으로 김춘택(1670-1717)의 《北軒集》에 이르기를 “평산냉연과 같은 것은 또 얼마나 풍치가 있는가”라고 하고 있어 그 유입시기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²⁹⁾ 《정조실록》에도 〈평산냉연〉에 대한 언급

25) 노신, 앞의 책, 450쪽.

26) 최수경, 앞의 글, 89-95쪽 참조.

27) 노신, 위의 책, 442-457쪽 참조.

28) 고전문헌의 기록상으로 볼 때 국내에 가장 먼저 유입된 중국고전소설은 〈山海經〉으로 서기 284년에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기록이 나오는데, 284년 이전에 〈산해경〉이 국내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국내 유입시기와 과정 및 판본에 대한 고찰」, 『중국소설논총』 3집, 1994.

29) “如平山冷燕, 又何等風致?”, 《北軒集》 권16(김태준, 앞의 책, 98쪽에서 재인용).

이 있는데, 정조16년인 1792년 10월 14일의 기록에 따르면 “앞서 정미년에 상황과 김조순(金祖淳)이 예문관에서 함께 숙직하면서 당송(唐宋) 시대의 각종 소설과 〈평산냉연(平山冷燕)〉 등의 서적들을 가져다 보면서 한가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상이 우연히 입시해 있던 주서(注書)로 하여금 상황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였던 바 상황이 때마침 그러한 책들을 읽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가져다 불태워버리도록 명하고서는 두 사람을 경계하여 경전에 전력하고 잡서들은 보지 말도록 하였었다.”³⁰⁾라고 되어있어 〈평산냉연〉이 당대에 얼마나 큰 인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한글로 번역된 것도 여러 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³¹⁾ 완산 이씨가 작성했다는 「중국소설회모본」에서는 “四才子書”라는 제목의 〈평산냉연〉을 찾을 수 있다.

〈옥교리〉는 〈중국소설회모본〉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에는 〈玉巧利〉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은 〈玉橋梨〉의 오기이다. 〈옥교리〉는 이 책 이외에도 顯宗(1659~1674)이 대왕대비전에 보낸 한글 簡札과 肅宗(1674~1720)이 妹異人 明安公主에게 보낸 한글 간찰에 첨부한 소설 제목에 〈玉交梨〉의 책명이 들어있고, 正祖 18년(1794) 일본 대마도 역관 山田士雲의 《象胥記聞》에 諺文으로 쓰여진 것이 있음을 밝혀 1794년 이전에 이미 〈옥교리〉가 번역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²⁾ 또한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후에 雨森芳洲에 의해 한글 번역본이 일본에 수입, 편집되어 일본의 한국어 학습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전승, 학습되었다. 이 판본이 동경대 본으로 현재 남아있는 유일의 완질 번역본이기도 하다.³³⁾

〈호구전〉의 유입시기에 관해서는 옥소 권섭의 문집 『玉所稿』에 있는 〈先妣手寫冊子分配記〉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권섭의 어머니 용인 이씨가 〈義俠好述傳〉이라는 이름의 책을 필사하여 자손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30) “先是丁未年間，相璜與金祖淳，伴直翰院，取唐宋百家小說及，〈平山冷燕〉等書，以遺閑，上偶使入侍注書，視相璜所事，相璜方閱是書，命取入焚之戒”『正祖實錄』 권36, 16年 壬子 十月.

31) 〈평산냉연〉은 2종의 한글 번역본과 더불어 재자가인소설로는 유일하게 원전인 목판본이 여러종 전하고 있으며 2종의 번역본도 실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3冊현이 전한다. 국내에 전해지는 唐板 〈평산냉연〉은 6종이 있는데, 2종은 奎章閣本이고 나머지 3종은 성균관대에 보관되어 있다. 石印本으로는 박재연과 東亞大石堂傳統文化研究員 소장본이 있다. 박재연(1993), 앞의 글, 347쪽.

32) 박재연(1996), 앞의 글, 208쪽.

33) 정병설, 「조선후기 동아시아 어문 교류의 한 단면 - 동경대 소장 한글번역본 〈옥교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27, 서울대, 2001 참조.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옥교리〉도 동경대 소장본이다.

용인 이씨는 1652년-1712년 사이에 생존했던 인물이고, 〈호구전〉은 청대에 형성된 작품이라고 본다면 〈호구전〉의 한국 전래는 17세기 중반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³⁴⁾ 또한 〈중국소설회모본〉에도 그 제목이 나타나 있어 조선시대에 인기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처럼 위의 세 작품은 대략 17세기에서 18세기 초반에 유입되어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작품들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당대에 함께 성행하던 한국 소설과의 비교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고에서 거론하는 한국고전소설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창작시기가 밝혀진 것은 〈구운몽〉이다. 김태준은 김만중의 일생과 당시 정세들을 거론하여 한글본 〈구운몽〉의 창작시기를 숙종 15년인 1688년이라고 추정하였다,³⁵⁾ 그러나 학계에서는 〈구운몽〉이 창작된 시기가 김만중이 평북 선천에 유배되었을 때인 1687년인지, 경남 남해에 유배되었던 1689년 이후인지 논란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일본 천리대학에 소장되어 있다가 김병욱에 의해 발견된 『서포연보』에 따르면 정묘년인 숙종 13년(1687)에 宣川에 귀양가있던 김만중이 모친인 윤부인의 생일을 맞이하여 시를 지어 보내며 모친과 함께 하지 못함을 슬퍼하는 한편, “또 글을 지어 부쳐서 [윤부인]의 소일 거리를 삼게 하였는데 그 글의 요지는 ‘일체의 부귀영화가 모두 夢幻이다.’는 것이었으니 또한 [부군(김만중)]이 뜻을 넓히고 슬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³⁶⁾라고 그 창작시기를 명확히 밝혀 놓고 있다.

《소현성록》은 〈소현성록〉과 〈소씨삼대록〉의 연작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울대본 21권은 《소현성록》의 한 권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권지육의 말미에서 〈소씨삼대록〉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권지철의 서두가 〈소현성록〉을 압축 정리하여 소개한 후 長子 윤경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작품이 연작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서울대본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필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⁷⁾ 《소현성록》은 〈구운몽〉만큼 명확하게 창작 시기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호구전〉에서 잠시 언급했던 필사본 분배기에 따르면 용인 이씨가 필사한 소설

34) 박영희, 앞의 글, 1998. 189쪽 참조.

35) 김태준, 앞의 책, 115쪽.

36) 김병국, 최재남, 정운채 譯, 《서포연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227쪽.

37) 《소현성록》의 연작에 관한 것은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소설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및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에서 소상하게 다루고 있다.

중에 〈소현성록〉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³⁸⁾ 박영희는 용인 이씨가 소설을 필사한 시기를 50살 전후인 1686-1700년으로 추정하고 있어 《소현성록》은 적어도 17세기 후반에는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⁹⁾

〈창선감의록〉은 김태준이 조재삼의 《송남잡지》에 실려있는 문헌을 언급하면서 조성기(1638-1689)의 작품이라고 밝혀 놓은 이후,⁴⁰⁾ 거의 정설로 굳어져, 이에 따르면 최소한 1689년 이전에는 창작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⁴¹⁾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고, 김도수라는 인물의 창작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으나 조성기의 작품이라는 것이 더 신빙성을 얻고 있어, 〈창선감의록〉은 17세기 후반의 작품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최기숙은 17세기 작품에 대해 거론하면서 17세기에 〈창선감의록〉이 창작 유통되었을 것이라는 데에 다른 연구자들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⁴²⁾

〈현씨양웅쌍린기〉는 낙선재본 소설로 〈명주기봉〉과 〈명주옥원기합록〉, 〈현씨팔룡기〉로 이어지는 4부작의 연작형태를 띠고 있다.⁴³⁾ 〈현씨양웅쌍린기〉의 창작연대 역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김진세가 10권 10책으로 된 낙선재 필사본과 1920년에 발행된 덕흥서림 본을 비교하여 낙선재 필사본이 덕흥서림 본보다 최소한 100여년은 앞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⁴⁴⁾

〈현씨양웅쌍린기〉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작품들은 모두 17세기, 적어도 18세기 초반에는 대중들에게 향유된 작품들이며,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중국재자가인소설들은 인기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동시대에 유행했던 중국과 한국의 여러 소설을 비교하는 것은 두 나라 작품들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데 기초적인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고전대하소설이 확립된 시기인 18세기 작품과 비교하는 일은 동시대의 중국재자가인소설과 한국고전소설의 비

38) 박영희(1994), 앞의 글, 35-36쪽 참조.

39) 위의 글, 40-45쪽 참조.

40) 김태준, 앞의 책, 160-161쪽

41) 영남대본에는 “金道洙 所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작자에 대한 논란의 여자가 있다. 장효현, 「국문 장편소설의 형성과 가문소설의 발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년. 233-235쪽.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작품 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3에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42)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15-19쪽.

43) 현재까지 〈현씨팔룡기〉는 발견되지 않아 3부작만이 전해지고 있다.

44) 김진세, 「현씨양웅쌍린기의 서지적 연구 - 낙선재본과 덕흥서림본의 경우」, 『관악어문연구』 제6집, 1981.

교에서 나타난 우리소설의 독자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재자가인소설과 한국고전소설의 모티프 비교

작품을 읽고 다른 작품과 비교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모티프의 유사성이다. 서로 연관이 전혀 없을 듯한 작품이라도 배경이나 상황의 설정, 사건의 발생, 사건에 따른 인물의 반응 등에서 유사한 점이 발견되면 두 작품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연구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작품들 간의 모티프의 비교이다. 모티프의 구체적인 비교는 작품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인 동시에, 작품에서 드러나는 의식과 사상을 알아보기 위한 기본작업이기도 하다. 게다가 재자가인소설은 情節과 인물 유형에서 유사성, 모방 반복 사용으로 인한 모식화와 공식화가 드러난다는 비판을 받고⁴⁵⁾ 있고, 한국고전소설 역시 유형적인 모티프가 존재하므로 대표적인 작품들의 상세한 비교로 이들 소설이 유행하던 당시의 사회의식이나 작가의식, 가치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에서 선정하여 비교하는 모티프는 대략 작품의 순차적 진행에 따른 것이지만, 세세한 전개 순서에 구애받지는 않았다. 작품에서 어느 정도의 분량과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티프를 선정하되 ‘시련을 겪는다’, ‘혼인한다’, ‘남녀가 우연히 만난다’등의 너무 추상적인 모티프는 제외시켰다. 그리고 《소현성록》은 〈소현성록〉과 〈소씨삼대록〉의 연작형태이기 때문에 모티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필요에 따라 두 작품을 나누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서두에서의 가문(집안) 소개

〈평산냉연〉의 서두에는 나라의 태평함을 제시하고 있고, 〈구운몽〉에서는 연화도량에 대한 설명을, 〈호구전〉의 서두에는 주인공인 철중옥 개인에 대한 설명만이 간략하게 제시되어있다. 이 세 작품은 서두에 가문에 대한 소개보다는 작품의 배경이나 개인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옥교리〉,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현씨양옹쌍린기〉에서는 배경은 물론이고, 가문에 대한 소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길고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주인공이 탄생하는 상황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45) 최수경, 앞의 글, 120-121쪽 참조.

2) 태몽 제시

〈옥교리〉와 〈평산냉연〉에서는 여주인공인 백홍옥, 산대의 태몽이 나타나있고, 〈창선감의록〉에서는 화진과 윤여옥 남매의 태몽이, 《소현성록》에서는 소현성과 소운성, 소수주의 태몽이 나타나있다. 작품에서 태몽이 제시된 인물들은 작품에서 주인공이거나 매우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높은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다.

3) 獨子/獨女

〈옥교리〉, 〈평산냉연〉, 〈호구전〉의 재자가인들과 〈구운몽〉의 양소유, 8선녀들은 모두 외동아들, 외동딸이다. 즉 재자가인소설의 경우 등장인물들의 대부분이 형제가 없거나 형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한국소설에서는 〈구운몽〉이 이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창선감의록〉에서는 단지 남채봉만 獨女로 나타날 뿐, 花府에 3남매, 진府에 남매, 윤府에 쌍둥이 남매가 있어 형제들에 대한 언급과 함께 그들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재자가인소설이나 〈구운몽〉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소현성록》과 〈현씨양옹쌍린기〉에 이르면 형제에 대한 언급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소현성록》에서는 소현성, 월영, 교영의 3남매가 등장하고⁴⁶⁾, 그 아들 代에서는 10자 5녀가 등장하여 모든 자녀들의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⁴⁷⁾ 〈현씨양옹쌍린기〉에는 현수문, 경문 형제가 등장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두 사람의 혼인 상대인 하소저와 주소저 중에서 獨子인 것은 주소저뿐이고⁴⁸⁾, 윤소저는 헤어졌던 가족에게 형제들이 있었다 〈현씨양옹쌍린기〉는 형제의 수가 《소현성록》이나 〈창선감의록〉보다 적지만 두 형제의 이야기가 비슷한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6) 〈소현성록〉은 주로 소현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데, 그렇다고 다른 형제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영은 앞 부분에서 정절을 훼손한 죄로 죽고, 월영은 《소현성록》에서는 그 비중이 적은 대신 〈한씨삼대록〉에 따로 그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다.

47) 주로 소운경, 소운성, 소운명, 소수주에 관한 이야기가 작품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으나 적은 분량이라고 해도 모든 자녀들의 혼인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은 재자가인소설이나 〈구운몽〉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48) 그러나 주소저의 아버지 주명기가 여동생의 딸인 육취옥을 데려다 친 딸처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주소저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獨女라고 말하기 힘들다.

4) 아버지의 유무

〈옥교리〉와 〈평산냉연〉에는 공통적으로 재자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대신 가인들에게만 아버지가 존재한다.⁴⁹⁾ 〈호구전〉에서는 둘 다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비중이 크지 않으며, 특히 여주인공 수빙심의 아버지는 후반부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작품 내에서 미미한 존재로만 남게 된다. 〈구운몽〉의 경우도 성진은 아버지가 없고, 양처사는 양소유가 10살 때 선계로 떠나며, 정정패를 제외한 다른 7명의 여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거나, 그 역할이 매우 미약하다. 즉 재자가인소설과 〈구운몽〉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유사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으나 아버지의 부재가 작품 내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창선감의록〉에서는 화진 3남매의 아버지가 등장하지만 일찍 죽고, 남채봉과 진채경도 아버지가 있지만 헤어져 고난이 지나간 후에야 만나므로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위의 작품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윤옥화의 경우는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지만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어 역시 아버지의 존재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은 유복자로 태어나지만 양부인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여 집안을 이끌어가고, 그가 자라 10자 5녀를 거느리는 이야기인 〈소씨삼대록〉에서는 소현성이 매우 강력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씨양웅쌍린기〉에는 현씨형제의 아버지인 현택지가 작품 내내 강력한 존재로 등장하고, 다른 등장인물들도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는다.⁵⁰⁾

5) 주요 인물의 애정발현

애정 모티프는 모든 작품에서 나타나는 모티프인 동시에 작품의 중요 갈등 요소이기도 하다. 재자, 가인들의 연애와 혼인을 주로 다루는 재자가인소설은 물론이고 다른 작품에서도 애정 발현이 남, 녀의 특별한 구분이 없이 나타난다. 그러나 같은 애정 발현이라도 남, 녀의 애정 발현에 대한 시각과 그로 인한 결과가 다를 뿐더러,

49) 〈옥교리〉의 노몽리는 아버지가 早死하여 후에 외삼촌이자 백홍옥의 아버지인 백현이 아버지의 노릇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부재로 보아야 한다. 〈평산냉연〉의 연백함에게는 아버지가 있지만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아 가인인 산대나 냉강설보다 아버지의 모습이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50) 단, 윤소저의 경우는 어릴 때 아버지와 헤어졌었고, 아버지와 재회한 후에도 현수문과의 늑혼을 피하기 위해 계속 집을 떠나 있으므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남성일지라도 발현 양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1)

6) 시를 매개로 한 만남

소설에서 남녀가 만날 때에 시를 매개로 하는 것은 남녀간의 만남이 등장할 때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중 하나이다. 본고에서 거론한 작품 중에는 〈옥교리〉, 〈평산냉연〉에서 시가 매우 자주 등장하면서 결연의 매개체인 동시에 주인공들의 재능을 알 수 있게 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⁵²⁾ 〈구운몽〉에서는 시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양소유와 진채봉의 결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재자가인소설과 마찬가지로 시가 남녀의 자유로운 결연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⁵³⁾ 그러나 다른 한국소설에서는 시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소현성록》에서 소운명과 이소저의 결연 과정에서 시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미 소운명이 남장한 이소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18세기로 접어들수록 우리소설에서 부모가 맺어준 집안과의 혼인, 혹은 가문끼리의 결합이 중시하면서 남녀의 자유로운 연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의 출현도 감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불고이취로 인한 처벌

소설에서 남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인연을 맺었다 해서 벌을 받는 경우는 한국고전소설, 특히 장편소설에서만 등장하는 특이한 모티프이다. 〈호구전〉을 제외한 재자가인소설과 〈구운몽〉에서 남녀 주인공들은 자유롭게 혼약을 맺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없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창선감의록〉에서는 자유로운 혼인에 대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그에 대해 크게 벌을 받지 않아도 재자가인소설, 〈구운몽〉과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소현성록》이나 〈현씨양옹쌍린기〉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자유로운 애정 표현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아버지에게笞杖을 맞거나 아예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그만큼 불고이취로 인한 처벌은 매우 무겁고 이는 부모, 더 나아가서는 가문의 유지와 번영을

51)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52) 최수경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운문을 읊조리거나 운문으로 교류한다’는 모티프가 조사한 자료의 77%에 나타날 정도로 많은 중복을 보이고 있다. 최수경, 앞의 글, 127쪽.

53) 〈구운몽〉보다 이전의 소설인 《금오신화》나 〈운영전〉 등에서 시를 통한 남녀의 만남과 교류가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시하는 혼인을 강조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아버지에 의한 受罪

7)번의 경우와 연결되는 것으로 한 가문의 가장인 아버지가 자식들 특히 남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벌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벌’은 단순한 책망이나 호통의 정도가 아닌 피가 맺히고 살이 떨어질 정도로 매를 맞거나, 부자간의 인연을 끊겠다고 말할 정도의 무거운 벌을 말한다. 이 모티프도 채자가인소설과 〈구운몽〉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아버지가 집안에서 강력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 《소현성록》이나 〈현씨양옹쌍린기〉에서 확실하게 나타난다.

9) 勒婚

늑혼이란 혼인을 맺을 때, 어느 한 쪽에서 권력이나 재물 등의 힘을 가지고 다른 한 쪽에게 혼인을 강요하여 혼사가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상대방 가문은 혼사를 원하지 않거나 반대하지만,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혼인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소설에서의 늑혼은 황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혼인 전부터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어, 한 집안이 몰락할 정도로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작품 내내 이로 인한 갈등과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평산냉연〉의 경우에는 황제가 명령한 늑혼의 상대가 이미 마음에 두고 있었던 상대였기에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구운몽〉에서는 난양공주와의 혼인을 거부한 양소유가 감옥에 갇힌다. 《소현성록》에서는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자 소운성이 어쩔 수 없이 명현공주와 혼인하는데, 이로 인한 사건과 갈등은 《소현성록》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길고 심각하게 전개된다. 〈현씨양옹쌍린기〉의 현경문은 늑혼으로 맞이한 육취옥과 한순간도 화락하지 못한다.⁵⁴⁾

황제에 의한 늑혼 이외에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씨양옹쌍린기〉의 현수문이 윤소저를 겁탈한 후 혼인을 요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윤소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를 피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현수문과 혼인하고 이로 인한 갈등은 작품 내내 계속된다. 또한 혼인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54) 〈호구전〉에서도 황제가 혼인한 후에도 동침하지 않는 칠중옥과 수빙심에게 다시 혼인할 것을 명령하는데 이 경우에는 도덕을 지키기 위해 혼인을 거부했던 것이고 이것을 황제가 도덕적인 행동임을 인정하고 혼인을 명한 것이므로 완전한 늑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만 늑혼의 위협으로 인한 사건들도 있다. 〈호구전〉에서 과기조는 수빙심과 혼인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여 갖은 계략을 쓰고, 이것은 수빙심이 철중옥과 혼인한 후에도 계속 되지만 수빙심의 채치와 철중옥의 도움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창선감의록〉에서 조문화가 진채경에게 아버지를 빌미로 혼인을 강요하지만 진채경은 이를 피해 도망가고, 엄세번은 윤옥화와 혼인할 것을 요구하지만 윤옥화로 변장한 윤여옥으로 인해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⁵⁵⁾

10) 異性으로의 변장

여성이 남성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변하는 모티프도 소설내에서 종종 발생한다. 여성이 남성으로 변장하는 것은 위기를 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창선감의록〉의 진채경, 《소현성록》의 위선화와 이옥주, 〈현씨양옹쌍린기〉의 주소저와 윤소저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는 달리 자신의 애정 실현을 위해서 남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옥교리〉의 노몽리와 〈구운몽〉의 적경홍은 자신이 반한 남성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남장을 한다. 남성의 여장도 애정 발현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구운몽〉의 양소유가 정경패를 보기 위해 여장을 한 것이 그 예이다. 〈창선감의록〉에서 윤여옥이 여장을 한 것은 늑혼의 위기에 처한 윤옥화를 구하기 위한 방책이었으나 여기서 엄월화와 인연을 맺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여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애정 발현도 포함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렇듯 소설에서 異性으로의 변장은 자신의 성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 위한 수단이자, 배필을 만나기 위한 수단뿐만이 아니라 위기나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11) 혼인 당사자간의 갈등

혼인을 맺은 남·녀 당사자가 갈등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녀간의 혼인 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는 재자가인소설과 〈구운몽〉에는 이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다. 남, 녀가 가연을 맺는 과정이 중점적으로 서술되는데다가, 이에 따르는 주변의 방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재자가인소설의 목적이고, 〈구운몽〉은 미리 정해져 있던 8명의 여인과의 결연을 서술하

55) 박일용은 〈창선감의록〉의 서술자가 늑혼을 피하기 위해 진채경의 男裝과, 윤여옥의 女裝을 대칭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후 가문 소설에 등장하는 혼사장애 극복 방법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일용, 「〈창선감의록〉의 구성 원리와 미학적 특징」, 『고전문학연구』 18, 한국고전문학회, 2000년 12월, 332쪽.

고 있으므로 이들 작품에서는 남·녀 당사자의 갈등이 나타날 여지가 없다. 즉 재자가인소설과 〈구운몽〉이 혼인의 과정을 중시하며 서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인 것이다. 그러나 혼인 후의 이야기를 중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장편소설에서는 혼인 당사자의 갈등인 부부갈등이 주요 모티프로 등장한다. 〈창선감의록〉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부부갈등인 화춘과 임소저의 갈등은 조월향의 계교에 속은 화춘이 임소저를 出府시키는 과정에서 임소저가 거부, 혹은 항거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미약한 축에 속한다. 그러나 《소현성록》의 소운성과 명현공주의 갈등, 〈현씨양옹쌍린기〉의 현수문과 윤소저⁵⁶⁾, 현경문과 주소저의 갈등은 작품 내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특히 〈현씨양옹쌍린기〉의 경우는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두 부부의 갈등이 교차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의 갈등이 작품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 앵혈

앵혈, 혹은 주표는 한국고전소설, 특히 장편소설에서만 등장하는 것으로 여성의 처녀성을 알려주는 상징이다. 그러나 단순히 처녀성을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현성록》, 〈현씨양옹쌍린기〉에서처럼 혼인한 부인의 팔에 주표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부부가 화락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여성에게만 앵혈을 찍는 것에 착안하여 주변 사람들이 남성의 팔에 앵혈을 찍고 이를 조롱하기도 하는데 이때 앵혈이 찍힌 남성들은 자신의 처지를 한심스러워하며 앵혈을 지우고자 노력한다.

13) 겁탈(강압적 동침)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일방적으로 동침을 강요당하거나 겁탈을 당하는 경우도 역시 한국고전소설에서만 등장한다. 〈창선감의록〉에서는 비록 동침은 하지 않지만 여장한 윤여옥이 엄월화를 희롱하는 소극적인 형태의 겁탈 모티프가 등장한다. 그러나 《소현성록》에서는 앵혈이 찍힌 소운성이 이를 없애기 위해 소영을 겁탈하고도 거리까지 않는가 하면, 〈현씨양옹쌍린기〉에서 현수문은 우연히 본 윤소저가 아름답

56) 현수문과 윤소저의 갈등은 현수문과의 혼인을 거부하는 윤소저와 그를 찾아내려는 현수문과의 갈등이지만 이미 혼인식을 치른 상태였고, 현수문을 비롯한 모든 등장인물이 두 사람을 혼인 관계라고 용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동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혼인한 부부의 갈등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다는 이유로 겁탈한다. 소운명은 혼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승의 예언과 시어른들의 당부 때문에 자신을 멀리하는 이소저를 데려와 억지로 동침하고, 현경문은 자신을 거부하는 주소저를 설득하여 반 강제로 동침한다. 남성의 강압에 의해 꺾박받는 여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14) 용서갈등

용서갈등, 즉 장인과 사위의 갈등은 본고에서 다루는 작품 중에서는 〈현씨양옹쌍린기〉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⁵⁷⁾ 외동딸을 끔찍이 사랑하는 주명기는 딸을 박대하는 사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를 책망한다. 그러나 현경문은 이러한 주명기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여기고, 경박한 성격의 주명기를 무시하여 공공연하게 비꼬거나 조롱하여 주명기의 분노를 산다. 이들의 갈등은 다시 현경문과 주소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두 갈등이 서로 물리고 물려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말부에 이르면 이들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화해하고 화락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질적으로는 갈등이 깨끗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작품은 결말을 맺는다.

15) 여성의 기지(재주) 발현

남성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마음껏 펼치는 모습은 중국이나 한국 모든 고전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티프이다.⁵⁸⁾ 그러나 여성이 자신의 재주와 지혜를 발현하는 것은 우리소설보다는 재자가인소설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옥교리〉의 백홍옥, 〈평산냉연〉의 산대, 냉강설은 뛰어난 글솜씨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많은 남성들이 이들과 혼인하기 위해 자신의 재주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들의 재주는 웬만한 남성들보다 뛰어나기에 구혼하러 온 이들을 직접 시험하여 조롱하거나 구혼을 거절하기도 한다. 〈호구전〉의 수병심과 〈현씨양옹쌍린기〉의 윤소저는 자신들에게 혼인을 강요하는 남성들을 피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데, 이들의 지혜와 상황 판단 능력은 매우 뛰어나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한다. 〈현씨양옹쌍린

57) 《소현성록》에서도 석소저를 친정으로 보냈다 하여 석참정과 소현성이 잠시 갈등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지만 본격적인 용서갈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58) 이를 증명하는 것이 대부분의 남성 인물들은 과거에 높은 성적으로 급제하여 재능을 인정받는다. 특히 주인공들의 경우는 대개 장원 아니면 차상이 되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벼슬길에 올라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공을 세워 황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

기〉의 주소저는 일광도사에게 배운 도술과 타고 난 지혜로 戰場에서 위기에 처한 현수문 형제를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운다. 게다가 이 공로를 황제에게 인정받아 벼슬까지 받게 된다.

16) 신방 窺視

신방을 엿보는 모티프도 역시 한국고전소설에서만 등장한다. 《소현성록》에서 석과는 소운성과 형소저의 신방을 엿보던 중 소운성이 형소저에게 반하여 석참정에게 부탁해 혼인을 이루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소운성은 소현성에게 重罰을 받게 된다. 〈현씨양웅쌍린기〉에서는 주명기 내외가 딸 내외가 화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규시하다가 사위에게 들통이 나 조롱을 받기도 한다. 신방을 엿보는 모티프가 단순히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해서 파급되는 다른 사건들을 볼 때, 재미보다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17) 一夫多妻

〈평산냉연〉과 〈호구전〉을 제외한 모든 작품에서 일부다처의 모습이 나타난다. 〈옥교리〉의 백홍옥·노몽리, 〈창선감의록〉의 윤옥화와 남채봉⁵⁹⁾은 함께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를 바라며, 〈구운몽〉의 여성들은 양소유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다른 여성들을 추천한다. 이들은 여성들 스스로가 일부다처를 희망하고 있다는 유사점을 보이는 것이다.⁶⁰⁾ 가장 많은 아내를 맞는 것은 《소현성록》의 소운명과 〈구운몽〉의 양소유로 소운명은 8처를 양소유는 2처 6첩을 얻는데 이들의 일부다처는 전생의 인연에 의한 것이라고 설정되어 있다. 〈창선감의록〉의 화진, 《소현성록》의 소현성과 〈현씨양웅쌍린기〉의 현경문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얻는 것은 남성의 애정 발현이 실현된 경우이다. 이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혼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부부는 물론 아내들끼리도 화락하며 살 것을 요구한다.

59) 윤혁의 명에 따라 쓴 시에 두 사람이 함께 한 남자와 더불어 살고 싶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윤혁은 이들의 바람을 파악하고 화진에게 함께 시집보내기로 한다.

60) 〈현씨양웅쌍린기〉에서 옥취옥의 경우도 주소저와 사춘 자매지간이면서 주소저의 남편인 현경문에게 반하여 그의 아내가 되기를 희망하고, 황제에게 주청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었으므로 이들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8) 처·첩(처·처)갈등

소설 내에서 일부다처가 용인되는 이상, 처첩갈등은 당연히 거론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옥교리〉와 〈구운몽〉, 〈창선감의록〉의 윤옥화·남채봉에게서는 처첩갈등이 일어나기는커녕 아내들끼리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타의에 의한 일부다처가 아니라 자신들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를 원한, 능동적인 일부다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선감의록〉에서 화춘의 부인인 임소저와 조월향,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의 부인 화소저·석소저·정소저, 소운성의 부인 형소저·명현공주, 소운명의 부인 이소저·정소저, 〈현씨양옹쌍린기〉에서 현경문의 부인 주소저·육취옥에게는 처첩갈등이 일어난다. 처첩갈등은 조월향의 경우처럼 정실 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갈등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남편의 애정을 얻기 위해 벌어지는 갈등인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 가볍게는 다른 부인들을 음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교를 통해 쫓겨나게 하는 한편 심각한 경우 다른 부인을 죽이려고 까지 하는 등 처첩갈등은 작품에 따라 양상과 심각성이 달라진다.

19) 계모 박대담

처첩갈등과 함께 일부다처로 인해 야기된 갈등에는 계모가 전처 혹은 다른 부인들의 자식들을 박대하는 모티프가 있다. 이 모티프는 재자가인소설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본고에서 다룬 한국고전소설중에서는 〈창선감의록〉과 《소현성록》에서만 나타난다. 〈창선감의록〉에서 화육의 1처인 심부인은 화육이 자신의 소생인 화춘보다 다른 부인의 소생인 화진을 더욱 아끼자 이에 분개하여 화육이 사망한 후 화진과 태강소저를 박대하여 심하게 때리기까지 한다. 《소현성록》에서는 소운경의 아내 위선화의 계모인 방씨가 전처 소생인 위선화 3남매를 괴롭힌다. 방씨는 남편인 위공이 죽은 후 자신의 소생인 유흥에게 집안을 물려주기 위해 구준에게 피신해 있는 유양 형제를 없애려 이들을 데려오고자 하는 한편, 위소저가淫奔하였다고 모해할 계획을 세운다. 또한 소현성과 윤성이 집을 비운 사이 화부인은 둘째 부인인 석부인 소생의 자녀들을 박대하여 제대로 된 의복을 주지 않는 한편 그들이 집안을 다스리는데 옳은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무시한다.

20) 악인의 개과

〈옥교리〉와 〈평산냉연〉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거나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악인이 아니라 가인과 혼인하고 싶어하는 가짜 재자들이 등장한다. 가짜 재자들이 하는 행동은 크게 윤리·도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재자가인들도 이들의 행동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으며, 계교가 들통 났을 경우 가짜 재자들이 이를 시인하는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 된다. 악한 일을 한 인물이 개과하는 모습은 〈창선감의록〉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화진 부부와 태강 소저를 괴롭히던 심부인과 화춘은 집안이 조월향 일당에 의해 몰락하게 되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개과한 심부인과 화춘은 매우 도덕적인 인물로 변모하여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종국에는 여느 긍정적 인물과 마찬가지로 복을 받는다. 그러나 〈호구전〉, 《소현성록》, 〈현씨양웅쌍린기〉에는 악인이 등장하지만 이들이 개과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들 작품에서의 악인들은 주요 인물들의 생명, 당대 윤리, 도덕 등을 위협하는 큰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개과로 마무리될 수 없으므로 벼슬이 삭감되거나 아예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된다.

21) 군담

재자가인소설에서는 군담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한국고전소설에서는 분량에 상관없이 군담이 반드시 나타난다. 소설에서 군담은 주로 오랑캐들의 반란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작품의 주요 인물들이 출전한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뛰어난 인물임을 입증하는 한편, 크게 승리하고 돌아와 더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른다. 이렇게 개인적인 위치가 상승하는 것 이외에도 전쟁을 하는 중이나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인물을 만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갈등이 해결되거나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군담 모티프는 사건의 전환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비록 군담의 분량이 적거나 심지어 군담이 제시되지 않고 군담이 있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도 군담이 가지는 위의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

22) 정치적 반목

〈옥교리〉에서는 백현이 양어사의 혼담을 거절하자, 이에 분개한 양어사가 권력

을 이용하여 백현을 오랑캐 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때 양어사는 당대의 권력가인 왕태감의 편에 있었으며, 왕태감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넓은 의미의 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인물인 백현, 소어사, 오한림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이들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부분만 가지고 간신이니, 정치적 반목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한 사회에서 잘못된 형태로 권력을 이용하는 무리와 이를 비판하는 무리의 정치적 대립이 미약하게나마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양상이 〈창선감의록〉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간신인 엄송의 무리가 있고 이를 비판하는 화옥, 윤혁, 남표가 공동 전선을 이룬다. 엄송이 마음대로 권력을 이용하는데 이용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세 집안을 없애기 위해 엄송 일당은 계략을 세우지만 세 집안은 서로 돕고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 그리고 엄송의 세력이 몰락한 후 하어사와 함께 엄송을 비판했던 이들은 바뀐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 작품에서 상당수의 사건은 이 정치적 관계와 연관되어 인해서 발생하고 있어 정치적 사건이 적극적으로 작품에 개입한다고 볼 수 있다.

23) 역모(반란)

반란은 재자가인소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모티프이지만 한국고전소설에서는 군담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티프이다. 주로 오랑캐들의 반란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주인공들이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역모는 외부가 아니라 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란 모티프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도 반란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인물들에 의해서 쉽게 해결된다. 〈현씨양옹쌍련기〉에서 임형아는 노길을 부추켜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고, 월청대사는 도술을 사용하여 이를 돕는다. 이 역모는 황제가 미리 알고 있었기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현경문과 주소저 부부에 의해서 금방 해결된다. 결국 이 사건은 임형아와 월청대사를 단죄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특이한 경우는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의 7자 소운숙의 아들 세명이 도적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주인공 가문의 집안에서 역모를 일으키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인데, 이 때 반란을 소운성이 진압하면서 조카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 이것은 아무리 조카라 할지라도 나라에 죄를 범하고 집안에 큰 누를 끼쳤다면 살려둘 수 없다는 齊家와 忠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4) 異界의 설정

異界는 재자가인소설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한국고전소설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가장 적극적인 경우는 〈구운몽〉으로 아예 주인공이 仙界의 사람이라고 서두에서 설정해 놓고 있다. 이 설정 때문에 성진이 양소유로 화하여 인간세상에서 지내고 있을 때에도 異界가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것을 작중 인물이나 독자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창선감의록〉이나 《소현성록》, 〈현씨양옹쌍린기〉에의 異界는 위기에 처한 주인공을 구출할 때, 아니면 후에 있을 사건을 대비하여 뛰어난 능력을 배울 때, 혹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현실 논리로 풀기 어려울 때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꿈, 전생, 신비한 장소 등의 모습으로 당시에 닥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5) 異人의 등장

異人이 등장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24) 異界의 개입과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재자가인소설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異人이 〈옥교리〉에서는 등장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서는 점을 매우 잘 치는 것으로 유명한 채신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채신선은 한국고전소설에서 등장하는 도사들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한국고전소설에서 도사는 도술을 사용하거나 신비한 재주가 있어, 앞날을 예언하고 위기에 처한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채신선은 점을 통해 앞일을 예언하고 있다. 한국소설에서만큼 적극적이지는 못하지만 채신선도 소우백에게 앞으로 갈 길을 알려주어 소우백이 좀 더 빨리 가인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을 살려주거나 도술로서 앞일을 예언하는 한국소설의 도사들에 비해 채신선의 모습은 매우 현실적인 재자가인소설에 걸맞는 異人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26) 신비한 물건

이 모티프 역시 異界와 연결되는 모티프인데 〈구운몽〉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고전소설에서 골고루 등장한다. 한국고전소설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신비한 물건은

약으로, 먹으면 얼굴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거나 변했던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등의 작용을 한다고 설정되어 있다. 이 약을 가지고 악인들이 흥계를 꾸미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 약에 의해 변해있는 인물들을 금방 알아보고 대처하여 갈등이 금방 마무리 된다. 이외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 도술을 부릴 수 있는 부적과 이를 퇴치하는 부적,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채 등이 한국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신비한 물건들이다.

27) 결말부에서 자녀담 서술

서두에서와 마찬가지로 결말부의 서술에 따라 소설들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평산냉연〉과 〈호구전〉의 경우는 각자 재자가인들이 행복한 혼인을 한 것으로 결말을 맺고 그 이후의 자녀담이나 후일담이 서술되지 않았다. 〈옥교리〉와 〈구운몽〉의 경우는 각각 아내들이 몇 명의 자녀를 낳았고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가에 대해 제시되어 있지만 분량도 몇 줄에 불과하며, 이를 압축하여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자녀담 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두 작품은 재자가인소설과 한국소설의 중간적인 성격의 결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현씨양옹쌍린기〉에는 주인공들의 자녀에 대한 서술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길게 서술되고 있다. 각각 자녀들의 이름과 함께 이들이 어떤 벼슬에 올랐고 어떻게 살았으며 얼마나 가문을 빛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것이다. 특히 《소현성록》과 〈현씨양옹쌍린기〉의 경우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 편의 작품으로 만들었음을 결말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즉, 연작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자녀담을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그들이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여 선대가 이루었던 가문의 영화를 더욱 번창시키고 있는지를 한편의 작품으로 그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했던 모티프를 다시 정리하여 각각 번호를 붙이고 그것이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하였다. 해당 모티프가 작품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O, 나타나지 않는 것은 X, 나타나기는 하되 그 양상이 모호한 경우는 △이다.

	옥교리	평산냉연	호구전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현씨양옹 쌍린기
1. 서두에 가문(집안)소개.	O	X	X	X	O	O	O
2. 태몽 제시	O	O	X	X	O	O	X
3. 獨子/獨女	O	O	O	O	X	O/X	△
4. 아버지의 유(O)무(X)	O(가인)/ X(재자)	O(가인)/ X(재자)	O(재자)/ △(가인)	X	X(화진)/ △(소저)	X(소현성 /O(8子))	O
5. 남성의 애정발현	O	O	O	O	O	O	O
6. 여성의 애정발현	O	O	X	O	O	O	O
7. 시를 매개로 한 만남	O	O	X	O	X	△	X
8. 불고이취로 인한 처벌	X	X	X	X	X	O	O
9. 아버지의 受罪	X	X	X	X	X	O	O
10. 勒婚(황제에 의한)	X	O	△	O	X	O	O
11. 勒婚(10번 제외)	X	X	△	X	△	X	O
12. 여성의 남장	O	X	X	O	O	O	O
13. 남성의 여장	X	X	X	O	O	X	X
14. 혼인 당사자간의 갈등	X	X	X	X	△	O	O
15. 앵혈(주표)	X	X	X	X	X	O	O
16. 남성에게 앵혈찍기	X	X	X	X	X	O	O
17. 겁탈(강압적 동침)	X	X	X	X	△	O	O
18. 용서갈등	X	X	X	X	X	X	O
19. 여성의 기지(재주)발현	O	O	O	O	△	X	O
20. 신방 窺視	X	X	X	X	X	O	O
21. 一夫多妻	O	X	X	O	O	O	O
22. 악인의 개과	△	△	X	X	○	X	X
23. 처첩갈등	X	X	X	X	O	O	O
24. 계모 박대담	X	X	X	X	O	O	X
25. 군담	X	X	X	O	O	O	O
26. 간신의 유무	△	X	X	X	O	X	X
27. 정치적 반목	△	X	X	X	O	X	X
28. 역모(반란)	X	X	X	O	O	O	O
29. 과거급제	O	O	O	O	O	O	O
30. 異界의 설정	X	X	X	O	O	O	O
31. 異人의 등장	△	X	X	O	O	O	O

	옥교리	평산냉연	호구전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현씨양웅 쌍린기
32. 신비한 물건	X	X	X	X	O	O	O
33. 앞일 예언	O	X	X	O	O	O	O
34. 결말부 자녀담 서술	△	X	X	△	O	O	O
35. 연작의 유(O)무(X)	X	X	X	X	X	O	O

이제 3장부터는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재자가인소설과 한국소설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에 내포되어 있는 당대 이데올로기, 작가 의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 배경 설정에 따른 당대 의식의 차이

1. 異界 설정의 유무와 역할

중국 재자가인소설에는 異界, 혹은 환상적이거나 초월적인 공간이 거의 설정되어 있지 않다. 환상적이거나 초월적인 모습이 간혹 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은 예언이나 점괘, 꿈 등으로 재자와 가인의 만남이 예언되는 정도일 뿐,⁶¹⁾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고 진행되며 해결되는 공간은 철저하게 현실 그 자체이다. 도사나 스님 등으로 구현되는 비범한 능력, 혹은 도술이나 환술을 가진 인물도 거의 등장하지 않고, 설혹 등장한다고 해도 그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

〈평산냉연〉과 〈호구전〉에 등장하는 승려들은 예언 능력조차 없는 일반적인 스님으로 작품의 조연에 불과하다. 〈평산냉연〉에 등장하는 보혜화상은 山府 근처에 사는 승려로 연백함과 평여형이 산대를 찾으러 가는 중에 山府와 연관이 있는 보혜화상의 절에 잠시 머물게 된다. 이 때의 인연 때문에 후에 조정에서 연백함과 평여형을 수배할 때 보혜화상은 그들의 얼굴을 안다는 이유로 조정에 붙잡혀 두 사람을 찾아다니던 중 그들을 발견하여 조정에 넘긴다.⁶²⁾ 이 정도가 보혜화상이 작품에 관여하는 정도이며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호구전〉에 등장하는 독수화상도 역시 평범한 스님으로 철생을 위기에 빠트리려고 하는 지현에게 부탁을 받고 철생을 배탈이 나게 하여 자신의 산사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 독수화상의 등장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보혜화상과 마찬가지로 그 후 독수화상의 행적이나 후일담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두 작품과는 달리 〈옥교리〉에서는 점을 잘 치는 채신선이라는 도사가 등장한다. 소우백은 여정 중에 채신선의 뛰어난 예언 능력을 우연히 알게 되고 자신의 앞날을 알아보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찾아 예언을 듣는다.

61) 최수경이 청대 재자가인소설을 모티프 별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점괘나 꿈 등으로 재자가인의 앞일에 대한 예시가 있’다는 모티프와 ‘득도하여 신선이 된다’는 모티프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티프가 다른 모티프들에 비해서 자주 등장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후자의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후술하겠지만 우리나라 소설에서 점괘, 꿈, 신선 등의 모티프가 대부분 등장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수경, 앞의 글, 123-131쪽 참조).

62) “보혜 왕, 쇼승이 상공을 좇는 거시 아니라 니부상셔 당노야 상소의 이위 상공이 산쇼져로 더브러 시를 지어 스스쁘디 이시니 풍화롤 상히온다 호야 성상이 칭히 사히호라 호시니 각인의 죄범은 다 이시디 홀로 이위 상공을 보디 못호야 지금 사히디 못호야더니 송상공이라 호리 닐오디 이 위 상공이 압둡의 서 글을 지어시니 쇼승이 안다 호야 공채로 호야곰 쇼승을 압녕호야 도쳐의 촌즈라 호니 이제 반년이 다났는디라 발이 다 터뎃더니 오늘날 요형이 만나 과라.” 〈평산냉연〉, 권지십.

채신선이 보고 닐오되 고이타 쏘 구괘나시니 상공은 무스일 위흠고 혼인을 위흠이 아니가 우빅 왈 선싱의 말이 과연 신명하다. 채신선 왈 쏘 기특흔 일이 있다 너의 낭회 발동흐니 흔번 드러 두 부인을 어드리로다 우빅이 소왈 두 처즈를 전후의 어들 법은 잇거니와 엇디 흔 번의 둘홀 어드리오. 만일 일가의 형데 동거흐느니 아니면 어렵도다. 채신선 왈 상괘는 건이오 하괘는 손이니 …(생략)…채신선이 흔번 순을 딛퍼보고 닐오되 고이하다 이 괘는 낭위부인이 다 금능 싸히 모다시니 오늘 산음 우 혈의 가 만나느니 이 반월이 나디 아니하야서 서르 보미 이실로라. 소싱 왈, 이 말은 맛기 어렵도다 쇼테의 어린 녀녀의 반드시 직모겨전흐니를 어더 보야흐로 의논코져 흐느니 엇디 스름 둘히 흔 고되 이셔 날을 다허드리오 채신선 왈, 이 괘 상이 ㄱ장 도흐니 낭부인이 다 결색이오 겹하야 상공 뜻 속의 사툼이로다. 우빅 왈, 내 산음의 가매 아는 사툼 하나히 업스니 늘을 인하야 구드리오 채신선 왈, 귀란 말은 만나랏 말이나 찻지 아니하야서 만날 되오 만날 제는 평평하여 보나 필경은 극히 부귀흔 집 이로라. 우빅 왈, 선생의 말이 일변 고디 들리리 아네라 엇디 내게 이런 도흔 일이 이시리오. 채신선 왈, 나는 다만 괘말로 니르니 마술제야 보야흐로 거저거지 아닌 줄을 알리라. 우빅 왈, 선싱이 계집 일흔 사툼 ㄱ르칠제 만날 사툼의 의복 안식을 다 니르더라 흐니 이제 내 만날 사툼의 형상도 능히 니를 소냐. 채신선이 쏘 손을 딛퍼 헤아리다가 닐오되 이리로 가면 병인 일오시에 흔 늘근 사툼을 만나 되 ㄱ장 청기고 괴히고 흰 보 오슬 넘어시리니 그 사툼이 쏘 텃하를 도라 사회를 구하나 엇디 못흐 엇느니 상공을 만나 문득 덩흐리라. 63)

위의 인용문은 채신선을 만난 소우백이 자신의 혼인에 대해 채신선에게 묻고 괘에 따라 가르침을 얻는 장면이다. 밑줄 친 부분이 채신선이 예언하는 부분인데, 후반부에 이르면 그의 예언이 모두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신선이 이르는 대로 길을 떠난 소우백은 백현을 만나고 금릉 땅으로 가 그 곳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백홍옥과 노몽리를 만나 한 번 혼인으로 두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이다. 물론 백홍옥과 노몽리가 소우백이 원하던 뛰어난 가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채신선과 소우백이 만나기 전에 이미 세 사람은 각자의 의지대로 인연을 맺었으므로 채신선의 등장이 세 사람의 인연을 맺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채신선은 뛰어난 점괘로 소우백이 백현을 만나게 하는 데 적극적인

63) 〈옥교리〉, 권지삼. 밑줄은 필자가 그음.

역할을 하며, 작품의 결말을 예언한다는 점에서는 〈평산냉연〉, 〈호구전〉에서의 승려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채신선처럼 도사, 혹은 기인이 나타나 인물들의 앞일을 예언하고 도움을 주거나, 異界를 설정하고, 도술이나 환술을 통해 작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습은 우리나라 소설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창선감의록〉에서 환상적인 모티브와 가장 많이 연결되는 인물은 남어사의 가족들이다. 남어사 가족은 유배지로 가던 도중 해적을 만나고, 남어사 부부는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놓인다. 이 때, 부부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객선공이라는 자에 의해 구출되고, 객선공은 액운이 지나갈 때까지 함께 지내자며 서촉에 있는 신령한 장소로 이들을 데리고 들어간다. 이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남채봉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다가 진제독의 집에 가라는 한 尼姑의 조언대로 그곳으로 가 오부인에게 구출받는데, 도움을 주는 인물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존재이다.⁶⁴⁾ 그 후 화진과 혼인한 남채봉은 조월향에 의해 독이 든 죽을 먹고 목숨을 잃지만, 관음의 현몽을 입은 청원 니고가 남채봉을 살려 액운이 다할 때까지 서촉으로 데리고 가 보호한다. 청원 니고 역시 신이한 존재로 남채봉이 어렸을 때 그녀를 보고 미래의 액운과 운명을 미리 알며, 모든 사건이 마무리 된 후 역시 환상적 공간인 서천서역국으로 돌아간다.

작품의 주인공인 화진에게도 환상적 장치는 개입한다. 유배지에 있던 화진에게 한 노인이 나타나 異界로 데려가 여러 가지 도술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부적까지 준다. 이때 배운 것들은 화진이 異界에서 나온 직후 출전한 전쟁에서 큰 도움이 된다. 또한 花府가 자꾸 사건에 휘말리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자 “빅화원 압히 천년 대목이 무고히 절노 말나 죽고 만유정아리 구미회 왕리흐며 슬피 울고 상서 스당에서 빅쥬의 곡성이 들니는”⁶⁵⁾ 등의 花府의 불행을 암시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환상성의 개입은 철저하게 선인들을 위협에서 구출해주는 장치로 사용된다. 악인들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선인들을 위협에 빠트릴 때 異界가 개입하여 그들을 구출, 보호하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64) 홀연 용피 고은 호 로피 죽장을 집고 다가 소저를 보고 대로를 가르쳐 왓, 이리로 이십리만 가면 파릉 쌍계촌에 진성관인이라 스람이 잇스니 그 집 너은 그더로 더브러 인연이 잇느니 거기가 의지 흐면 불구에 맞당이 구홀 스람이 잇스리라 호고 언홀에 간디 업거늘. 〈창선감의록〉, 267-268쪽. 그런데 진경환이 제시한 한문현토본 〈창선감의록〉(구활자본 고소설전집 33. 인천대학민족문화연구소 편, 1984)에 따르면 초월적 존재인 ‘湘君娘娘의 靈旨’에 따른 仙娥가 남채봉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진경환, 앞의 글, 142쪽)

65) 〈창선감의록〉, 311쪽.

윤리를 지킨 그들이 후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⁶⁶⁾

‘연화도량’에 살던 성진이 꿈에서 다른 삶을 살았다가 깨어나는 〈구운몽〉의 환몽 구조⁶⁷⁾는 이 작품의 가장 큰 틀이자 중심이다. 이 구조는 다른 작품에서 異界의 개입이 사건의 전개나 해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작품 전체의 주제와 사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매우 적극적으로 異界가 개입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양소유의 아버지 양처사는 양소유가 10살 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며 신선들과 함께 선계로 돌아간다. ‘성진’의 삶, ‘양소유’의 탄생과 회귀, 아버지 등이 모두 異界, 異人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꿈속 세계의 주된 서사인 양소유와 여러 여인들과의 결연과정에도 여러 환상적 장치와 인물들이 등장한다. 비록 정경패가 양소유를 속이기 위해 꾸민 것이지만 양소유와 가춘운의 만남은 귀신과의 만남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백룡과와의 만남은 꿈 속 이라고 설정하고 있으나 동해 용왕 딸과의 만남이며, 후에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것을 약속하여 그대로 이루고 있다. 또한 양소유는 전쟁 중에 꿈에서 남해 용왕을 비롯한 仙人들과 잔치를 벌이고, 그의 휘하 병사들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꿈을 꾸 후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러나 양소유는 이렇게 신이하고 환상적인 일들에 경험하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믿고 받아들여 독자들에게도 異界의 설정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고 있다.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의 세 번째 부인인 여소저는 소현성의 애정을 독차지하고자 다른 부인들을 내쫓으려 할 때 개용단, 회면단 등의 약을 사용하여 사건을 일으킨다. 소현성은 길에서 만난 도사에게 칠성검을 받는데, 도사는 그 칼이 곧 태어날 아이의 것이라고 예언하고, 칠성검은 그 후 태어난 소운성의 것이 된다. 그러나 《소현성록》에서 이 물건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비중있게 그려지는 환상적인 요소는 소운명과 8명의 부인들 사이의 인연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전생에 선계에서부터 인연이 있던 사람들로 그 때 벌어졌던 사건과 인연들이 현세로까지 이어져 새로운

66) 진경환도 〈창선감의록〉에서 나타나는 초월적 개입이 효의 준수나 실천에 있어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인물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효로 대표되는 유교적 지향이 도가·불교적 원조를 받고 있음으로써 효의 강조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벅하다는 고백이기도 하며, 이러한 비관론적 세계관과 어떻게든 극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적 세계 인식의 소산이 함께 드러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진경환, 앞의 글, 140-150쪽.

67) 박일용은 이러한 환몽구조가 꿈 속에 형상화 되어있는 비현실적인 이상세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귀공명을 누리던 양소유의 삶이 사실은 꿈이었다는 사실이 하층민의 해소될 수 없는 질곡을 반영한 낭만적 이상세계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작품 속에 그려진 낭만적 이상의 실현이 불가능한 당대의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191-196쪽.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시랑 운명은 동방금강 신선이라. 일즉 유람하여 봉늑산의 니르니 봉늑궁 선녀 흙
성의 용피 특뉴함을 보고 금강신이 유정시로써 더져 인연을 미즈나 봉늑부인이 그
얼굴을 밋고 덕을 일호를 미온하여 얼굴을 박식을 믿드라 님가 녀즈를 삼으니 이
넘시오. 이쇼제는 남히 보타 용네라. 관음대스를 뵈셔더니 동방선이 남희왕을 보고
그 녀즈를 구하니 봉왕이 그 쫄이나 막음으로 못하여 관음과 알외니 관음대식 그
유정함을 듯고 즉시 용녀를 일백스십일 말미를 주시니 동방선으로 혼인하여더니 동
희 권낭선이 동방선을 흠모하여 미양 스통코져 하니 봉네 분하여 일장 난타하여 죽
이니 관음이 즉시 스로서고 봉녀의 심흔 투기를 다스리고져 하더니 동방선이 상데
과 득죄하여 진간의 귀향 가미 봉늑 흥년이 조츠 가고 봉네 스스로 귀향 가 인연 미
즈를 원하니 권낭이 쏘 관음대스의 명으로 진간의 가 동방선으로 인연을 일우려 월
하궁 노선의게 청홀시 봉네 묻져 가 월노를 보고 진간의 나가 장부의 웃듬부인이
되믈 청하니 월녀 닐오디 ‘범식 츠레가 잇시니 흥년으로 동방선의 정실을 삼고 봉녀
로 둘직을 삼고 권낭이 제 삼의 가리라’ 하니 권낭이 발악 왈 ‘내 대스 칙지를 바다
시니 당당이 봉녀의 우히 되리라’ 하니 봉네 문득 달녀어 왈 ‘내 비록 진의갈당간을
어더시나 십년을 거절하여 너의 한을 풀게 도라 보너리라’ 하니 권낭이 벅야호로 물
너간 후 금강선녀 스인이 일시의 니르러 고하디 ‘아등이 정군 부중스 환시 네라 평
일 동방선의 풍치를 스랑하여 베기와 돛 밧들기를 원하디 선관이 허치 아니시니 상
상 슬허하더니 진세의 나아가 인연을 미즈지이다’ 원하니 일노써 스인을 불근 실을
미야 동방선의게 인연하니 이곳 민시 부시 뇨시 조시라. 다 정흔 연분이 금세의 지
합하고 전세 원쉬 후세 보복하미라. 사름이 덕을 닷그면 원한이 어릅스 듯하고 복을
밧느니 권낭이 대스 칙지를 승세하여 정가 귀네 되야 소시랑의 삼위 부인이 되나
니부인과 실기흔 한을 제기치 말고 화동하면 니시의 복이 정시의게 도라가고 니시
전세 투기로 살인흔 죄파를 님을 거시어늘 정시 유협흔 죄를 베퍼 혼긋 니시만 희
홀 썬 아냐 망녕도이 규괴랑을 성가의 즈식이라 하여 소시랑으로 하여금 의심하여
부즈터눈을 산란케 하니 우호로 이십팔슈 규성을 노하고 아리로 남희봉이 그 쫄을
희하려 함을 노하여 다시 관음대스와 송스하니 대식 쏘흔 권낭의 작난이 호디함을
인하여 출부를 믿달고 전두의 유리하여 상하 체면을 일은 죄를 불히시니이다. 니부
인이 귀즈를 두고 복을 누리시나 대식 유리병 직혈 사름이 업스를 근심하시고 봉왕
이 보고져 하니 텃명이 적으디 소승상이 복두성과 청하여 삼십오세를 슬오시리니
역시 텃명이오 쉬라. 임의로 못하리이다.⁶⁸⁾

이들 8명, 특히 위의 3부인인 임소저, 이소저, 정소저의 전생에서의 인연과 원한은 현세에서도 이어져, 현세에서 정소저가 이소저에게 행했던 악행과 이소저가 겪은 액운도 전생의 업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⁶⁹⁾ 그리고 소운명과 혼인도 전생에서 인연을 맺은 순서대로 다시 맺어지고 있어 천정연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생의 업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승이 등장한다. 여승은 처음에 蘇府에 찾아와 각 부인들의 관상을 보고, 특히 이소저가 단명할 것이니 운명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후에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여승이 다시 찾아와 네 사람의 전생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데, 여승의 정체는 관음인 것으로 밝혀진다.⁷⁰⁾

이렇게 주요 인물들이 천상계, 異界와의 연결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⁷¹⁾ 환상적이고 허황한 것들을 부정하고 물리치려 하는 모습도 작중에 함께 드러난다. 소현성은 여소저가 사용한 개용단 등의 신비한 약을 직접 없애기도 하고, 요괴를 물리치기도 한다. 또한 여승이 찾아와 미래를 점치고, 허황된 이야기를 한 것을 알고 아들인 운성과 함께 여승을 불러들인 일을 책망한다. 이 사건은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양부인을 비롯한 여러 부인들과 유학자로서 불교를 사악하고 허황한 것으로 보는 남성들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소현성은 지나가던 도사를 구하고 칠성검을 받아 운성에게 검을 넘기고, 이소저가 단명할 위기라는 것을 알고는 하늘에 빌어 이소저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등의 신비한 능력을 발휘한다. 또한 아들이 요망한 것이라 하여 절을 파괴하고 부처를 욕보이는 행동

68) 《소현성록》, 권지십구.

69) 박영희는 이들의 갈등을 운명론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고 가정내 처처간의 문제를 현실적인 맥락에서 풀지 않고 초현실계에 돌려 버림으로써 인간의 악한 품성의 문제라고 몰아붙이는 권선징악적 해결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소저는 천상계에서도 운명으로 환생하는 동방선을 사모하여 사통하려고 했었고, 적강할 때에도 용녀보다 우선 동방선과 연을 맺기를 원하는 등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운명론적인 관계는 권선징악적 해결의 약화를 가져온 다기 보다는 전생에서부터 부덕하고 악한 모습을 가진 정소저의 모습을 보여주어 오히려 권선징악의 강화를 불러일으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박영희(1994), 앞의 글, 참조.)

70) “너승이 웃고 왈, ‘나는 디슈플 속의 있는 너승이라.’ 하니 태부인이 문득 상의 느려 샤례 왈, ‘관음대시 회룡호시를 모로오니 황괴호이다.’ 너승이 아라보물 보고 일진 청풍이 니러나며 몸을 감초고 일봉서를 느리치니” 《소현성록》, 권지십구.

71) 소운명에게 전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소현성, 소운성, 소수주와 같이 극한 영화를 누리는 인물들에게는 반드시 태몽이 나타난다.

을 하여 큰 화를 입게 되자 스스로 나서서 그것을 잠재우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씨양웅양린기〉도 《소현성록》과 비슷한 양상으로 異界의 개입이 설정되어 있다. 형아와 월청도사는 여러 가지 신비한 약과 도술을 사용하여 주소저를 납치하고 형아 자신이 주소저로 변하여 현씨 집안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 때문에 주소저는 죽을 위기에 봉착하나 일광도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액운이 없어질 때까지 몸을 피하면서 도술과 의술을 배운다. 그리고 도술을 쓰는 신비호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현수문 형제를 도와 일광대사에게 배운 도술을 사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다.⁷²⁾ 일광대사의 예지력과 신비한 능력, 그의 가르침은 주소저를 통해서 작품 내내 玄府의 위기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주시의 석일 일광대사의 서중스어와 낭개환약을 드리니...(중략)...자종 온 텃스는 가연이 먹으며 하디 문져 온 텃스는 문득 스양호고 아니 먹으려호거늘 상이 노호사이의 극시로 위력으로 입의 브으니 경작스이의 금관도복호 현턴시 변호여 호 노승의 되니 상이 막불츠악호시고 승상이 옥계의 느려 고두 왈, 작년 음녀 형오의 가하신 요도 월청법스의 얼굴이로소이다...(중략)...문득 월청이 급히 몸을 소소와 궁주의 뛰여 오르니 상과 제복관이 대로호더니 서남다히로써 호 세 칙운이 일며 썩 가는 월청을 결박하여 나리치니 그 꼬뒤의호 줄 붉은 부작이 붓터더라. ⁷³⁾

월청이 가짜 현경문으로 변하여 정세를 혼란하게 하자, 주소저는 일전에 일광도사에게 받은 편지와 약을 황제에게 주어 眞假를 판가름하게 하며, 일광대사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도술은 황제 앞에서 도망치려는 월청을 잡아 내리쳐 사건을 마무리 짓도록 한다. 그리고 경문이 병으로 죽었을 때 일광도사의 편지를 생각해낸 주소저는 하늘에 빌라는 일광도사의 가르침과 함께 환약을 받아 그를 이용하여 경문을 살려낸다.⁷⁴⁾ 경문은 잠시 죽어있는 동안 선계에 가서 자신과 주소

72) “운유즈(주소저) 굴오디 병가의 승되는 즈고로 이시니 저 무리 조고만 요술을 두릴 비 아니라 비인이 스승에게 잠간 비혼거시 잇더니 가히 시험호여 보리이다 호고 스미 가온디로써 호 축 부족을 니니 다 정심축요(正心逐妖) 네 즈를 뗐더라. 〈현씨양웅쌍린기〉, 권지오.

73) 〈현씨양웅쌍린기〉, 권지구.

74) “주시 홀연 경동하여 심각호디 석년의 일광대시 두 봉 서신을 기첫거늘 이 썩 보지 아니코 잇지 죽기를 괴필하리오 인하여 몸을 썩혀 느오니...(중략)... 제 침소의 도라와 협중의 서봉을 내여 썩혀보니 일폭 화전의 각별말이 업서 다 만 주공이 종모의 가 무왕에게 비든 거동을 그리고 또 두 낫 환약을 빼 너헛는지라. 〈현씨양웅쌍린기〉, 권지팔.

저가 전생에 천상진군과 월궁선녀였으며 주소저가 자신의 환생을 위해 지성을 드리고 있음을 알게 되고 곧 환생한다.

이 작품에서는 도술이나 환생과 같은 신이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작중 인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소현성록》에서처럼 신비한 것들을 배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환상성의 개입이 현경문과 주소저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른 한 축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현수문과 윤소저의 경우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계교와 남성으로서의 권력을 사용하는 데 따른 사건이 일어나는 반면, 현경문과 주소저에게는 신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천계와도 연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경문과 주소저의 갈등이 단순한 부부갈등이 아니라 아내로서의 도리와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충돌하여 해결되기 힘든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둘 다 옳은 것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이므로 현실 논리로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갈등하는 것은 두 사람이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의 악연때문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⁷⁵⁾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소설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異界, 異人들의 개입이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선인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주요 인물들의 비범함을 보여주거나 할 때 이러한 모티프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재자가인소설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그리 첨예하지 않을 뿐더러, 계교나 모략이 발생하여도 현실 사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소설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주인공이 죽음에 직면하거나,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일 경우가 많으며, 異界의 개입 역시 대개 이 때 발생한다. 즉 異界의 개입은 현실 논리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일 때, 특히 선인들이 악인에게 패할 수밖에 없을 때나 옳은 논리로 대립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기 힘든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관적인 상황이라도 윤리, 도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면 결국은 하늘의 도움을 받

75) 이지하는 이 작품에서 초월적인 힘은 현경문과 주소저의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계기로서 작용할 뿐 운명론적인 입장에서 그러하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의 초월적인 요소들은 현실을 뛰어넘어 그 위에서 삶을 관장하는 질서로서가 아니라 현실의 삶을 원조하는 부차적인 위치, 즉 개인적 문제의 해결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지하, 「현씨양옹쌍린기연작연구」, 서울대석사논문, 1992 참조.

아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당시의 사고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중국에는 오래전부터 귀신과 신비한 일들을 다룬 소설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신비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 많았기에 굳이 재자가인소설에서 이를 다룰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노신에 따르면 육조시대에 이미 귀신과 신비한 이야기에 관한 소설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사람이나 귀신이 모두 실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이한 일을 서술하는 것과 인간 세계의 일상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과 허망함을 구별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⁷⁶⁾ 재자가인소설이 성행하던 시기와 더불어 神魔소설⁷⁷⁾이 유행하였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명나라 초기의 《평요전》을 선두로 하여, 〈서유기〉, 〈봉신전〉, 〈삼보태감서양기〉 등이 있다. 이 작품들에는 귀신, 요괴 등이 등장하여 싸움을 하거나, 법술을 사용하여 외국을 쳐부수는 등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 즉, 명대 초기부터 청대 초기까지 중국의 소설은 異界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한 것과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한 소설로 양분화되어 주류를 이루었기에 구태여 재자가인소설에서까지 異界의 일을 다루지 않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의 소설이 재자가인소설과 신마소설로 나뉘어져 본격적으로 각자의 영역을 구축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소설은 이러한 요소들이 굳이 나뉘지 않고 혼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시대에 이미 우리나라에 유입된 《山海經》은 중국 고대신화이며, 중국의 신마소설과 재자가인소설은 동시대에 유행하던 것인 바, 우리나라에도 함께 유입된 것으로 여겨진다.⁷⁸⁾ 그리고 이렇게 유입된 중국의 여러 소설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소설이 창작될 때 한 작품에서 여러 유형의 중국 소설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76) 노신, 앞의 책, 96쪽.

77) 神魔소설이라는 용어는 노신이 붙인 것이다. 노신은 명나라 때 “역대로 내려온 삼교, 즉 유교, 불교, 도교의 다툼이 해결되지 않은 채 서로를 수용하여, ‘근원이 같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義利·邪正·善惡·是非·眞妄 등의 여러 가지 대립적인 개념들이 모두 혼합된 데다 다시 이것을 분석하여 二元으로 통합하였다. 비록 전문적인 명칭은 없지만 神魔라고 하면 대개 개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의 책, 354쪽.

78) 민관동, 앞의 글, 참고.

2. 서두에 나타난 가족 구성원의 비교

모든 소설의 서두에는 기본적인 시공간적 배경, 작중 인물에 대한 소개 등이 제시되어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분위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우리 소설에서는 서두에 서술되는 주인공의 출생이나 가정 상황 등이 작품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재자가인소설과 비교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 여겨진다. 다음은 〈평산냉연〉의 서두이다.

황명 가정 년간의 턴지 유도호시고 스희 승평호고 빅관이 튕냥호고 만민이 즐겨호니 이쎄에 유연의 도읍호야 턴하를 님호야 스시 도화호고 희풍등호고 빅물이 유여호디라. 당안 성등에 아홉문이며 일빅 길히며 여섯거리며 세 저재며 설흔 여섯화류골과 님흔 둘 풍뉴호는다. 락이 이시니 의관이 복주호고 거매 횡던호고 사름마다 격양호야 노래호과 곳곳이 싱쇼로 즐기니 진실로 상고 태평적 기상이 잇더라. 홀는 턴지 어좌호샤 일도회 바드실 시 문무복관이 만세를 브르고 반렬의 나아가 츠레로 셋더니 던두관이 소리호야 님오디 일이 잇는 재 나아와 옛즈오라 소리 굿디 아니호야서 반렬 가온대 혼 관원이 청포 님고 홀 잡고 단계에 나아와 꾸러 옛즈오디 흙턴갑 관원 량근이 말이 이시니 옛즈오려 호느이다.⁷⁹⁾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라가 태평성대임을 서술한 후 흙턴관 관원이 나와 곧 인재가 나타날 것임을 알려주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고무하여 황제가 재주 있는 자를 구하기위해 신하들을 불러모아 시를 짓게 하는데, 이 때에서야 비로소 주인공 중 한 명인 산대에 대해 언급된다. 그러나 그것도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 아니라 산현인이 자신의 딸이 재주가 있다고 하며 시를 보여주고, 이를 본 황제가 산대의 재주를 칭찬하며 입궐하기를 청한다. 이것이 한 회 분량인데, 그 때까지 주인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커녕 주인공 가문이나 아버지 산현인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호구전〉의 서두에는 주인공 철중옥에 대한 소개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

명나라 복직에 덕명부의 일기수지 잇스니 성은 철이요, 명은 중옥이요, 자는 정칭이니 인물이 준슈호야 일기 미인 갓호나 성품이 싱철갓고 도 여력이 잇서 불여의(不如意)현 일이 잇스면 참지 못호여 기운을 불이고 또 그 언쇼가 드물어 혹시 부귀현 봉

79) 〈평산냉연〉, 권지일.

우를 맞다면 오만하고 냉담하야 얼굴에 설이 끼친듯하고 만일 빈교에 지기를 만나면 술 마시고 글의 논하야 종일 질기고 스름의 급현 일 잇스믈 보면 현우와 귀천을 같이지 안코 기연이 주급하며 만일 아당하고 첩미하는 스름이 은혜를 요구하는 자 잇스면 도로혀 본체 아니하니 스름들이 감격히 녀기고 무고히 친근치 못하더라. 그 부친은 철영이니 진스 출신으로 위인이 충직하야 벼살이 어스에 거하고 그 모친 석시 어스를 짜라 경스로 갈 식 아즈의 위인이 낙낙하여 합의허니 적고 일을 저즐너 허물을 부를가 염녀하여 가증의 머물너 잇스니.⁸⁰⁾

먼저 철중옥에 대해 외모와 특히 성격을 자세하게 이야기 하고, 그 후에 부모인 철영과 석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철영의 경우는 진사 벼슬 출신의 충직한 사람이라는 말만 나와 있고, 석씨는 이름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라, 부모에 대한 소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인용문에 이어진 내용은 철생이 혼인하지 않는 이유가 소개되고 바로 사건이 전개된다. ⁸¹⁾

이와 비슷한 서두를 보이는 것이 한국소설인 〈구운몽〉이다. 〈구운몽〉의 서두에는 가상공간인 형산 연화봉의 소개가 매우 길게 서술 된 후 곧바로 성진이 육관 대사의 심부름 때문에 용궁으로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성진에 대해서는 “일흠은 성진이니 얼굴이 빅설궤고 정신이 추슈궤고 나히 이십세에 삼장 경문을 통티 못홀거시업고 총명과 디혜 똥똥의 초출하니 대시 크게 능히 녀여 상해연도홀 그릇으로 기다히더라”⁸²⁾라고만 되어 있어 성진의 부모, 집안, 성장 배경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실제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 배경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평산냉연〉과 유사하고, 주인공인 성진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이나 가계, 가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바로 그의 빼어남을 서술하고 있는 점은 〈호구전〉의 서두와 유사하다. 〈구운몽〉 환몽구조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속 이야기인 양소유의 이야기의 서두를 보아도, 양소유가 태어나는 장면에서 바로 시작할 뿐, 양씨 집안이나 부모에 대한 소개는 없다. 다만 양소유가 10살 때 양처사가 자신은 속세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후 학을 타고 산골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양처사도 비범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가문이나 부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서두의 모습은 〈호

80) 〈호구전〉, 권지일.

81) 여주인공인 수병심의 경우는 아버지 수거일의 성품과 벼슬,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서술되어 있고 수병심이 소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철중옥보다 우리 소설에 가깝게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82) 〈구운몽〉, 권지일.

구전》, 〈평산냉연〉과 매우 유사하다.

이에 비해 〈옥교리〉의 서두는 위에 제시한 소설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정통년간의 혼 갑과 태상 정경 벼슬하던 사름이 이시니 성은 빅이오 일홈은 현이오
즈는 태현이니 금능 사름이라 왕진이 농권흔들 인하야 관을 버서 걸고 고향으로 도
라오니라. 빅태상이 본디 우흐로 형이 업고 아래로 아이 업서 다만 혼 누이 이시되
산동 노부스의 체되여 멀리 갖고 다만 척신이 홀로 잇는디라 빅공의 위인이 탐정하
여 욕심이 적고 명니를 탐타 아니하야 다만 시쥬로써 스스로 즐기더니...(중략)...빅
공이 벼슬이 높고 그름 열며 직혹과 성망이 크게 유명하되 다만 나히 스십이 다니도
록 즈식이 업스를 혼하야 일즙 여러 회첩을 두니 궤의홀 손 삼오년식이나 머뜨려두
되 좃시 즈식이 업다가 다른 스람의게 서방마쳐 보낸 즉 일년이 넘디 못하야서 문득
저마다 아들을 나케놀 빅공이 탄식하되 텃명이이로다 하고 그후부터 드되여 다시
회첩을 구티 아니 하니라. 부인 오시 각처로 신령씩 구하며 부테씩 비려 쇼향하야
원을 일오려 하더니 마은 네회 니르러 보야흐로 혼팔을 나흐니 이튿날 밤의 빅공의
꿈의 혼 신인이 아름다운 옥 혼덩이를 주되 빗치 불거 희빛긋거늘 인하야 일홈을 홍
옥이라 지어 부르니라.

먼저 아버지인 백현에 대한 설명과 가족 구성원, 그의 행적에 대해 이야기 한 후
아이가 없어서 첩을 구하나 자식을 보는 데 실패한 후 정실인 오씨가 신령에게 빌
어 자식을 낳았으며, 그에 대한 태몽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⁸³⁾ 〈평산냉연〉이
나 〈호구전〉에 비하면 가족, 특히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으
며, 늙도록 자식이 없어 한탄하던 중 기자치성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다른 재자
가인소설과 뚜렷하게 구별되지만 한국소설과는 유사하게 진행된다. 이를 더욱 구체
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소현성록》의 서두이다.

화설 변경 남문밖 스십년의 혼 피히 이시니, 호왈 즈운산이요, 쥬회 삼빅니니 산
형이 팔장 켜진 듯하고, 폭뢰 전후로 나눈 곳이 칠십여처라. ...(중략)... 성은 소오
명은 담이라. 교목세가오 팔빅년 구족이러라. 그 조상이 한당 이덕을 섬겨 덕되로
명문지상이러니, 오계적 텃히 대란하니 소담이 시절을 피하야 이곳의 은거하니, 부

83) 〈옥교리〉, 권지일. 약간 뒤에 등장하는 남주인공인 소우백에 대한 소개도 대체로 백홍옥과 비슷하
여 소동파의 자손이라는 가문의 소개와 가족의 여부, 소우백의 뛰어난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백홍옥에 비하면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함을 알 수 있다.

인 양시는 참정 양문광의 장녀라. …(중략 : 소처사 부부에 대한 소개)…처식 팔되도록 일신이 경경하여 삼십의 나르되 일점 혈육이 업스니, 부인이 깃히 녀녀하여, 대장군 석수신의 서녀 석파와 낭인의 딸 니파를 어더 장부를 권하니 처식 스양치 아니코 거두되, 성되 엄숙하니 이네 쏘흔 도심하여 처스부부 섬기미 노주 곳더라. 수삼년 지나되 異人이 잉터 돈연하니 처식 툇 왈, 이는 나의 팔지라 하더니, 홀연 부인이 잉터하니 처식 대희하고, 이네 쏘흔 깃거 싱즈흔를 축하더니, 불행이 쏘을 나하니 처식 비록 아연하나 처음으로 유치를 두니 스랑하미 지극하더니, 부인이 다시 잉터하여 임신하되, 처식 향을 띄고 축원하야 싱즈흔를 브라더니, 쏘 문득 싱녀하니 처식 향노를 박치고 탄식 왈, 십스년을 기다려 두 쏘을 나오니 후스를 뉘게 전하리오. 언필의 누수를 느리오니, 좌위 다 척연하더라. 처식 이후는 바라미 망단하여 다시 일긋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혼 쏘을 어드니, …(중략 : 태몽 서술)…처식 깃거 하더니, 선인이 크게 쇼리하거늘 놀라 썩니 침상일몽이라. 처식 고이히 녀여 다향의 드러가 부인드려 몽스를 낳으니, 부인의 몽식 일반이라. 부뷔 서로 깃거하더니 과연 부인이 잉터하되 처식 대희과망이라니, …(중략 : 소처사 사망)…십스삭만의 구월 십오일의 순산 싱즈하니, 이썩 양공이 의원을 다리고 녀의 순산하기를 기다리더니, 임의 싱즈흔를 드르미 깃브를 니긋지 못하여 밧비 드러와 보니, 부인은 혼미하여 인스를 모르고 산측의 괴이흔 향너 웅비하니, 공이 경아하여 밧비 으히를 보니 일척 빅옥이라. 완전흔 용피 산천슈괴를 썩여시니 양공이 깃거 처스를 싱각하고 슬허하니, 가중 상히 늦기기를 마지 아니하더라. 이의 약을 나와 부인을 먹이미 잠간 인스를 출혀 남이를 알고, 망부를 싱각하고 일신이 녹는듯 슬허흔를 마지아니하니, 양공이 직삼 위로하여 여러 날이 되되, 잠간 진정하고 일삭 후 향츠하니, 가중이 부인의 향츠흔과 공즈의 이러툇 괴이흔를 서로 치하하고 슬픈 줌 즐기더니, 임의 삼년을 맞치니 부인이 더욱 슬허하더라. 이의 으즈의 명을 경이라 하야, 교양하미 만금의 지너더라. 장녀 월영과 츀녀 교령을 어진 형실을 힘 그르치며, 가형이 숙연하되 냇사름의 지지 아니더라.⁸⁴⁾

《소현성록》의 서두에는 우선 소처사와 양부인이 거처하는 자운산 장현동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교목제가요 8백년 구족 집안인 소담과 양참정의 딸 양씨는 매우 뛰어난 군자며 숙녀이기에 그 몸가짐이 매우 엄정하였다는 두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오래도록 자식이 없어 첩을 들이지만 두 명의 첩에게서는 자식을 얻지 못하던 중 정실인 양부인에게서 소월영과 소교영,

84) 《소현성록》, 권지일.

소현성이 태어난다. 이렇게 기자치성한 후 정실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는 점은 《소현성록》과 〈옥교리〉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만 《소현성록》에서 두 누이가 태어난 후에 주인공인 소현성이 유복자로 태어난다는 점이 〈옥교리〉와 약간 다를 뿐이다. 그러나 주인공의 가문이나 가장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호구전〉, 〈구운몽〉이나 아예 시대적 배경만을 서술하고 있는 〈평산냉연〉에 비해 〈옥교리〉와 《소현성록》이 유사한 서두를 보이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창선감의록〉에서는 서두에 본격적인 이야기가 서술되기 전에 작품을 소개하는 작가의 말이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대범 인성의 무론 남녀 귀천하고 반다시 충효로 근본을 삼을 거시니 우익 돈목지심과 낙선흥덕지지가 다 일노 나는이라. 즈손이 창성하고 부귀영화하는 보복이 유익함이 먼지라. 시고로 충효의 공업을 세워 맛당이 흥흥비라. 그러나 후후 늑의 틱흔 곳이라도 반다시 평안하고 그러치아니흔즉 비록 평안흔 곳이라. 도위 틱흔늑니 가히 스람의 선악을 경계하리로다.⁸⁵⁾

그 후에 花府에 대한 소개가 제시되고 있는 데 花家の 먼 조상인 화운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하여 집안의 가장인 화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고 있다.

각설, 덕명초의 장군 화운이 틱평부의셔 죽을 썩에 그 처 고씨 운을 좇춘 절스하고 그 어린 으희를 물 그온디 실슈하야 칠일을 고코이 울고 죽지 아니하니 이는 하늘이 구버 살피시미라. 황운(화운의 誤記)의 칠세손 옥이 세종황데 가정 십삼년의 길양을 처 파흔 공으로써 여양후를 봉하미 공의 위인이 곳세소 업하고 청념정직하니 턱지 그장 스랑하시더라. 그 후의 벼술을 도도와 병부상셔 도찰원 도어스 협서군 무스를 초독게 하시니라. 츠시 공의 서울 집이 황성 만세교 남편의 잇스니 원비 심시는 공부시랑 심확의 녀요. 츠비 조씨는 틱스 조관의 손녀요 삼비 정씨는 리부상셔 정웅의 녀라 심씨는 즈식이 잇스나 능히 말을 잘하고 녀심이 식험하야 그 아들 춘은 품질이 교오하미 공이 심히 스랑지 아니하고 정부인은 그장 용우하나 착흔 덕이 잇는지라. 조부인이 불행하야 조스하미 슬하의 다만 일기 녀이 잇는지라. 가죽이 화압지 못하야 고고흔 무모아를 혹양홀지 업는지라. 조부인이 님종시에 녀으로써 정부인에게 부탁하얏스니 정부인이 극진 보호하야 교훈하믈 친싱과 다르미 업스니 이러

85) 〈창선감의록〉, 247쪽.

므로 공이 2장 중되 하더라. 가정 십오년 춘삼월에 공의 꿈에 큰 기린이 품속으로 드러오더니 정부인이 잉태하야 잉남하미 골격이 뼈혀나고 우름소리 웅장하고 맑은 지라. 공이 크게 기특이 녀이고 스랑하더니 츠시에 맞누의는 티상경 성담의 처되얏더니 일즉 과거하야 공과 혼 집에 거하미 위인이 강명정직하야 치가하기를 법되 잇는지라. 공이 섬기물 엄형긔치 하야 가스를 일일이 총찰케 하고 그 9들 준이 직되 기특하미 공이 전장하야 공부를 브즈런이 권장하야 비호케 하더니.⁸⁶⁾

그 후 화옥의 3명의 부인들인 심부인, 조부인, 정부인에 대해 각각 집안 내력과 부친에 대한 소개는 물론 조부의 벼슬도 언급하고 있으며, 각 부인들의 성품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각 부인들이 낳은 아이들인 화춘, 화진, 태강의 탄생과 성품도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화옥의 누이인 정부인과 그의 아들 성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이들이 花府에서 살게 된 경위까지 설명하고 있어 가문과 그 구성원을 소개하는 서두가 매우 길게 서술되고 있다.

대송인종시절의 리부상서 현택지는 룡두각태학스참지정스녕릉후 현후기의 지라. 사름 되오미 인후정직하여 일세 기남지라. 부인 장시는 리부상서 장구의 네니 스택이 순직하여 순순군즈하고 효봉구고하여 례의숙숙하며 겹하여 슬하의 량즈를 두어시니 샤가옥슈요 하가금옥이라. 장즈 슈문은 구세오 츠즈 경문은 팔세라.⁸⁷⁾

위 인용문은 〈현씨양옹쌍린기〉의 서두이다. 비록 서두의 길이가 《소현성록》이나 〈창선감의록〉 보다는 짧게 제시되어 있지만 玄府에 대한 소개와 아버지인 현택지에 대한 소개 이후 바로 두 아들인 현수문, 경문 형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점은 위의 두 작품과 매우 유사하다. 인용문의 뒷 부분은 주인공인 현씨 형제가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오르는 장면이 나와있어 이들의 뛰어난 재주를 보여주는 한편, 현씨 형제와 혼인한 하소저와 주소저에 대해서도 현씨 형제와 비슷한 비중으로 부모와 가문, 인품 외모 등을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재자가인소설이나 〈구운몽〉의 서두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재자가인소설이나 17세기 한국소설에서 가문보다는 개인을 강조하고 있음은 서두에 나타난 가족 관계를 보면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재자가인소설에서는 부모

86) 〈창선감의록〉, 247-248쪽.

87) 〈현씨양옹쌍린기〉, 권지일.

의 존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대개 부모 둘 다, 혹은 한 명이 없거나 있어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음이 바로 그것이다. 〈옥교리〉의 소우백, 〈평산냉연〉의 평여형은 부모가 모두 없고, 〈옥교리〉의 백홍옥과 〈평산냉연〉의 냉강설, 〈호구전〉의 수빙심은 어머니가 없으며, 〈옥교리〉의 노몽리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또한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미미하여 주인공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구전〉의 수빙심, 〈평산냉연〉의 연백함, 〈옥교리〉의 노몽리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재자가인들의 부모들도 비록 작품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으나 결국 자신의 의견보다는 자녀들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부모로서의 존재가 비교적 희미함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소설이 〈구운몽〉으로 이 작품에서는 예서는 유일하게 정경패만이 부모가 모두 생존하고 있다. 양소유와 난양공주는 아버지가 없고, 백능파의 어머니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나머지 4명의 여인들은 부모가 없거나 언급되어 있지 않다.

주인공들에게 부모가 없는 점, 특히 아버지가 없다는 설정은 작품의 진행과 더불어 그 안에 내포된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소설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집안에서 중심을 잡는 인물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중국 재자가인소설에서의 아버지는 우리 소설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옥교리〉에서의 소우백, 〈평산냉연〉의 평여형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며, 연백함은 아버지가 있으며 그 존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소설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는 바 〈구운몽〉의 양소유의 아버지도 선계로 올라가 양소유가 애정을 발할 시점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였다. 이런 경우 남성들은 매우 자유롭게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아버지 대신 재제를 가하는 인물도 없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나 가문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어긋난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할만한 인물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위에 열거했던 남성 인물들은 자유롭게 개인의 애정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것이다.⁸⁸⁾ 〈호구전〉의 철중옥의 경우는 아버

88) 〈구운몽〉에서 애정을 적극적으로 발하는 인물인 가춘운, 적경홍, 계섬월, 심요연, 진채봉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고, 〈현씨양옹쌍린기〉의 육취옥은 부모가 없어 외삼촌인 주명기에게 의탁했으며, 〈창선감의록〉의 조월향도 부모가 없었다. 여성 인물들도 적극적으로 애정을 발하는 인물의 경우 아버지가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인물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도 된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 윤소저가 현수문에게 겁탈 당할 때는 부모 없이 설구에게 의탁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소현성록》의 이옥주도 부모가 없었으며, 교영이 사통하는 시점도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던 때였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지 철영에 대한 존재가 드러나 있고, 위의 소설에 비해 작품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철영의 모습은 우리소설의 아버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우리소설인 〈창선감의록〉에서 이미 아버지의 부재가 가져오는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심씨와 화춘이 화진과 태강소저를 못마땅해하는 것이 표면화 된 시기는 화옥의 사망 이후이다. 그러나 이 때에도 고모인 성부인이 존재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화춘 모자는 화진 남매를 괴롭히다가도 성부인에 의해 저지당하고 “성부인을 기탄없이 감히 악심을 발되지 못함”고 있다.⁸⁹⁾ 그러다 과거에 급제한 아들을 따라 성부인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순간부터 화춘 모자는 화진 남매와 화진의 두 아내를 박대한다. 그리고 화춘은 자신이 마음에 두고 정을 통해왔던 여인 조월향을 맞아들이고 임소저를 내쫓은 후 조월향을 정실로 올려 바야흐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된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집안을 다스리는 아버지, 혹은 그 아버지를 대신할만한 어른이 사라진 후에 일어난 것으로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심각함,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⁹⁰⁾

역시 아버지가 없으나 재자가인소설이나 〈구운몽〉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소설이 《소현성록》이다. 가장인 소처사가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유복자로 태어나는 소현성도 아버지의 부재를 겪는다. 그러나 아버지만큼 엄하게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어머니 양부인이 존재하기에 蘇府는 花府와 같은 위기를 겪지 않는다. 양부인은 교영이 외간남자와 사통한 것을 알게 되자 딸에게 약을 내려 죽게 하는 한편, 소현성이 창기와 어울리자 그를 불러 크게 꾸짖고 엄하게 단속한다. 이렇게 엄한 어머니상은 다른 소설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거니와 집안을 단속하는 양부인의 모습은 어머니이기 보다는 아버지에 더 가깝다. 그러나 소현성이 가장이 되어 家權을 행세하게 되자 양부인은 일반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애롭고 인자한 면을

89) 양민정은 花府를 다스리는 성부인이 “친정 가문에서의 가장 역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별세한 후 자신의 가문에서의 가장 역할까지도 잘 수행해내는 적극적 여성 가장”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화옥이 죽은 후 花府를 다스리고, 아들이 태수로 부임해 가는데 동행하기를 머뭇거리는 모습이나 남편이 죽은 후 가문 상하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부인의 행동을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여성을 탈피한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양민정, 「초기 가문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가문의식 - 〈창선감의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2집, 2002. 52쪽.

90) 〈사씨남정기〉에서도 아버지인 유현이 일찍 죽은 뒤 고모인 유부인이 집안을 이끌어 가던 중 유부인이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 사씨가 폐출당하고 교씨가 정실에 오르는 사건이 발생한다.

많이 보여주고, 손자들이 엄격한 소현성에게 벌을 받을 때 이를 감해주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양부인의 모습은 한 가문에서 가장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충분히 집안을 다스릴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성장한 후 집안의 모든 권한을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넘기는 모습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가문 구조를 엿볼 수 있다.

천성도 그러했거니와 엄한 양부인의 밑에서 교육받은 소현성은 가권을 이어받은 후 매우 엄한 아버지가 된다. 자기 멋대로 애정을 발하는 소운성과 소운명에게 크게 벌을 내리고, 아들들이 창기를 불러 놀자 이에 대해 엄하게 문책하여, 내치기까지 한다. 아들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부인들에게도 엄격하여 철저하게 각자의 지위에 따라 부인들을 대한다. 또한 화부인이 집안의 기득권 문제를 가지고 家人과 충돌했을 때 화부인을 엄하게 다스리는 한편, 자신과 소운성이 집을 비웠을 때 화부인이 석과를 박대한 것을 알고 책망하여 몇 년동안 화부인을 찾지 않기도 한다. 게다가 효성도 지극하여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는 일은 절대 없을 뿐더러, 어머니가 아플 때 자신의 손을 잘라 피를 먹이며 구완하는 등 여러모로 뛰어난 군자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지극한 효성과 도덕을 실천하는 그가 공명정대하고 엄하게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후세의 귀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게다가 이를 본받은 자손들이 수신하여 모두 높은 지위에 오르고 蘇府를 훌륭하게 번창시켜 소현성은 자손 대대로 칭송을 듣는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 현택지도 소현성만큼이나 엄하고 공명정대한 가장으로 玄府에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를 조정하고 해결해나간다. 현수문이 아버지의 허락을 얻지 않고 윤혜빙을 겁탈하고, 이를 빌미로 윤소저에게 늑혼을 강요할 때 태장을 하고 쫓아내어 엄하게 징치하는 것도 현택지이고, 현경문이 주소저를 박대하여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꾸짖는 것도 현택지이다. 또한 주소저와 윤소저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남편과 화락하기를 거부할 때 교화하여 집안을 평화롭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현택지의 역할이다.

이렇게 엄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있기에 집안밖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고, 집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자손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명하게 조정, 해결하는 것도 아버지의 역할이다. 이렇게 집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아버지의 부재시 이를 대신할 어른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렇

지 않을 경우 집안이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우리 소설에서는 그리고 있다. 즉 집안의 존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도덕적, 인격적으로 훌륭한 가장인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없거나 확실하지 않을 경우 가문과 가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재자가인소설의 인물들은 대개 독자로 설정되어 있어서 개인이라는 상황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⁹¹⁾ 〈평산냉연〉과 〈호구전〉의 재자가인은 모두 獨子이고, 〈옥교리〉에서는 백홍옥과 소우백이 獨子이다. 노몽리에게는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지만, 작품 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도 않는다. 〈구운몽〉에서는 난양공주와 백능파를 제외한 6명의 여성과 양소유에게는 형제가 없거나 형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재자가인소설의 인물들과 유사하다. 게다가 형제가 있다고 해도 난양공주에게는 황제인 오빠 한 명, 백능파에게는 언니가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나 형제의 수가 매우 적게 설정되어 있으며, 그들을 소개할 때도 가문을 소개하면서 함께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전개 과정에서 언급하는 정도이다. 형제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모습도 개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재자가인소설과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우리소설인 〈창선감의록〉과 《소현성록》, 〈현씨양옹쌍린기〉의 경우는 앞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모두 형제를 두고 있으며, 게다가 그 자손 대에 이르러서는 형제의 수가 월등하게 증가하고 있다.⁹²⁾

이렇게 우리나라의 17세기 소설에도 부모 중 한 명이 일찍 죽거나 자녀가 거의 없다는 모티프 등은 중국 소설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 소설에서처럼 서두에 가문에 대해 언급되지 않거나 간단하게 서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구운몽〉의 경우는, 서두에 나타났던 ‘연화도량’이 꿈속 세계와 계속 연결되고 있고, 연화도량에서 맺었던 인연이 꿈속 세계에서 계속하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양상이 조금 다르지만, 각 인물들의 가문에 대해 언급이 거의 없으므로 재자가인소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현성록〉과 〈창선감의록〉에 이르러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집안에 대해 당대가 아닌 그 선조에 대한 소개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주인공의 배필에 대한 소개까지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소씨삼대록〉이나 〈현씨양옹쌍린기〉에 이르면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은 물론, 자녀도 외동이 아닌 여러 자녀가 있으며, 부모가 건재하여 집안의 기강을 바로

91) 이러한 모습은 비단 서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중반에 등장하는 다른 주인공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92) 한국소설에서 자녀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그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 녀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뛰어난 재주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는 재자가인소설과 〈구운몽〉에서는 서두에서부터 개인을 중시하는 반면,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가문을 번영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고전장편소설에서는 부모나 형제와 같은 집단과 가문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두에서 작가가 설정한 배경이나 가족관계의 제시 여부 등은 주인공의 의식을 비롯한 작품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당대 작가들이 개인을 중요시 했는가, 사회를 중요시 했는가에 대한 의식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3. 결말에서 보이는 작가의 이상향

서두에서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당대의 사회의식을 엿볼 수 있다면 결말 부분에서는 작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세번 화측에 부부를 미지미 은정이 영만하고 덕행이 가직하야 자손이 연면하고 복록이 완전하야 제 가쳐스의 고금을 침작하고 시사를 맛초와 아름다운 풍속과 괴이헌 스적이 당시의 본밧고 후세에 전하야 속집에 기록하니라.⁹³⁾

위에서 제시한 〈호구전〉의 결말은 철중옥과 수빙심을 괴롭혔던 과기조, 과학사, 구태감, 더쾌후 등이 벌을 받고, 두 사람은 황제에게 다시 한 번 혼인할 것을 명 받아 혼례를 올려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축복된 인연을 맺고 후대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다.

후의 빅함이 산더로 더브러 영화로이 송강의 도라가 즈손이 번성하고 평여형은 냉강설로 더브러 낙양의 가다 시문려를 정제히하고 부모고 데스하고 속즈 평교관도 혼디 이서 7장 즐거이 디내니 만일 진짓 지죄 잇는 사름이 아니면 엇디 능히 이런 복을 누리리오. 지금 경스 가운데 오히려 평산냉연 네 사름의 지조의 괴특함과 인연의 공교함과 텃즈의 통이함과 혼인의 변화하물 뉴턴하야 일코트니라.⁹⁴⁾

〈평산냉연〉에서는 네 사람의 재자와 가인이 우여곡절 끝에 각기 서로의 짝을 찾아 가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이들의 인연과 황제에게 총애 받은 것이 사람들에게 두루 칭송 받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 두 작품에서도 드러나듯이 재자가인소설에서는 그들이 자녀를 얼마나 낳았고 어떠한 여생을 살았으며,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서술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재자가인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재자와 가인의 결연일 뿐이며 그것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당대의 뛰어난 재자와 가인이 가연을 맺었으니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들의 삶은 못 사람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굳이 더 이상의 부연설명이나 후일담이 필요없는 것이다.

〈옥교리〉도 재자와 가인의 결연 후 이야기가 짧게 서술되고 있다는 것에서는

93) 〈호구전〉, 권지사.

94) 〈평산냉연〉, 권지삼.

위의 두 소설과 유사하다.

우백이 혼인을 일우매 경스의 가 속사하고 두어달 만의 두 부인을 낫지 못하여 벼슬을 스양하고 도라올 식 순노의 산동 드러 노부인 가스를 슈습하여 노공주 즈라기를 기드려 도라보내게 하고 전거인을 츠즈니 임의 지현 벼슬하여 가고 업거늘 니듬서를 츠즈니 집의 잇는지라. 삼일을 설연하여 한림을 디접하더라. 우백이 집의 도라와 낭소저로 더브러 곳 알피며 돌아래 시부를 창화하며 비주로 단란하여 벼슬을 귀히 너기지 아니하니...(중략)... 후의 우백이 두 소저로 더브러 세히 다 칠십여를 살고 홍옥은 이즈를 나코 몽니는 일즈를 나흐니 그 후에 영남이 죽은디라. 소우백이 빅소저 나흔 둘째 아들로 빅공의 후스를 낫게 하니라. 그 후 세 아들이 다 급제하여 벼슬이 현달하니 소우백이 두 소저를 위하여 비록 허다 심역을 허비하여시나 일이후의 부처 세 사람이 다 인간 삼스십년 풍뉴의 복을 바드니 이 엇디 천고의 한 귀특한 아름다운 말이 아니리오.⁹⁵⁾

그러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옥교리〉의 결말은 위의 두 작품과는 조금 다르다. 우선 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제시하고 있고, 각 부인들이 자녀를 셋 낳고, 그 중 하나로 백공의 후사를 잇게 하였으며, 세 아들이 모두 급제하여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는 후일담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재자가인이 부부가 되고 난 후의 이야기가 거의 없는 다른 두 소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구운몽〉은 환몽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소유의 삶에 대한 결말과 꿈에서 깨어난 성진의 결말이라는 두 가지의 결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소유의 결말은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결말의 범위가 다소 애매하지만 대체로 〈옥교리〉나 후술할 한국소설들과 비슷한 결말부를 보여주고 있다.

팔인이 각각 즈네 이시니 낭부인과 춘운, 홍월, 뇨연은 남직오 숙인과 농녀는 녀즈로 되라 혼 번 산후는 다시 잉태치 아니하니 이 쏘흔 범인과 다르미더라 잇대 텃해 태평하여 도당의 임이 업스니 승상이 나면 텃즈를 뵈셔 상념원의 유려보고 들면 대부인을 뵈셔 잔치하여 춤추는 스매는 세월을 번디 치고 풍뉴하는 스매는 광음을 지촉하니 승상이 상위의 이션지 여러 십년이 더났는디라. 뉴부인이 덩소도 부처로 더브러 나히 상뉴의 오른 후 세상을 니별하고 승상의 모든 아들이 임의 도당의 버러시

95) 〈옥교리〉, 권지삼.

니 녹남이네 다 부모의 품픽를 습혀야 옥슈지란이 문령의 빗최여시니 제 일즈의 명은 대경이니 텡부인 아들이오 네부상셔를 헛였고 돌지는 츠경이니 덕시 소싱이오 경도운을 헛였고 삼은 숙경이니 어스 등승을 헛였고 스는 계경이니 공쥬 소싱이오 니부시랑을 헛였고 오는 유경이니 계시의 소싱이오 한님혹스를 헛였고 녹은 치경이니 심시 소싱이라 오세의 용녀이 절울하니 텡지 스랑햐샤 금오상장군을 헛이샤 경영군 십만을 거느려 대궐을 호위헛엇더라. 당녀의 명은 텡난이니 진숙인소싱이라 월왕의 아들 낭아왕 부인이 되고 츠녀의 명은 역낙이니 동텡 농왕의 외손이라 태즈의 첩이 되어 낭네를 봉헛엇더라. 96)

양소유의 지위가 최고로 올라가고 황제의 지극한 총애를 받아 몸이 매우 귀하게 되는 한편, 2처 6첩에게서 6남 2녀를 얻었는데 자손들도 모두 빼어난 인물이라 각각 높은 지위에 올라 양府의 영화를 더욱 드높이고 있다는 후일담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두 부인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짚막하게 제시하고 있는 〈옥교리〉의 끝 부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인용문 뒷부분에 양승상과 8명의 부인이 육관 대사의 인도로 꿈에서 깨어나 선계로 돌아온 후, 도를 깨우치고 설법하며 후에 극락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후일담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환몽구조라는 〈구운몽〉의 구성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윤부인의 으들은 텡보 텡상 텡수요 남부인 으들은 텡웅 텡경 텡로요 쫄은 명교옥교니 칠지 츠례로 등과햐 텡인텡보텡웅은 다 장원에 뽕히고 텡인은 남평후의 쫄에게 장가들고 텡보는 나희 십륙에 한림학사로 제양공쥬 부마되여 지로 문을 겸햐 무출장 입상햐햐 명망이 가장 성햐 텡원왕을 봉햐니 이는 진공의 스지라 잇썩 하 각되 임중에 어린 으들을 진공의게 부탁햐니 밋장성햐햐 명교로 안희를 삼으며 명도흔 남부인과 갓더라 여러 자데 다 귀히되고 셔평후의 으들 텡뵈 벼살이 대스마의 일으니 윤각로의 데삼계라 현보의 아오 스인이 잇스니 리썩 소싱이라 보란지 잇셔 용건햐고 전공이 만하 상산후를 봉햐고 류니숙 왕겸도 아들이 썩흔 현달햐햐 만터라. 심부인이 진공의 복록을 삼십여년을 누리다가 졸햐니 진공이 거상에 익모햐물 텡부인 초상과 궂치햐고 진공이 나히 팔십에 치스햐고 량부인으로 더브러 소흥으로 도라가니 풍골과 숙연햐고 동안이 불쇠햐 신선의 모양이러라.97)

96) 〈구운몽〉, 권지사.

97) 〈창선감의록〉, 384쪽.

위 인용문은 〈창선감의록〉의 결말부이다. 화진의 여러 자녀들에 대해 이름과 함께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어느 가문과 혼인했는지까지 설명하고 있어 비슷하게 자녀담이 서술된 〈옥교리〉나 〈구운몽〉보다 훨씬 자세하다. 또한 화진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花府에 도움을 주었던 서평후와 왕검의 후사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나마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창선감의록〉의 서두에서 작가의 말이 있었던 것처럼 결말에도 다음과 같은 작가의 말이 서술되어 있다.

희라. 충효는 스람의 본성이요 스칭화복은 명이니 명은 알비아니요 다만 본성을 썩름이라. 화씨의 충효적덕이 족히 스람으로 햏야금 어진 마음을 감발햏야 충군칙친과 형데 우익 가히 효측이 되리니 엇지 아릅답지 아니리요. 충효우익는 고금이 엇지 다르리요 엇던 스람이던지 화씨의 충효와 우익를 본바다 햏햏면 직양은 날느제햏고 복록은 날마다 올거시니 햏햏 햏햏지어다.⁹⁸⁾

작가의 말을 통해 작품을 정리하는 한편,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충효와 우애’를 햏햏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창선감의록〉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작가가 서두와 결말에서 직접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소현성록》은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소현성록〉과 〈소씨삼대록〉의 연작형태로 되어있는데, 서울대본에서는 권지육의 말미와 권지철의 서두에서 이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승상이 모친을 천년으로 좏햏햏고 벼슬이 제후의 이셔 공녔을 즈로 세우고 쉬 팔십이 넘은 후 기세햏니라. 두 부인이 니어 도라간 후, 즈손이 번성햏야 관면이 썩지 아니며 냇직 냇샡햏고 칠딴를 년햏야 황각의 질드리니, 후인이 유미찬을 평싱의 도덕이 승검햏고 공검절차햏야 적션여음이 흘너 즈손의 느리니, 칠딴 정승이 남은 햏햏과 절딴햏를 창턴이 조우햏시고 신명이 감동햏미러라. 그 즈네 괴이햏미 잇느지라. 일기를 보미 후세의 전햏염죽 흘식, 던을 지어너니 소공 햏적이 만히 드러시므로, 별던은 곱은 소씨삼딴록이라 햏노라.⁹⁹⁾

이 부분은 권지육의 말미에 나타나지만, 본래는 이것이 〈소현성록〉과 〈소씨삼

98) 〈창선감의록〉, 385쪽.

99) 《소현성록》, 권지육.

대록〉의 연작형태이며, 권지육의 마지막 부분이 〈소현성록〉의 마지막 부분임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 다음에 제시한 〈소현성록〉의 권지칠 서두를 보면 이러한 관계는 조금 더 분명해 진다.

화설, 대송 진종도의 농두각 태학스 황태부 좌승상 소공의 명은 경이오 처스 소광의 독지라. 그 모부인 양시 회잉 스오삭의 처식 기세흐니 부인이 텃봉지통을 당흐여 엇지 그 뒤홀 좇지 아니리오마는, 복으를 보전코져 지통을 서리답아 두 녀오와 니, 석냥과의 위로흐를 힘납어 복으를 싱흐니, 이 곳 승상 소경이라. 땡모의 삼천지교를 본바다 어진 교혼을 힘납어 승상이 이러툃 성취흐니 엇지 회한치 아니리오? 승상이 샤증의 두 부인이 이시니 원비 화시, 츠비 석시라. 동규 수십년의 장옥이 섰선흐여 화시 오즈 이녀를 두고, 석시 오즈 삼녀를 싱하니 기기히 곤산미옥이라¹⁰⁰⁾

작품의 중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권지육까지의 내용이 압축되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앞부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는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소설의 시작처럼 시간적 배경과 소현성이 태어날 때의 상황, 혼인 관계등 아주 기본적인 배경 설정만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 뒷부분은 바로 長子인 소운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권지칠부터가 〈소현성록〉의 연작이자 소현성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서술되는 〈소씨삼대록〉임을 짐작할 수 있다. 〈소현성록〉의 결말에서는 〈소씨삼대록〉에 대해 언급하는 대신 다른 작품에서처럼 자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어시의 진왕(소운성)형테 칠인이 즈운산의 복록을 누리더니 이는 다 소공의 적덕이라. 소현성 싱시의 오디 손가지 보고 십즈 오녀의 즈네 번성흐여 승상 강능후 운경은 늑즈 스녀를 두고 공부상서 운희는 삼즈 이녀를 두고 진왕 운성은 십즈 이녀를 두니 이즈는 곳 석시 쇼칭이라. 평장 운현은 오즈 이녀를 두고 시랑 운몽은 이즈 스녀를 두고 학스 운의는 스즈를 두고 팔즈 대스도 운명은 님부인키 십스즈 칠녀를 두고 니부인키 이즈를 두고 민시 등 스위부인키 각각 일즈식 두어시니 합흐여 이십구인이오 시강학스 운변이 일즈를 두고 네부상서 추밀스 운필은 칠즈 삼녀를 두어시니 성손이 팔십 칠인이오 외손이 번성흐니 당녀 성참정부인은 삼즈 삼녀오 츠녀 뉴스공부인은 스즈 이녀오 삼녀 정시랑 부인은 일즈 일네오 스녀 김참정 부인은 팔

100) 《소현성록》, 권지칠.

즉 이녀오 오녀 소황후는 스즈 삼녀를 탄싱하시니 너의 손이 일찍이십異人이라. 그
 번성흔 영녹을 세인이 가히 불워홀너라. 진왕 등 팔형데 회년의 밋쳐 치스흔고 산중
 의 한가히 잇서 청풍명월의 스미를 잇글고 유완하기를 일삼으니 도년명의 귀거릭스
 와 제갈냥의 낭보음을 외와 지과 호상흔고 슈업슨 즈질 제손이 기기히 부풍모습흔
 야 곤산미옥이오 스가옥쉬라. 진왕이 교훈흔물 엄히 햏야 비법과 무직를 금흔며 스
 스의 부친 유교를 봉승흔니 사름이 일크르되 진왕이 쇼년 제는 쇼탈흔고 고집이 과
 인흔며 쇼절을 거리끼지 아니터니 당시햏여는 침정즈상햏여 전일과 너도햏다 햏더
 라. …(중략)… 진왕이 형부인으로 더브러 녹십여년을 동쥬흔고 즈손 오십여인을 두
 고 부뷔 이어 기세흔니 왕의 탄던 만니운이 오리지 아냐 죽은 후 칠성검이 스스로
 울며 간딧 업스니 진실노 괴이햏더라. 왕의 부뷔 줄흔 후 슬프미 곳지 아냐 여러 형
 데 년햏여 망흔고 운명이 님부인으로 더브러 팔십여세의 혼날 죽으니 즈손이 빅여
 인이라. 소시 쥬 즈손 만햏른 운명이 웃듬이니 이는 다 님부인의 너른 복이라. 슈삼
 년지너의 제쇠 다 니어 망흔니 다 네로 장햏라 햏시고 각각 오들노 벼슬을 승습게
 햏시나 소시 제칭이 다 영화의 뜻이 스연햏여 관작을 스양흔고 진왕의 장즈 세광과
 장능후의 장즈 세현 등이 다 문장지학이 과인햏여 부조의 풍을 니어 속모를 섬기오
 믹 공경햏여 텃년을 맞춘 후 모든 제대를 거느려 형데 일신일심으로 화우돈목햏여
 오 늑디가지 즈운산의셔 스니 빅니 장현동이 좁아 동구뱃 와룡담가지 집을 지어시
 니 현성공 즈손이 쉬 천의 니르히 즈운산의 잇시니 시인이 일흠 지어 소가촌이라 햏
 더라. 101)

《소현성록》 21권의 결말부이다. 소현성의 10자 5녀가 자녀를 얼마나 낳았는지에
 대해 일일이 거론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나타나 있다. 또한 소운성
 을 비롯한 형제들의 죽음과, 그 후 蘇府가 원래 살던 곳에서 확장하여 하나의 촌락
 을 이룰 정도로 번성하고 영화를 누리며 살았음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인용문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는 《소현성록》이 지어지게 된 동기와 그것이 유
 래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쓰고 있어 마치 소현성 일가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인
 것인양 서술하고 있다.

제남(현경문)이 휘인중 텃즈를 돕스와 대공을 자로 세워 공이 우도의 두열스고 덕이
 화이를 품동흔니 니른바 명슈 죽빅흔고 공개 텃하햏여 화형닌각흔니 승상이 칠십지

101) 《소현성록》, 권지이십일.

년의 나르러 벼슬을 드리고 한가히 고당의 누어 낭주의 영효를 바들시 년이 삼십이 못하여 제후(현수문)는 벼슬이 본직 비서각 태학사 우부 도어스 병부 대스마 평제후의 턴하 명마 절제사 오국공을 겸하미 그 영복이 턴하의 빠이 업고 규녀 원비 하부인이 스즈일녀오 윤부인이 삼즈일녀오 또 처음으로 어든 녀즈 아오로 칠즈삼네 개개히 닌으봉취오 춘방 한님 금문직스 니부상서 홍문관 태학스 총지 청남후 좌승상 진국공 원비 주부인고 삼즈일녀오 철부인고 스즈를 두고 녹시고 일녀 이시니 개개히 사가 옥취오 채가근옥이라 오공과 진공의 종전설화와 자녀 성혼이며 개세한 통혼의 관절하미 무궁하디 소설이 잇는고로 싸히고 오직 그 대강만 기록흔지라. 승상과 당부인의 별세하던 설화와 웅린 턴린등의 취실하던 기괴한 설화는 다 후록의 저서히 잇거늘 춘년은 다만 사지 시녀 난해가 스를 늦치 다 읽의 하여내매 후세 사림이 던을 지어 써 세상의 전하미 낭현공의 위인이 빵룡린 곳튼고로 슈제하되 낭웅 빵린기연이라 하였느니 츠츠 뉴전 만세하라.¹⁰²⁾

위 인용문은 〈현씨양웅쌍린기〉의 결말부인데 여기서도 위에 언급했던 다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현씨 형제의 벼슬을 이야기하고, 각각 자녀를 몇 명씩 얻었는지를 상세하게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 또 있으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하며 이 소설이 지어진 유래와 ‘현씨양웅쌍린기’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본 우리나라 소설의 결말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인공들이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5명이 넘는 자녀들을 두고 있으며, 소운명의 경우에는 27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는데, 이 많은 자녀들은 모두 다 빼어난 외모와 재주를 가져 나라의 큰 기틀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소현성록》의 경우에는 모든 자식들이 빼어나지도 않고, 심지어 역적이 되는 인물도 있어¹⁰³⁾ 다른 작품들과 차이가 있지만, 지위가 높아지는 자녀 중에는 왕과 황후까지 있기 때문에 蘇府의 영화는 크게 훼손받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자녀들을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문을 번창시키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언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대에서 확립한 가문의 영화를 더욱 번영시키는 자손들의 이야기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소현성록〉의 연작인 〈소씨삼대록〉과 〈현씨양웅쌍린기〉의 연작인 〈명주기봉〉, 〈명

102) 〈현씨양웅쌍린기〉, 권지십.

103) 소현성의 삼녀 수아는 투기가 많아서 늘상 소현성이 꾸짖지만 고쳐지지 않아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소운숙의 아들 소세명은 도둑의 무리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나 소운성에 의해 진압된다.

주옥연기합록〉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연작은 선대에서 언급했던 모든 자녀들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작품의 길이도 앞 작품에 비해 매우 길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사건을 펼친다.

재자가인소설에서는 그간 작품을 이끌어 왔던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과 더불어 그 후의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문이나 자식에 관한 서술은 거의 없거나 극히 짧은 편이다. 중요한 것은 주인공인 재자와 가인의 이름이 후세에 전해져 그들이 높은 명예를 누렸다는 것이다. 이 양상은 〈구운몽〉에서 속세에서 극한 영화를 누리고 가문도 번성하지만 이는 허무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득도하여 극락세계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과도 유사하게 통한다. 그러나 〈구운몽〉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가문의 번성은 다른 소설인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을 거쳐 〈헌씨양옹쌍린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결말 구조로 자리한다. 이 작품들은 결말에서 개인의 영화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있는 가문의 부귀와 영화를 소개하는 한편, 크게 번창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녀들의 이야기까지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한 작품으로 끝나는 것도 모자라 자녀들의 이야기로 새로 작품을 쓴 연작물들도 있어, 결말에서 연작에 대한 소개까지 할 정도로 가문의 번영과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재자가인소설이 개인의 의식과 행복을 존중하여 당대 이데올로기가 허락하는 한 재자가인들의 개인성을 존중하는 반면, 개인의 발전이 가문의 번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문이라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우리소설에서의 모습과도 연결된다. 재자가인소설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에 굳이 가정과 가문이라는 굴레에 한 개인을 소속시키기를 꺼려하며, 그 개인이 목표한 바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곧 작품의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한 가정, 더 나아가 한 가문을 중요시하는 우리 소설에서는 개인이 부귀영화라는 목표를 이루었어도 그것은 개인의 목표 달성이지 가문의 목표달성이 아니므로 서두에서부터 가문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물론, 선대에서 보다 훌륭한 가문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후손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고 그들의 후일담도 쓰고, 연작도 쓰는 것이다. 단지 작품의 배경, 마무리, 설명에 불과해보이던 서두와 결말의 차이에서 이렇게 재자가인소설과 우리 소설과의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IV. 인물 형상화의 비교

소설에서의 인물은 작품에서 행위나 사건을 수행하는 주체, 즉 인물과 그 인물이 지닌 기질과 속성 및 성격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행위나 사건을 통해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와 작가 의식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물들을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분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구조 및 주제, 작가 의식까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일곱 작품의 인물들을 비교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바와 그에서 나타나는 당대의 사회인식, 혹은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상적인 남성상의 유사함

중국 재자가인소설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才子와 佳人의 애정과 혼인에 관한 문제이다. 주인공격인 재자들은 작품 전반에 걸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혼인과 애정 문제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게 된다. 뛰어난 외모와 재주를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혼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배필이 될 여인의 재주와 미모이다. 또한 재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혼인관 혹은 애정관을 표현하고 추구하는 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옥교리〉의 재자인 소우백은 부귀영화나 출장입상에는 관심이 없고 가인을 만나 아름다운 인연을 맺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있다.

부귀는 때오면 어드려니와 가인은 고금으로 통하여 엇기 어려오니라. 지죄잇고 식이 업서도 가인이 아니오 식이 잇고 지죄 업서도 가인이 아니오 지식을 겸하고 이 소우백을 향하여 뚝뚝한 정을 두지 아니면 이 소우백의 가인이 되지 아니리니...(중간생략)... 소제 평일의 어린 의스를 두어 절식 가인 곳 아니면 종신틈록 취쳐치 아 니를 텅세 하여시니...¹⁰⁴⁾

소우백이 생각하는 가인은 재주와 외모가 모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면 자신의 애정관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그의 뚜렷한 애정관은 몰래 엇본 혼인 대상인 ‘무교¹⁰⁵⁾’가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뛰어난

104) 〈옥교리〉, 권지일.

105) 무교는 백홍옥이 아버지 백현의 부재기간 동안 외숙부 오한림 집에 있을 때 사용한 이름이다. 오

집안인 오한림의 청혼을 거절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오한림의 혼담을 거절한 일로 인해 소우백은 儒籍에서 삭제되는 수난을 겪지만 가인과 혼인하겠다는 신념은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과 숙부인 소어사의 부름을 계기로 뛰어난 가인을 찾는 여정에 오른다. 소우백은 여행하던 중 뛰어난 가인인 백홍옥을 만나 혼인을 약속한다. 그 후 우연히 남장한 노몽리를 만나 그의 누이와 혼인을 제의 받자 소우백은 정혼한 몸이지만, 두 여자를 모두 아내로 맞겠다고 한다.

우빅 왈, 임의 혼나혼 브리지 못홀지니 둘을 둠만 곳지 못흐나 다만 규동 으녀즈의 원이 아닐가 하노라. 몽니 왈, 샤딕 나회 비록 어리나 성질이 싸여나니 엇디 혼갓 으녀로 보리오. 군즈를 스모하는 므음을 임의 소제드려 닐렀는지라. 취흐면 체되고 분흐면 첩이니 스스로 구흐

미 분의 갓가온지라. 곳 규동의 집죄 이서 월하의 가연을 기다리느니 형은 의심 말라 다만 형의 구하는 바 숙네 능히 용납흐를 두랴. 우빅이 대희하야 곁오되 만일 숙네 아니면 쇼데 구흐미 업슬거시오 진실로 숙네면 엇지 투기를 내리오.¹⁰⁶⁾

소우백은 자신이 평소 원하던 가인을 만나자 가문이나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혼인을 약속하며, 두 아내를 얻으면서도 혼인 상대자들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¹⁰⁷⁾ 오히려 먼저 정혼한 여인을 걱정하는 노몽리의 말에 ‘투기하는 사람은 숙녀가 아니오, 숙녀가 아닌 사람을 나는 배필로 삼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게다가 혼인과 관련된 소우백의 행동은 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불고이취나 複婚에 대해 벌을 받기는커녕 어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더불어 뛰어난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인연을 이루었다는 칭송까지 얻는다. 남성중심적인 혼인관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평산냉연〉의 연백함과 평여형도 공명보다는 재주를 추구하는 동시에 가인과의 결연에 몰두한다. 연백함은 皇莊의 누각에서 우연히 만난 미녀에 대해 평여형에게 이야기하며 樓上美人과 인연 맺기를 바란다.

한림은 무교와 소우백을 혼인시키고자 하나 소우백은 다른 이를 무교로 잘못 보고 청혼을 거절한다. 106) 〈옥교리〉, 권지이.

107) 비록 노몽리가 실제로는 혼인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소우백과 이야기할 때에는 남자인 오빠로 분장하고 있었으므로 소우백의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평여형이 웃고 닐오되, ‘형이 다만 얼굴 의논홀줄만 알고 직조 의논홀줄을 아디 못
 흐는도다...(중략)...반드시 얼굴이 아름답고 겸허야 직죄 이셔야 꽃치 비흐면 일흠
 난 꽃치오...(중략)...소데 강설의게 정을 너디 못흐는 바는 직식이 겸전흐미라. 만일
 형이 다만 식으로 니를작이면 금슈지분 가운데 혹 사름이 이셔 형의 주린 눈을 위로
 흐리라. 108)

연백함이 단순히 누상미인의 외모에만 반한 것으로 여긴 평여형은 외모도 중요하
 지만 반드시 재주가 있는 여자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만났던 냉강설이
 얼마나 재주와 미모가 뛰어난 가인인지 강조한다. 그 후에 연백함이 미인이 자신에
 게 남긴 시를 평여형에게 보여주며 누상미인이 외모뿐만 아니라 재주까지 겸비한
 가인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자신들의 情人이 더 뛰어나다고 자랑
 하며 그들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드러낸다. 재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才貌에
 필적할만한 가인을 만나는 것이며 가인을 만난 이상 서로의 신분이나 집안의 지위,
 가인의 의사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재자들은 이미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보거나 벼슬길에 나아
 가는데 집착하지 않는다. 평여형은 재주도 없는 이들이 재물과 권력을 이용하여 정
 치에 나아가고 있음을 비판하며 자신은 이미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 굳이 그들 속에
 끼고 싶지 않다고 까지 한다.¹⁰⁹⁾ 재자들이 과거를 보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피하거
 나 가인을 만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¹¹⁰⁾ 혼인한 후에도 정치에는 전혀 관심을 두
 지 않고 가인과 재주를 논하며 즐겁게 지내는 것에만 만족한다. 뛰어난 성적으로 급
 제했던 연백함과 평여형은 혼인 후 벼슬을 버리고 각자 자신들의 아내를 데리고 고
 향으로 돌아가고, 벼슬을 잠시 하던 소우백은 두 부인을 잊지 못해 벼슬을 버리고
 부인들과 시부를 논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 그 예이다.

이들은 애정 추구에 매우 솔직하고, 겉으로 표출하는 데 서슴치 않으며 가인들이

108) <평산냉연>, 권지칠.

109) 최수경에 의하면 여기에는 작가 의식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평산냉연>의 작가인
 天花藏主人은 “재주가 있으나 때를 만나지 못해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고, 기용되지 못하고 있으
 며 이 때문에 매우 울적하여 허구의 고사를 만들어 내어 자신의 울분을 풀어내고 자신이 이루지 못
 한 일을 허구로나마 대신 그려내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즉 작가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
 는 세상에 대한 비판을 평여형의 입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최수경, 앞의 글, 107쪽 참
 조.

110) 소우백은 공명을 이루어 동생의 의탁을 쉽게 하라는 노봉리의 권유로 과거를 보고, 연백함과 평여
 형은 자신들이 당인과 송신의 계략에 빠질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를 본다.

나 주변 인물도 이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재자들의 모습은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무언중에 강요하는 이상적인 남성들의 모습이다. 최수경은 이것이 명말에 나타난 왕학 좌파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인물상이라고 하였다. 왕학 좌파란 王畿가 창시하여 王艮과 李贄에 의해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인간의 욕망이나 이기심을 하나의 천성으로 여기고 활동의 동기이자 인류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여겼다. 명말청초의 재자가인 소설의 재자들은 표면적으로는 禮와 名敎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재자들의 생활 태도나 자세에서는 ‘狂放’하고 예에 구속되지 않는 왕학 左派家들의 영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¹¹¹⁾ 결국 재자가인 소설에서의 재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예를 논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망이나 애정을 마음껏 추구하는, 당대에서 이상적이라 여겨지는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사상적인 배경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의 애정관을 숨김없이 표현하며 추구하는 남성 중심적인 재자의 모습은 우리 소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구운몽〉의 양소유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전생에서의 인연이 있다고 하지만 양소유는 무려 8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뛰어난 여성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여성들을 물리치지 않고 거리낌없이 모두 맞아들인다.

비록 신분이나 상황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양소유가 8명의 여성을 만나 결연하는 동안 큰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다. 황제의 늑혼으로 인해 양소유가 下獄되는 등의 갈등이 약간 발생하지만 극도로 심화되지는 않는 것이다. 2차 6첩을 얻는 과정에서 소우백이 그러했듯이 복수 혼인에 대한 부당함이나 윤리적 제재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친구를 양소유의 배필로 추천하여 몰래 침소에 보내거나(계섬월-적경홍), 시비에게 함께 양소유를 모시자고 제안하기도 하는 등(정경패-가춘운, 난양공주-진채봉) 여성들 스스로 複婚을 이끌어내고 있다.

소제(정경패)가 왈, “양싱이 원방 십육세 서싱을 석죽 거문고를 잇글고 직상 집 집고집혼 둥당의를 드러와 규둥쳐즈를 너여 안티고 거문고 곡도로 도회흐니 이러틋혼 괴상이 어이 즐겨 혼 녀즈의 손에 늘그리오. 양싱의 승상부를 옹거흐면 몇 풍뉴조척 줄 알니잇가¹¹²⁾

111) 최수경, 앞의 글, 64~65쪽.

112) 〈구운몽〉, 권지이, 71쪽.

이렇게 複婚을 당연시 여기는 여성들의 생각을 양소유를 비롯한 주변인들은 훌륭한 처사라며 칭찬한다. 8명의 여성과 큰 갈등없이 자유롭게 결연하는 양소유의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 이상적인 남성의 모습과 애정 추구의 욕망이 극대화 된 모습이다.¹¹³⁾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다른 인물들의 생각이나 행동도 남성 중심적 윤리관, 애정관이 팽배해있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비록 이것이 성진의 한바탕 꿈이었다고는 해도 마음껏 애정을 발하는 양소유의 모습과 이를 용인하는 주변 인물들의 행동은 당시 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선감의록〉의 윤여옥도 애정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인물에 속한다. 윤여옥은 정혼녀인 진채경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누이들이 노는 곳에 찾아가 함께 즐기며 이를 거리끼지 않는다.¹¹⁴⁾ 또한 늑혼을 피해 도망가던 진채경이 백경과 주선하여 혼약을 맺은 백소저와도 기쁘게 혼인하는 한편¹¹⁵⁾, 늑혼 위기에 빠진 누이 윤옥화 대신 여장하여 들어간 엄송의 집에서 그의 딸 엄월화와도 인연을 맺는다. 이렇게 여러 여성들과 인연을 맺으면서도 이로인한 첩예한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후반부에 윤여옥과 엄월화의 혼인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전개된다. 이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엄월화가 역적 엄송의 딸이었기 때문이며, 이미 혼인 상태에 있던 진채경과 백소저도 엄월화를 위로하며 윤여옥과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 혼사 장애는 엄월화를 윤여옥의 소실로 맞으라는 천자의 명으로 쉽게 해결된다. 이렇게 남성, 특히 재주 있는 남성의 경우 자유롭게 애정을 추구하고, 표현하며, 여러 여자들과 화락하는 등의 모습은 중국 소설이나 우리나라 소설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가치관이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역시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자가인소설과 한국소설에서 유사하게 애정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남성들

113) 박일용은 양소유를 전대 한문소설(〈주생전〉, 〈운영전〉 등)의 주인공들과 비교하며 “전시대의 사실적인 한문소설의 남주인공의 형상에서 후대의 대중적인 허구적 영웅소설의 주인공 형상으로 전이되는 단초적인 모습”이라고 평가기도 하였다. 박일용, 앞의 책, 197-198쪽. 그러나 양소유가 비록 한미한 처사 집안에서 태어나 그 신분이 전대 한문소설의 주인공들과 비슷하다고 해도 이미 태몽과 유사한 전생이 제시되어 있고, 양소유의 재주 또한 그들과는 남다른 것이므로 사실적인 한문 소설의 남주인공 형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14) “차시 윤공지 삼소제(진채경, 남채봉, 윤옥화) 후원에 잇스물 듯고 밧비 일으려 좌에 참예하야 즐기며 담쇠 주악하니 진소제 괴로이 녀어는지라.” 〈창선감의록〉, 277쪽.

115) “시랑이 탄왈, 여옥이 엇지 진씨를 저바리고 빅녀를 취하리요마는 그러나 관기계하야 빅녀를 취하게 하리이다. 공지 차언을 듣고 심중에 회헝헝지라.” 〈창선감의록〉, 287쪽.

을 보여주면서도 재자가인소설에서 남성들이 애정을 추구하고 가연을 맺는 것은 사회적, 현실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소설에서는 하늘, 혹은 전생의 인연으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를 보인다. 〈구운몽〉에서는 성진이 벌을 받을 때 8선녀들도 함께 벌을 받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곧 바로 성진이 적강하여 양소유로 태어나는 장면을 보여주며 8명의 여인들도 양소유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며, 인연을 맺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소유가 여인들과 인연을 맺을 때에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작품의 중간중간에 이들이 전생에서부터의 인연임을 알려주는 대목이 자주 등장한다. 〈창선감의록〉에서도 엄월화와 윤여옥의 인연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엄월화는 “천명을 순수”한 까닭에 윤여옥을 돕고 그와 인연을 맺은 것이다. 양소유와 마찬가지로 8명의 여인들과 인연을 맺는 《소현성록》의 소운명도 천정연에 의한 결연이었다. 소운명은 동방선인, 임소저는 봉래 부인, 이소저는 남해 용왕의 딸, 정소저는 동해 권낭선이었으며 금강선녀 4명은 각각 민소저, 부소저, 뇨소저, 조소저였다. 이들은 선계에서부터 인연이 있었고, 그 인연을 현세에서 받아들인 것이기에 소운명의 자유로운 애정 추구하고 여러 여인들과의 결연이 가능했던 것이다.

게다가 한국 소설에서는 소설의 창작 시기가 지날수록 자유로운 애정추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나타나고 있다. 〈소씨삼대록〉의 소운성은 먼 발치에서 우연히 본 형소저에게 반하고 외조부인 석참정에게 부탁하여 형소저와 혼인하지만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멋대로 애정을 발하였다 하여 부친인 소현성에게 크게 벌을 받는다.¹¹⁶⁾ 이미 부인인 임소저가 있었던 소운명은 길에서 남복한 이소저를 만나 봉우의 인연을 맺었다가 이소저가 여자임을 알고 정혼하나 역시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결연으로 인해 소현성에게 벌을 받는다. 〈현씨양옹쌍린기〉의 현수문은 “옥을 보면 그릇마다 치오고저 하고 꽃을 보면 가지마다 썩고저”¹¹⁷⁾할 정도로 여색을 밝히는 인물이라는 점은 〈옥교리〉의 소우백이나 〈구운몽〉의 양소유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현수문은 외숙부인 장시랑 집에서 우연히 만난 여인 윤혜빙에

116) “네 여러가지로 죄 지으를 아느냐? …(중략)… 버거는 남의 규슈를 여어보고 상스혀여 도로혀 청혀여 혼인을 일우니 아비를 업습긔치 녀기미라. 군지 취쳐혀미 부모의 명으로 늑네를 궂초아 마조도라와 스묘의 고흐고 니성지함을 일우미 덧덧흔 일이어늘, 너는 이러치 아니혀여 방탕혀기를 일습으며 스스로 방조흔 형시 혼두번이 아니로되 잠잠코 조로 취지 아니른 복당 편친이 과도이 슬혀혀실가 조저 혀미러니, 이제 가지록 회파치 아니른 부조대눈을 모르려 혀미라. 엇지 안전의 용납혀리오?” 《소현성록》, 권지팔.

117) 「현씨양옹쌍린기」, 권지이.

게 반하여 장시랑 형제의 도움을 받아 윤혜빙을 겁탈한다. 이 때문에 아버지인 현택 지에게 매를 맞고 집안에서 쫓겨 날 지경에 이를뿐더러 이를 알면서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죄로 동생인 현경문마저 태장을 당한다.

그러나 이들이 벌을 받는 것은 여성을 겁탈했다거나,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혼인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벌을 받은 후에는 주변의 중재를 바탕으로 부모가 용서하고 허락하여 혼인을 이루게 된다.¹¹⁸⁾ 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혼인을 이루며 게다가 이들과 결연을 맺는 여성들은 모두 현숙하고 뛰어난 요조숙녀들이며 판명된 후이다. 남성들의 일방적인 애정추구는 뛰어난 여성을 맞아들이는 하나의 방법이고, 권리이며 이를 사회적으로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애정 표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인물들도 있다. 같은 재자가인소설이지만 〈옥교리〉나 〈평산냉연〉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소설인 〈호구전〉에서 주인공 철중옥은 애정보다는 도덕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철중옥은 혼인 전에 수빙심과 만나지만 이 만남은 다른 재자가인소설에서처럼 혼인을 목적으로 한 만남이 아니었다. 위협심이 강한 철중옥이 위기에 처한 수빙심을 구해주고, 그 때문에 위기를 맞은 철중옥을 수소저가 구해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¹¹⁹⁾ 그 후에도 철중옥은 수빙심을 도와주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행하지만 윤리에 거스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결국 양가 부모님의 적극적인 주선과 반동 인물들의 계교로 인해 두 사람은 名教를 지키고자 하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혼인을 한다. 그러나 이때도 합방은 하지 않고 예를 지키다가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황제가 다시 한 번 혼인할 것을 명한 후에야 정식으로 혼인한다. 비록 철중옥이 무술을 하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사건에 豪氣를 부려 개입하고,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포함한 관리들을 질책하는 행동 등은 우리 소설에서 나타나는 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자유분방한 재자들과는 또 다르게 이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인물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철중옥이 여러 가지 사건과 위기, 유혹에도 불구하고 명교를 지키

118) 소운성은 외조부 석참정의 주선으로 이미 혼인한 상태였고, 소운명은 소현성에게 벌을 받은 후 이 소저와 혼인하며, 현수문은 장시랑의 주선으로 윤소저와 혼인한다.

119) 김명신은 수빙심을 예교를 중시하고 용기와 지혜를 갖춘 여협으로, 철중옥을 文과 武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협객의 도리를 행하고 있지만 유가적인 성격을 진하게 풍기는 儒俠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金明信, 「清代 俠義愛情小說의 人物型象」, 『中國小說論叢』 第9輯, 한국중국소설학회, 1999. 248-257쪽 참조.

려는 모습은 우리 소설의 인물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창선감의록〉의 화진도 애정추구를 하지 않는 인물로 그는 아버지가 정해준 여인들과의 혼인을 따르며 모두 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화진은 집안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도 부인들보다 자신을 구박하는 계모를 걱정하고 중시하며, 효를 다하는 전형적인 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진과 더불어 이상적인 군자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인물은 《소현성록》의 소현성이다. 그는 부모가 정해준 부인인 화소저를 애중하지만 어머니는 물론 두 서모와 누이까지 신경쓰며 자식된 도리와 집안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군자이자 효자이다.¹²⁰⁾

상세 삼 부인을 거느리미, 일삭 너의 십일은 서당의 처하고 팔일은 화부인과 있고 두 부인과 녹일식 이시니, 그 제가흥미 이곳고 양부인이 으즈의 제가흥을 아람다이 녀여 거느리기를 고로 하니, 화, 석 이부인이 정성이 동동하여 가흥이 착난지 아니 혼지라.¹²¹⁾

위의 인용문은 소현성이 어쩔 수 없이 석소저, 여소저와 혼인한 후에도 각 부인의 지위에 맞게 엄격하고 준엄한 태도로 부인들을 대하는 모습이다. 소현성은 자신과 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항상 개인의 욕망을 표출하는 것을 엄중히 자제시키고 도덕과 윤리만을 중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현성은 아들들이 창기를 불러서 논 것을 알고 태장하여 심당에 가두기도 하고, 불고이취한 아들에게 중한 벌을 내리기도 한다. 이렇게 엄정하고 욕망을 극도로 자제하는 소현성의 모습은 도덕적, 금욕적이며 이성적인, 사대부의 이상향이다.

고전 소설에서 대체로 한 인물의 성격이 시종일관되게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소운성은 처음에는 애정 추구적인 인물이었다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인 인물로 변화하는 인물이다. 소영을 겁탈한 사건이나 형소저와의 혼인 과정에서 나타난 소운성의 모습은 개인적 욕망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고, 그에 대해서 잘못이나 가책 등을 느끼지 않는 인물로,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가문의 후사를 맡기고 싶은 소

120) “직시 화시의 위인이 즈기와 상적지 못흥을 아나 스식지 아나 공경후디히되, 다만 침쇼를 일삭의 일순식 찾고 기여는 학업을 힘쓰며 신희정성의 모친을 피쳐 니성화어로 모친을 열락게 하며 두 서모와 저저로 온순이 말습흥야 화기능흥되,” 《소현성록》, 권지일.

121) 《소현성록》, 권지사.

현성의 걱정거리가 된다.¹²²⁾ 그러나 명현공주가 죽은 후 소운성은 그 동안의 활달한 모습을 고치고 아버지와 비슷한 군자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결국에는 소현성의 뒤를 이어 《소현성록》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로 자리잡는다. 소운성은 소현성과 함께 반란군을 토벌하고, 집안의 분란을 진정시키는 한편, 조카인 세명이 일으킨 반란을 직접 진압한 후 세명을 죽여 집안과 나라를 동시에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개인적 감정에 충실했던 소운성이 이성적인 군자로 변화하는 모습은 애정 추구와 같은 개인적 욕망의 추구를 긍정하는 의식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현씨양옹쌍련기〉에서 소현성이나 소운성과 비슷한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은 현경문이다. 현경문은 아내인 주소저의 미모가 출중하다는 이유로 주소저를 멀리 한다.¹²³⁾ 재자가인소설에서 재자들이 재주는 물론 외모도 뛰어난 가인들을 찾아다니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아름다운 아내에게 냉담하던 현경문은 주소저가 죽은 것을 알자 아내에 대한 애정을 느끼지만 그것을 결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삭히며 아내의 죽음을 슬퍼한다. 이렇게 냉엄하고 냉철한 현경문의 성격은 작품 내 주소저와 대립하며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만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각인되는 그의 모습은 이상적인 군자의 모습이다.¹²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설에서의 남성들은 대체로 애정 추구형과 도덕 추구형의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이들은 모두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의 비호를 받으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애정 추구형이나 도덕 추구형이라고 해도 중국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이 개인의 애

122) 승상이 아즈의 괴상을 괴특이 녀기미 아니로디 그 남활히미 여초히여 문풍을 저버려 부형을 두리지 아니코 즉유즉형히를 대로히디, 모친의 즐기시는 가온디 그 죄를 드스려 효조의 정성을 감치 아니려 잠잠하고 서당의 드러가 선성드려 왓, “픽지 아버 짓을 저버리고 방탕히미 여초히니 경이 저의 나던 날을 짐작히미 이디도록 흐른 찌닷지 못히여이다. 내 직스의 분망하고 스친의 여가치 못히여시나 선성은 쇼으를 거느려 신칙히시니, 그 뜻을 아르시려든 복드려 닐오지 아니샤 크기의 밋게 히시니잇고?” 《소현성록》, 권지팔.

123) “한림(현경문)이 지성각의 나아가 소저(주소저)를 보미 천향국식이 일수무비히여 일광이 정휘하고 해월이 무식히니 더욱 년괴 십일세 룡년을 당히여 더욱 괴이한 주태 육분의 천해 병으리고주하여 연연한 주태 불가 형언이로디 성의 눈의는 구투여 괴특히물 아지못히여 다만 그 주식이 인세 사름 굿지 아니물 보고 그옥이 깃거 아녀 생각히디 태입태식 일즉 주식이 잇다 듯지 못히고 서즈비연과 양옥진이 주식이 잇다 하니 이러므로 국식은 불관흔지라. 하가 슈시는 형의 대상이 가커니와 친인은 비소원애라.” 〈현씨양옹쌍련기〉, 권지일.

124) 주소저가 자신의 고집을 꺾고 부덕을 받아들여 순종적인 여인으로 변화함으로써 이들의 갈등은 현경문이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끝난다.

정이나 욕망을 추구하는 데 더 자유롭고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소설의 인물들에게 윤리적인 측면이 더욱 드러난다는 것이다. 여러 명의 여인들과 결연을 맺는 것을 천정연으로 설정해놓는 것, 결연을 맺는 여인들도 모두 뛰어난 가문의 여인들이며, 혹여 정체가 애매한 경우라도 그 근본이 드러난 뒤에 결연을 맺는다는 것이다.

또한 재자가인소설의 재자들은 애정을 발하는 인물인 반면 우리소설의 애정 추구형 인물들은 애정을 발하여 인연을 맺기도 하지만 단순한 욕망의 충족인 경우도 나타난다. 〈옥교리〉의 소우백과 〈평산냉연〉의 연백함, 평여형, 〈구운몽〉의 양소유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여 이를 실현한다. 그러나 〈창선감의록〉의 윤여옥과 〈현씨양옹쌍린기〉의 현수문은 애정이 드러난다기 보다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에게 반하여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애정의 발현이기 보다는 욕구 충족에 가깝다. 〈소현성록〉의 소운성에게는 위의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正室인 형부인에게는 애정을, 첩인 소영에게는 앵혈을 없애기 위한 욕망을 추구한다. 이러한 모습은 재자가인소설에서보다 우리소설에서 남성 이데올로기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특이할만한 점은 우리소설에서는 애정 추구형과 도덕 추구형이 함께 드러난다는 것이다. 재자가인소설의 경우 애정 추구형이든 도덕 추구형이든 한 작품에는 재자가 한 가지 모습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것이든 긍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소설에서는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드러나는데, 17세기에는 주로 한 가지의 모습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운몽〉에서는 비록 금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진의 모습을 서두와 결말 부분에 그려 넣고 있지만 애정 추구형의 인물인 양소유의 삶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현성록》이나 〈창선감의록〉의 경우는 소현성과 화진의 삶을 부각시켜 도덕 추구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소설인 〈현씨양옹쌍린기〉에서는 애정 추구형인 현수문과 도덕 추구형인 현경문의 삶을 균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좀 더 안정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서로 대칭적인 인물을 제시하여 나타내는 것은 작품을 장편화 하는데도 도움을 주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다른 모습의 인물들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두 인물의 장단점을 보여주고 조화를 꾀하고자 한 것

에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¹²⁵⁾ 즉, 중국 소설에서 각 작품별로 이상적인 남성상의 한 부분만을 제시하던 것이 우리나라 소설로 접어들어서는 두 유형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부류의 이상적인 남성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두 유형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상적인 남성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5) 주인공들의 대칭과 대립에 관해서는 송성욱, 『한국 대하소설의 미학』, 월인, 2002. 52-59쪽에 상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2. 이상적인 여성상의 다른 모습

남성 인물들보다 자유롭지 않지만, 재자가인소설에서의 여성 인물들도 비교적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평산냉연〉에서 전형적인 가인인 산대와 냉강설은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지체 높은 집안의 외동딸인 산대는 뛰어난 재주 덕에 황제의 총애를 받는 한편, 많은 재사들이 그녀의 시를 받고자 줄을 설 정도이다. 냉강설은 비록 일반 평민이지만 신분이 다른 산대와 朋友之義를 맺고, 황제가 아버지에게 벼슬을 내릴 정도로 탁월한 재주를 가진 인물이다. 이들은 자신의 뛰어난 재주에 매우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 재주를 널리 펼치고 싶어하고, 이에 도전하는 남성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놀림감으로 삼기도 한다. 게다가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대 남성이 어떠한 위치에 있건 간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¹²⁶⁾

사회로부터 당당히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은 두 사람은 자신들의 배필도 자신들만큼 뛰어난 사람이기를 원하며¹²⁷⁾, 주변에서도 그들의 바람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걸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산현인과 냉대호는 사위를 고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견보다 딸의 뜻을 더 따르고 있으며, 뛰어난 재자 두 사람(연백함, 평여형)을 찾은 황제는 그들을 각각 산대, 냉강설과 혼인시키도록 한다. 또한 산대와 냉강설도 배필을 찾는 것에 적극적이어서 시녀로 변장하여 상대의 재주를 시험하기도 하고, 가인을 시켜 자신이 다른 남자에게 지어준 시로 상대 남자를 찾도록 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들이 재주를 펼치는 모습이나 배필을 구하는 모습은 당대 재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나타난다.

〈옥고리〉에서 백현과 오한림은 뛰어난 재주를 가진 백홍옥에게 훌륭한 배필을 정해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백홍옥 스스로 자신의 배필을 정한다. 시녀인 언소

126) 산대는 안문물이 절름발에 눈이 멀다고 하여 글로써 그를 조롱하고 이 때문에 6명의 학자들과 재주를 겨루지만 뛰어난 솜씨로 그들을 제압하여 자신의 이름과 입지를 더욱 높인다. 냉강설도 송신과 시를 겨룰 때 그의 재주가 형편없음을 알고 글로 송신을 조롱한다. 연백함과 평여형이 자신의 재주를 조롱한 글을 쓰자 산대와 냉강설은 시녀로 변장하여 그들을 시험한다. 이렇게 두 사람은 자신의 재주와 뜻을 펴는 데 주저함이 없으며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침없이 대항하고 굴복시킨다. 게다가 당인이 허락없이 옥척루에 올라왔을 때 산대는 매우 화를 내어 몹시 꾸짖고 황제의 이름을 들며 직접 금여의로 당인을 때리려다가 아버지 산현인과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화를 참는다.

127) “강설이 날오더 ‘만일 지조와 흑문이 희으리 디덕히 리 이시며 서방 마자려니와 만일 지죄업스면 비록 거인 진수와 황친국척이라도 원티 아닛는노라.’ 하니 냉대호 일로 인호야 글 잘흐는 사롬을 뉴 의호야 듯 보더니” 〈평산냉연〉, 권지삼.

가 매우 뛰어난 외모와 재주를 가졌다고 적극 추천하며 전해준 소우백의 글을 보고 자신도 글로 화답하고 혼인을 약속하는 것이다.¹²⁸⁾ 또한 자신에게 청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청혼자가 가져온 시나 글씨를 보고 가부를 결정한다. 아버지가 추천하는 이가 자신이 보기에 마땅치 않자 거절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은 이 의견을 존중해준다.

다른 여주인공인 노몽리는 배필을 정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어제 (누이가) 누상의서 우연히 인형의 아름다움을 보고 집히 스모흐니 소데 그 뜻을 잠깐 알고 인형을 만나 못고져 하더니 인형이 임의 정돈 곳이 이시니 원이 어디 못홀디라. 이러므로 니르디 말고져 호미니 오늘날 보든 일이 일물 브라미오. 타일의 못봄은 일이 미의 이디 못호야시니 다시 면목을 디호매 비록 형이 일러버 웃디 아니 하나 소데 홀로 막음에 붓그럽디 아니호라.¹²⁹⁾

위 장면은 노몽리가 소우백에게 청혼하는 장면이다. 누각에서 우연히 본 소우백에게 반한 노몽리는 남장을 하고 그의 앞에 나타나 자신을 노몽리의 쌍둥이 오빠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자신의 누이, 즉 자신이 전날 우연히 소우백을 보고 반하게 되었으므로 그 마음을 소우백에게 전하여 혼인을 이루게 하고 싶다고 청한다. 즉, 노몽리 자신이 상대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몽리가 소우백과 인연을 맺는 모습은 그녀가 남장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적극적이고 당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산냉연〉, 〈옥교리〉의 가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애정을 추구하는 인물이 〈구운몽〉에서 첩의 신분으로 양소유와 인연을 맺는 6명의 여성들이다. 이들은 양소유의 뛰어난 재능에 반하여 각자 자신들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자유롭게 양소유와 인연을 맺는다. 진채봉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약을 맺고, 계섬월은 기생이었지만 구혼하던 많은 사람들을 뿌리치고 양소유의 첩이 되기를 원했으며, 적경홍은 남장을 하고 양소유를 따르다가 계섬월의 주선으로 양소유와 인연을 맺었다. 심요연은 적국의 자객으로 양소유를 죽이러 왔다가 오히려 그에게 반하여 인연을 맺

128) 아버지 백현과 외숙부 오한림이 전해준 혼처도 같은 인물이었으나 그것은 나중에 밝혀진 일이며, 두 사람이 혼인을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는 언소를 통해 시를 주고 받은 후 서로의 재주를 흠모하여 언약을 맺은 일 때문이었다.

129) 〈옥교리〉, 권지이.

고, 용왕의 딸인 백능과도 자신에게 구혼하던 남해태자를 거절하고 양소유와 인연을 맺는다. 이들은 모두 각각 뛰어난 재주와 외모를 가지고 있어 못 사람들의 존경을 받거나 초월적이며 환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양소유가 뛰어난 인물이며 영웅이라는 이유로 스스로없이 자신들의 애정을 표현하며, 그에 대해서 크게 도덕적, 윤리적 가책을 받지 않는다.¹³⁰⁾

그러나 〈구운몽〉에서 적극적으로 애정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모두 첩으로 결연을 맺으며 이들은 대개 신분이 낮은 반면,¹³¹⁾ 부모의 뜻을 따르고 도리를 지킨 두 여인은 양소유의 정실 부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신분 또한 가장 높은 공주이다. 두 사람 중 먼저 예를 갖추어 양소유와 혼약을 맺은 정경패는 원래도 지체 높은 가문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소유와의 혼인으로 인해 공주로 신분이 상승된다. 양소유의 여덟 여인은 결말에 이르면 모두 형제의 의를 맺어 화락하며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실과 첩이라는 벽과 공주와 일반 여인, 혹은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다는 벽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¹³²⁾ 이렇듯 자유롭게 애정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발현하는 여성들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으나 실상은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의 시선을 통해 암묵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구운몽〉의 여성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애정을 추구하고 이것이 눈에 띄게 부정되지 않는 모습은 재자가인소설의 가인들과 유사하지만 은연중에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가 나타나는 것은 당시 우리 사회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선감의록〉에서 소극적이거나 애정을 추구하는 엄월화에 대한 작가의 시각도 〈구운몽〉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누이를 대신해 여장을 하고 엄송의 집에 들어온 윤여옥과 밤을 같이 보낸 엄월화는 윤여옥이 남자임을 알고 울며 자신의 신세를 한

130) “녀즈의 당부를 조차른 종신의 대식라 일싱 영욕과 고락이 돌녀시니 문군은 과뵈라도 오히려 상여를 조차시니 이제 나(진체봉)는 처즈의 몸이니 비록 스스로 둥인호는 혐의를 괴티아니호나 부녀의 절형의는 히롭디아니호고 허물며 이사람의 성명과 거쥬를 아디 못호니 부친과 취품호여 정호 후 둥뭇을 부리려 호면 동서남북의 어디가 츠즈리요” 〈구운몽〉, 권지일.

131) 적경홍과 계섬월은 기생이었으며, 가춘운은 양민의 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경패의 몸종에 불과하다. 심요연은 야만국의 왕이 보낸 자객이었으며, 백능과는 용왕의 딸이라고는 하나 사람으로 변하여 다시 양소유의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전쟁을 피해 변방에 있다가 온 여인이다. 진체봉은 양가의 여인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궁녀가 되었다.

132) “일일은 낭부인이 서로 의논호디 넷 사름은 즈미 여러히 호나라히서 셔방마자 쳐도 일침도 이시니 이제 우리 이처와 늑첩이 비록 각각 성이나 맛당이 현대 되여 즈미로 일크를 거시라 늑인이 감당치 못호노라 호고 춘운과 홍월은 더욱 고스호거늘 …(중략)…이후 늑인이 비록 명분을 디회여 감히 형데 칭호를 못호나 낭부인은 상시 즈미라 브르고 은인 더욱 극진호더라.” 〈구운몽〉, 권지사.

탄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바꾸어 윤여옥에게 자신을 아내로 맞을 것을 청한다.¹³³⁾ 이것은 〈현씨양옹쌍린기〉에서 윤혜빙이 겁탈을 당하자 자살을 시도하고 자신을 겁탈한 남성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이다. 그 후 엄월화가 윤여옥과의 일을 부모에게 이야기했을 때에도 부모들은 놀라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 크게 꾸짖거나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윤여옥은 뛰어난 인물이니 엄월화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위로한다. 그 후 엄월화는 집안이 몰락하여 떠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윤府와 연이 닿아 윤여옥의 첩이 된다. 물론 이때 작품 내에서는 엄월화가 역적의 딸이기 때문에 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부모의 허락 없이 남자와 연을 맺은 엄월화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인 태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엄월화의 모습은 〈구운몽〉에서 혼인 이전에 연을 맺은 여성들이 신분이 낮고 양소유의 첩이 되는 것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애정을 추구하는 여성의 모습은 점점 더욱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의 3번째 부인 여소저와 운명의 3번째 부인인 정소저는 집안의 지위나 권력 등에 의해 늑혼으로 蘇府에 들어온 인물이다. 매우 냉철하고 도덕적인 소현성이 다른 부인들에 비해 자신을 덜 애중한다고 느낀 여소저는 소현성의 애정을 얻기 위해 2처 석소저와 1처 화소저를 없앨 계획을 꾸민다. 이소저를 너무 애중하여 자신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 운명 때문에 투기를 일으키는 정소저도 계락을 꾸며 이소저를 없애고자 한다. 이 두 사람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계락이 탄로나 친정으로 쫓겨나는 모습도 역시 애정을 추구한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러한 시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갈등인 동시에 이 작품 전반에서 가장 큰 갈등으로 자리하는 소운성과 명현공주의 갈등은 명현공주가 운성에 대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학식 비사하고 형제 삼인이 즉시 입궐하여 오봉누하의 니르니, 이썩 쇼년진신의
하나도 낙후한 직 업더라. 명현공주 삼천 비빙을 거느려 늑혼 누상의셔 만도 쇼년진

133) “월화 울며 굶오되, 첩이 몸가지물 삼가지 못하야 문득 공주의 홀중에 썩러졌스니 죽은들 엇지 이 슈육을 씻스리요. 그러나 첩이 심규의 처즈몸으로 참아 창졸에 몸을 더러이물 밧지 못하리니 빌건더 군자는 타일 화촉지약을 머뜨르고 이제 비레로써 첩의 몸을 더러이지 마르소서.” 〈창선감의록〉, 320쪽.

상을 슬피니, 그 중의 옥면미풍이 더러 잇시나 주량반악의 호걸지풍이 업는지라. 너심의 인지 업스를 한탄호더니 최후의 삼위 쇼년지상이 드러오는 곳의 기증 최쇼흔 지 뒤히 완완이 드리오니, 용피 슈려호여 벽벽을 교탁호듯 괴상의 옹호호미 허학이 텃번의 비회호는듯 진짓 풍뉴 장부오 영웅군지라. 공쥬 한번 보미 너시 날고 혼이 스라지는지라. 급히 불너 왈, 진짓 나의 가랑이라. 호고, 주렴을 짓고 방울을 더지니 쇼리 정연호며 발서 운성의 스미의 드는지라. 학식 만심이 츄악호여 호더니, 텃지 운성의게 방울이 도라가믄 대회호샤 즉시 네부의 전지호여 툃일호야 운성으로 부마를 정호시니¹³⁴⁾

소운성에게는 이미 정실인 형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현공주는 신분을 내세워 형부인을 本府로 보내고 정실의 자리에 오른다. 그러나 운성이 자신을 멀리하자 명현공주는 운성의 애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갖가지 사악한 일을 도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성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명현공주는 운성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형부인을 죽이려하며, 시아버지인 소현성과 시할머니 양부인에 대한 욕을 하는 등 패륜무도한 악행을 저지른다. 이렇게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던 명현공주는 악행이 도를 더해가던 중, 병으로 일찍 죽고 그제서야 집안은 안정을 찾는다. 적극적으로 애정을 추구하던 인물이 蘇府에 가장 심각한 갈등을 유발한 악인으로 남는 것이다. 〈구운몽〉이나 〈창선감의록〉에서 애정을 추구한 여성들이 다소 부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던 것과는 달리 《소현성록》에서는 명확하게 여성들의 애정 추구를 부정하여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 玄府에 외부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악인인 임형아는 왕실의 여인이지만 비도덕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명현공주와 유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임형아는 혼인한지 3일 만에 남편이 죽자 과부로 살 수 없다는 이유로 도술을 사용하여 남편을 살리려다 남편이 괴물로 살아나자 버리고 달아난다. 우연히 현씨 형제를 보고 반하여 둘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한 임형아는 길을 나서던 중 만난 도적에게 위협당하자 몸을 허락하여 위기를 넘긴다.¹³⁵⁾ 임형아의 이러

134) 《소현성록》, 권지구.

135) “형이 저 귀신 곳튼 흥흥 놀의게 옥보방신을 더러이니...(중략)...슬프다 형이 몸이 천승지가의 나금지 옥엽으로 병든 소천을 비반호고 타인을 좃고혀 흥도 죽을 죄어놀 악대호 취한의 겁척호인 배되더 타연이 투싱호여 절강의 나아가 모도룩이나 도모호여 주시를 업시호고 제 현사인(현경문)의 부인이 되려호니” 〈현씨양옹쌍린기〉, 권지삼.

한 행동들은 당대 윤리관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 후 월청대사를 만나 모의하여 玄府와 주소저를 위기에 빠트리고, 현수문도 유혹하는 등의 사건을 벌이지만 결국 모든 계략이 밝혀져 죽음을 맞는다. 애정을 발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명현공주와 흡사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정절, 도리를 철저히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이다.

현경문의 副室인 육취옥은 위의 인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 그는 외사촌동생 주소저의 남편인 현경문에게 반하여 그와 혼인하고자 거짓으로 자신이 현경문에게 겁탈 당하는 상황을 만든다. 그러나 준엄하고 냉철한 경문에 의해 계교가 실패하자 등문고를 쳐서 황제에게 자신의 애정을 낱알이 고하고 현경문과의 혼인을 주청한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한 육취옥은 황제의 명에 따라 경문의 부실이 되었지만 남편의 애정을 얻지 못하는 부인들이 악인으로 표현되는 것과는 달리 다소 희화화한 인물로 묘사된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경문에 대한 애정을 꾸밈없이 나타내어 현경문과 주소저를 곤란하게 만드는데 하면 주변인들의 말에 잘 속아 계교를 꾸미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부정적이고 사악한 형태가 아닌 매우 희화화되어 있어 애정이나 욕망을 겉으로 내보이는 인물의 또 다른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소설에서도 재자가인소설과 마찬가지로 애정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17세기 작품에서는 이들의 모습이 표면적으로라도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부정적으로 그려지며, 중국에는 악인이나 희화화된 모습으로만 묘사되고 있다. 게다가 똑같이 애정이나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에 따라 악행의 정도와 그 결과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운몽>에서 여섯 명의 첩과 엄월화 등은 첩의 신분이지만 자신이 원하던 사람과 인연을 맺고, 여소저, 정소저 등은 出府되는 정도로만 끝나는 반면 명현공주, 임형아는 죽음을 맞는다. 애정을 발현하는 것은 같으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남성들이 이들의 애정을 용인하느냐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운몽>의 6첩과 엄월화는 양소유, 윤여옥과 인연을 맺을 때 남성들이 이들의 애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원했기에 이루어진 인연이었다. 따라서 비록 첩의 위치라도 인연을 이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투기하는 부인으로 설정된 여소저와 정소저는 늑혼기에 첩으로 인연을 맺은 위의 인물들보다 애정의 정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남성들에게 애정을 얻고 집안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악한 행동을 일으킬 여지가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여소저나 정소저는 비록 남성들의 애정이 없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윤리적인 제제가 없는 관계이므로 그들의 질투로 인해서 벌어지는 갈등은 침례하지 않고 금방 마무리된다.¹³⁶⁾ 육취옥은 남편인 경문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지만 천자의 승인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육취옥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도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그려지는 것은 물론 회화화되어 웃음을 자아내며 빠르게 해결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도 조롱을 받는 것에 그치고 나중에는 경문의 아이까지 낳아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임형아나 명현공주의 경우는 남성들과 혼인을 맺는, 혹은 맺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미 도덕적이나 윤리적, 이데올로기 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여건인데다가 남성들 역시 이들에게 애정을 느끼기는커녕 부인으로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혹은 재물에 대한 그들의 욕망은 건잡을 수 없이 커져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러 결국 천하의 ‘악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죽음을 맞게 된다. 물론 작품에서는 명현공주나 여소저, 정소저, 임형아 등이 악인인 이유를 원래 인물의 성정이 좋지 않거나(명현공주, 여소저, 임형아 등), 전생에서의 인연 때문(정소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애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숨김없이 발현한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성의 애정이나 개인 욕망의 발현은 남성들이 받아들이거나 긍정적으로 보아야 미약한 위치에서라도 이루어지며, 만약 남성들이 거부할 경우에는 철저한 악인으로 낙인찍혀 비참한 결말을 맺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소설내에서 여성들이 철저하게 남성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인물들도 애정 추구형과 도덕 추구형이 있었던 것처럼 여성 인물 중에도 도덕이나 명교를 매우 중시하는 인물이 있다. 〈호구전〉의 수빙심은 名敎를 매우 중시하는 인물로 매사에 신중하고 매우 지혜로우며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도덕만을 앞세우는 인물이다. 과거조가 수빙심과 혼인하기 위해 갖가지 계교를 사용하나 수빙

136) 〈사씨남정기〉의 교씨는 단순히 원비에 대한 질투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후사를 결정짓는 계후 문제까지 개입하여 한 가문을 몰락위기에까지 처하게 한데다 동청과 사통하고 사람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심은 냉철한 판단과 재치, 지혜로 위기를 슬기롭게 모면한다. 수빙심의 도덕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은 자신의 은인인 철중옥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하여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 치료하면서도 얼굴 한 번 제대로 대면하지 않는 정도여서 염탐했던 관리가 감동할 정도이다.¹³⁷⁾ 주변에서 철중옥과의 혼인을 권유하자 혼인 전에 인연이 닿았으므로 친구 이외에는 될 수 없다며 혼인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반동 인물들의 계교와 그로 인한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혼인했을 때에도 자신들의 혼인이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명교를 지켜야 한다며 합방을 하지 않는다. 후에 모든 일이 밝혀져 천자가 윤리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증언한 후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다시 혼인을 올려 부부의 연을 맺는 등 두 사람은 도덕과 명교에 따른 생활을 매사에 강조, 실천하고 있다.

수빙심만큼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구운몽〉의 정경패, 난양 공주와 〈창선감의록〉의 윤옥화, 남채봉도 매우 도덕적인 인물로 남편의 애정이나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사회적 윤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일이 거의 없이 부모의 뜻에 순종한다. 간혹 자신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부모와 남편, 가정을 위해 도덕적으로 현명한 길이기 가능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도 반드시 예를 지키고 결코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 없다. 난양 공주는 자신과 양소유와의 혼인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정경패를 황후에게 추천하는 한편¹³⁸⁾ 정경패가 황후의 양녀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정실 부인이 된 이들은 양소유의 영웅적인 면모와 다른 여성들의 뛰어난 모습을 보고 그들을 모두 양소유의 배필로 인정하며 주저없이 다른 여성들을 그의 배필로 추천하기도 한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늘 6처들을 배려하여 그들과 화합하고자 애를 쓴다.

윤옥화와 남채봉은 시어머니인 심부인이 학대해도 참고 견디며 갈등을 조용히 풀

137) “선우 왈, ‘그 다음의 난 학문을 강마하고 성현을 의논하야 술 마시며 말하기의 한동안 경점이 지나니 천언만어를 쇼인이 선후 업시 옮기나이다. 도모지 공경페디할 뿐이요, 한탄 음스 한 글즈와 한 점 도두난 뜻은 전여업스니 진기 노남즈 유호해 세상의 닛터니다.’…(중략)…현존이 실정인 줄 알고 탄복하야 이로디 ‘뉘라서 고금 스롭이 서로 갖지 못하디 하든고, 저 철공즈 의괴남자와 슈조저 의기 녀즈를 니 맛당이 표양하리로다.’” 〈호구전〉, 권지이.

138) “소네 드르니 덩시 녀지 얼굴 지조와 덕이 넷 사롭의게 느리지 아니리라 하니 진실로 그러홀진디 절노 더브러 비견하미 모습 혐의 이시리잇고. 비록 그러하나 견문이 실상의 디나기 쉬우니 소녀의 뜻의는 아모길노나 덩녀를 보아 용모지덕이 소녀의게 디나면 맛당이 몸이 못도록 우러러 섬기려니와 만일 고견이 소문과 7디 못하량이면 첩을 삼으나 종을 삼으나 낭낭 임의로 처티호소서.” 〈구운몽〉, 권지삼.

고자 노력한다. 또한 조월향이 정실이 된 후 자신들을 괴롭혀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갈등을 일으키거나 나쁜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자신이 희생하여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도 보여준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부모와 가족을 위하는 모습은 범한의 계교 때문에 조문화의 아들과 강제로 혼인해야 할 위기에 빠진 진채경이 혼인을 허락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진채경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할 뜻을 밝힌 후 부모를 먼저 피신시키고 자신도 남장을 하고 도망간다. 그 와중에도 진채경은 자신이 도망하는 처지가 된 이상 윤여옥의 아내가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윤여옥인 것처럼 하여 백경의 누이를 윤여옥의 아내로 맞도록 일을 꾸민다. 이것은 〈옥교리〉에서 노몽리가 남장하여 소우백에게 청혼한 것과 흡사한 에피소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몽리는 자신의 애정을 과감하게 표현한 것이고 진채경은 자신이 혼인할 수 없게 되자 대신 다른 사람을 정혼자의 배필로 천거하여 도덕적 도리를 다하려 했다는 것이므로 의도와 그에 담겨있는 의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소설에서는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을 악인화하고 벌을 받게 하는 반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상이나 복을 내려 이를 권장하고 있다. 《소현성록》의 양부인과 석부인, 형부인, 이부인 등은 모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상화 된 여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양부인은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아버지의 역할까지 맡아 집안을 이끌어 가면서, 자녀들이 애정을 받거나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항상 경계한다. 양부인의 이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딸인 교영이 사통했다는 이유로 직접 사약을 내려 죽인 사건이다.

부인(양부인)이 듯기를 다흐미, 녀의 형실을 씨다라 발연대로호여, 좌우로 교영을 불너 당하의 쏘니고 슈죄 즐칙 왈, 네 타향의 적거호여 실절호니, 부모와 조선의 욕이 밋고 소시명절을 쉼바리니 기리 죽으미 가호지라. 세상의 불초녀오 구가의 더러운 계집이라. 텃디의 용납지 못호리니, 금일 모녀의 정을 쫓쳐 일기 독약을 주느니 먹으라. 내 쏘호 하면목으로 사라 인류의 충슈호리오.¹³⁹⁾

이 사건은 윤리, 도덕, 특히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정절을 강조하여 집안을 잘 다스리고자 한 양부인의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139) 《소현성록》, 권지일.

엄정한 양부인은 자손들이 모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음을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가문을 최고의 위치에까지 올려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지극한 복을 누린다. 소현성의 2차이자 모범적인 부인과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석부인도 결국 복을 받아 화부인과 같은 위치에 오르고, 아들인 윤성이 왕으로, 딸인 수주 소저가 황후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예와 윤리를 엄정히 지키고 사회와 남편에게 순종하며 자신의 도리를 다하면 결국 복을 받는다는 사상적 배경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는 〈호구전〉의 주소저처럼 극단적인 도덕을 보여주면서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인물인 주소저와 윤소저가 등장한다. 재주와 외모가 뛰어난 주소저는 남편 현경문이 자신에게 냉담하고, 자신의 부모를 경박하다는 이유로 경멸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현경문과 작품 내내 갈등한다. 보통 남편의 생각을 따르는 여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주소저는 경문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 굽히지 않고 경문과 대립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주장하던 끝에 추운 겨울에 문 밖에 서 있기도 하고, 마주칠 때마다 말다툼을 벌이는 등의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현경문이 부친에게 태장을 당해도 이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또한 현수문에게 강제로 겁탈 당한 윤소저는 수문과의 늑혼을 피하기 위해 추녀인 귀형녀를 자기 대신 수문과 동침하게 하고, 자신을 추격하는 현수문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자신의 교자에 태우는 등의 기지를 발휘하며 현수문에게 저항한다. 이들의 대립과 갈등은 악인과 선인의 대립처럼 윤리적으로 부당한 것이 아니기에 그 갈등은 더욱 첨예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결말에 이르면 주소저와 윤소저는 모두 시아버지인 현택지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고 순종적인 여성으로 화하여 가정에 머무르게 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존경받는 여인이 되어 복을 누린다.¹⁴⁰⁾ 당당하게 자신들의 논리를 펴고자 했던 주소저나 윤소저도 모두 결국은 남성들이 세운 준거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남성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인물들도 애정 추구형과 도덕 추구형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재자가인소설에서는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반면 우리 소설에서

140) 이지하에 따르면 “〈현씨양옹쌍린기〉에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로 남편보다 우위를 확보하던 주소저는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집안의 주도적 인물로 그려지지 못하고 단지 자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상징적인 존재, 즉 성덕과 정숙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부덕의 대표자로 변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 주장을 당당히 펴던 이들도 결국은 가부장제에서 순종하는 여성으로 정형화되고 있다. 이지하, 앞의 글, 50쪽.

는 두 유형의 인물들이 한 작품에서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또한 재자가인소설이나 〈구운몽〉에서는 혼인 전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애정의 추구나 욕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형상화 되고 있으며, 〈창선감의록〉이나 《소현성록》, 〈현씨양옹쌍린기〉에서는 혼인을 한 여성이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자기 주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재자가인소설과 〈구운몽〉의 여성들이 유사한 모습으로 애정을 추구하고는 있으나 재자가인소설의 여성들이 애정 추구나 자기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소설보다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산냉연〉에서 나타난 산대와 냉강설의 모습은 우리소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소 부정적인 모습의 여성들이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시를 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허락 없이 樓에 올랐다고 직접 상대를 때리려 하는 모습이나 재주가 없는 남성들을 조롱하는 모습 등은 매우 당돌하고 교만하게 비추어질 정도이지만 황제와 부모를 비롯한 주변에서는 그들의 재주가 뛰어나다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 소설의 여성들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그것을 쉽사리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다만 대화나 평소의 행동에서 은연중에 비추는 것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인척일지라도 다른 남성과 얼굴을 맞대는 것을 매우 꺼려하며, 글을 짓거나 그림을 그려도 가족내에서만 공유할 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약 어떤 여성이 다른 남성과 시나 그림을 공유하거나 얼굴을 마주하면 대개 그 상대 남성과 가연을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 소설에서 산대나 냉강설과 같은 성향을 가진 여성들은 소설 내에서 주로 갈등을 일으키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 교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재자가인소설에서 가인들의 주장이 별다른 제약 없이 남성들과 비슷한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달리 우리소설에서 여성들의 자기 주장은 남성들이 허용할 수 있는 내에서의 주장이며, 그 선을 넘어섰을 경우 악인이 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폄하된다. 게다가 재자가인소설에서 여성 악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재자가인소설에서 재자와 가인의 혼인을 방해하는 인물들은 모두 남성 인물들이고, 여성들은 주로 인연을 돕는 쪽의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 소설에서는 여성 악인이 상당수 등장하며, 《소현성록》이나 〈현씨양옹쌍린기〉에서는 여성 악인의 비중이 남성 악인의 비중보다 월등하게 높다. 그리고 악인으로 나타나는 여성들의 모습은 모두 도덕이나 윤리보다는 개인적 욕망이나 애정을 추구했을 경우이다. 남성들의 애정이나 욕망은

겉탈이나 일방적 애정 추구도 긍정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자유로운 반면 여성들이 애정을 추구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도덕 윤리에 적합한 상황에 대해서 다소나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여성들의 모습도 종국에는 남성들이 세운 가부장적 논리와 이상형에 걸맞는 여성상이라는 틀에 갇히게 된다.

V. 중국 재자가인소설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소설의 독자성

중국 재자가인소설인 〈옥교리〉, 〈호구전〉, 〈평산냉연〉과 우리 소설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현씨양옹쌍린기〉를 모티프, 배경, 인물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각 작품을 모티프로 비교한 결과 재자가인소설과 우리 소설은 주로 장면의 제시나 작은 에피소드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녀가 애정을 발현하는 모습, 시를 매개로 하여 남녀가 만나 인연을 맺는다거나 異性으로 변장하는 모티프, 한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과 혼인하는 一夫多妻의 모티프 등은 대상 작품의 대부분에서 나타났다.¹⁴¹⁾ 그리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혼인을 올리게 되는 늑혼 모티프도 본고에서 다른 작품 모두에 등장하는 모티프였다. 다만 〈평산냉연〉에서는 황제가 강제로 짝을 지어주기 이전에 이미 황제의 의도와 맞게 재자가인들끼리 혼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늑혼에 대한 갈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소설에서는 늑혼이 매우 심각한 갈등 요소로, 〈호구전〉의 수빙심과 〈현씨양옹쌍린기〉의 윤소저의 경우 작품 내내 늑혼의 위협으로 인한 갈등과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구운몽〉, 〈소현성록〉에서는 늑혼을 거절하여 주인공이 감옥에 갇히거나 변방으로 소임을 받고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옥교리〉에서는 혼담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인공의 아버지인 백현이 오랑캐 지방으로 소임을 받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우리 소설의 경우, 이런 사건을 거친 후 강제로 혼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 혼인으로 맺어진 인물이 집안 내 분란을 일으켜 가문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는 상황도 발생한다. 혼인과 관련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재자가인소설과 우리 소설 모두 혼인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자신의 재주를 발현하는 모티프도 재자가인소설과 우리 소설에서 함께 발견되는데, 특히 〈호구전〉의 수빙심이 과기조와의 늑혼을 지혜로 극복하는 모습과 〈현씨양옹쌍린기〉에서 윤혜빙이 현수문과의 늑혼을 피하기 위해 기지를 발현하는 모습은 매우 유사하다.¹⁴²⁾ 〈현씨양옹쌍린기〉의 주소저도 남편인 현경문과 비

141) 異性으로 변장하게 되는 동기가 재자가인소설이나 〈구운몽〉의 경우는 흠모하는 상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거나 異性에게 접근하기 위한 것인 반면, 그 외 우리소설에서 異性으로 변장할 때는 당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책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동기는 다르지만 그 해결책으로 異性으로 변장하는 모티프가 등장하는 것은 재자가인소설이나 우리 소설이나 유사하게 나타나는 점이다.

142) 박영희는 《소현성록》에서 위선화의 계모 방씨가 위선화와 소운경의 혼인을 방해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장하고 피신한 위선화의 모습이 교묘한 기지로 과기조의 늑혼을 극복하는 〈호구

슷한 정도의 능력을 보이다가 전장에서 도술의 힘을 빌려 위기에 처한 현수문 형제를 결정적으로 돕는 한편, 현경문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는 등의 뛰어난 능력과 재주를 보여주고 있다.¹⁴³⁾

다른 우리 소설들에 비해 특히 〈구운몽〉과 재자가인소설과의 비교에서 유사한 모티프가 다수 발견되었다. 우선 작품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외동아들·외동딸이거나 형제가 있더라도 그 수가 하나, 둘 정도로 매우 적고 형제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점 등이 유사하다. 그리고 작품의 서두에서 시·공간적 배경에 대해 서술하거나 개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대신 부모나 형제, 가문에 대한 소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도 이들 작품에서 흡사하게 나타는 장면이다.¹⁴⁴⁾ 또한 재자가인소설과 〈구운몽〉의 인물들 중 상당수가 부모 중 한 명이 없거나 부모가 아예 없으며, 특히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인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재자가인소설과 우리 소설에서 유사한 모티프가 발견되는 반면, 우리 소설에서만 볼 수 있는 모티프도 있어 작품의 내용이 유사하게 전개되어도 우리 소설만의 독특한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앵혈은 우리 장편 소설 대다수에 등장하는 소재로¹⁴⁵⁾ 여자가 어렸을 때 팔에 찍어서 처녀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표시이지만, 그 외에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역할도 한다. 〈소현성록〉에서는 집안 어른들이 석소저의 앵혈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부부가 동락하지 않음을 걱정

전〉의 수소저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박영희(1998), 앞의 글, 199~200쪽.) 그러나 위소저는 단순히 아버지인 위공이 남긴 유언에 따라 남장하고 피신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후에는 嫗家인 蘇府의 비호를 받는다. 그러나 수소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지혜를 짜내어 여러 가지 계교를 통해 늑혼을 피하고, 후에 철중옥이 도움을 준다 해도 결국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극복해 나간다. 이러한 수소저의 모습은 위소저의 모습보다는 〈현씨양옹쌍린기〉에서 역시 현수문의 늑혼을 피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윤소저의 모습과 유사하다. 게다가 수소저와 윤소저가 짜낸 계교 중 교자에 다른 사람(물건)을 태우거나, 다른 사람을 자기 대신 늑혼을 강요하는 남성과 혼인시키는(수소저 - 향고, 윤소저 - 귀형녀) 이야기는 거의 흡사하다. 따라서 《소현성록》의 위소저보다는 〈현씨양옹쌍린기〉의 윤소저가 〈호구전〉에서 수소저의 모습과 더 유사하다.

143) 다만, 재자가인소설의 여성들은 시나 글을 뛰어난게 잘 짓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재주를 발현하는 모습이 남성들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우리 소설의 여성들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나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차이가 있다.

144) 〈옥교리〉는 다른 재자가인소설과는 다르게 서두가 나타나고 《소현성록》의 서두와 유사하다. 이에 관해서는 3장에서 자세하게 서술했었다.

145) 우리 소설에서는 동침의 여부를 여성의 팔에 찍힌 주표를 통해 확인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 반면, 〈호구전〉에서는 철중옥과 수병심이 동침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황후가 직접 수병심을 데려가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재자가인소설에는 ‘앵혈’의 개념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다가 석소저의 앵혈이 사라진 것을 보고 기뻐한다. 또한 혼인 전 만남과 액운 때문에 혼인 후에도 소운명을 멀리하는 이소저는 앵혈이 남아있는 것이 집안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녀의 도덕성과 성품에 대해 칭송을 듣는다.

이렇듯 여성들이 자신의 정조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여성의 도덕성에 대한 상징으로 평가받는 앵혈은 다른 상황에서는 부부갈등이 주변으로 확장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씨양옹쌍린기〉의 현경문과 주소저의 경우 집안 사람들은 주소저의 주표가 남아있음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짐작하며, 주어사 부부는 사위가 딸을 박대한다며 사위를 미워하고 경망한 행동을 하여 사건을 일으킨다. 주어사 부부의 이러한 행동은 현경문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부모를 경멸하는 현경문의 태도는 주소저와 대립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는 인물의 眞假를 확인하는 장치로도 앵혈이 사용된다. 임형아가 가짜 주소저 행세를 하자 현경문은 알아채고 임형아의 앵혈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는데, 주소저는 아직 현경문과 동침하지 않았으므로 앵혈이 있었지만 임형아는 이미 혼인했던 몸인데다가 오는 길에 도적에게 겁탈을 당했기 때문에 앵혈이 없었다. 현경문은 이를 눈치채고 임형아에게 앵혈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녀의 팔에 앵혈이 없자 직접 앵혈을 찍으려 하지만 앵혈은 찍히지 않고 흐르기만 한다.

앵혈은 여성의 정조에 대한 상징이나 부부갈등의 원인 등의 다소 진지하고 무겁게 설정되기도 하지만, 남성의 팔에 찍혔을 경우에는 앵혈이 유희의 수단이 된다. 앵혈이 찍힌 남성들은 ‘앵혈이 찍혔으니 남자가 아니다’라는 놀림을 받고 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 〈소현성록〉의 소운성은 석파에 의해서 앵혈이 찍히고 놀림을 받자 이에 분개하여 석파의 먼 친척인 소영을 겁탈하여 앵혈을 지우고 만족해한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는 오랫동안 주소저와 화락하지 못하는 현경문을 놀리기 위해 숙부인 장시량이 그의 팔에 앵혈을 찍고, 주변에서는 이를 조롱한다. 자신의 팔에 앵혈이 찍힌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던 현경문은 주소저와 강압적으로 동침한 후 앵혈이 없어지자 “이리 업시키 쉬운 거술 그리 오리 신변의 머물위 장부의 풍치 업듯 던고”라며 기뻐한다.

이렇듯 앵혈은 여성의 도덕성 강조, 인물의 진위 확인, 남성을 놀리기 위한 소재 등의 여러 가지 용도로 소설 내에서 사용되었으나 결국은 여성들에게 정절을 강조하는 당대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소재이다. 앵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때

문에 목숨까지 거는 여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남성들은 앵혈이 찍힌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없애기 위해 겁탈까지 서슴지 않는다. 여성에게만 정절을 표시하는 앵혈을 찍게 하고 이것이 남성에게 찍혔을 경우 놀림거리가 되는 모습은 당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소설에서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또 다른 모티프는 겁탈, 혹은 남편의 요구에 의한 강압적인 동침 모티프이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 현수문은 우연히 만난 윤혜빙에게 반하여 장씨 형제와 설구에게 부탁하여 윤소저를 겁탈하는데, 이 때 당사자인 현수문은 물론 중간에서 도와주는 이들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게다가 현수문의 정실인 하소저는 현수문이 재취할 뜻이 있음을 이야기하자 “이는 첩다려 무르실 비 아니라 드러오는 녀지 현숙홀진디 화동호기 쉬울지라. 첩은 친당의 형데 번성하다가 이 곳의 와 안향이 격막하고 구고 감지의 불민호미 만흐니 어진 녀지 드러올 진디 이만 것부미 업술가 호느니이다.”라며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¹⁴⁶⁾ 부모를 찾은 후 윤府에 머무르고 있는 윤소저를 다시 한 번 찾아가 겁탈한 현수문은 윤소저와의 혼인을 요구하는데, 윤府에서는 이를 순순히 허락한다. 또한 윤소저가 현수문과의 혼인을 거부하고 종적을 감추었을 때 현수문은 오히려 윤소저를 부덕한 인물이라고 책망하며 매우 화를 내고, 윤시랑 부부와 그 형제들에게 윤소저를 찾아내라며 불손한 행동을 한다. 그러나 적반하장격인 현수문의 행동은 모두 용인되고 현수문이 윤소저를 겁탈한 것보다 윤소저가 도망간 것이 더 큰 죄로 자리한다. 결국 윤소저가 현택지의 교화를 입고 현府에 돌아와 현수문과 화락하는 두 사람의 결말은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다.

〈창선감의록〉의 윤여옥은 비록 겁탈을 한 것은 아니나, 엄월화와 동침하기를 요구하고 함께 자리에 들었을 때 자신의 여장을 이용하여 엄월화를 희롱한다. 비록 직접적인 겁탈은 아니었지만 혼인 전 정절을 매우 중요시하는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윤여옥의 행동은 겁탈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엄월화 역시 이를 알기에 윤여옥에게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청한 것이다.¹⁴⁷⁾ 이렇게 남성들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애정을 발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이를 거부하기는커녕 자신의 의견을 발하기도 힘들

146) 〈현씨양옹쌍린기〉 권지이.

147) 〈창관호연록〉에서 장희는 여장을 하고 들어간 政敵의 집에서 정혼자인 한친회를 만나 우연치 않게 손을 잡게 되고, 이 사건은 작품 내내 장희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옥원재합기연〉의 소세경과 이현영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다.

다. 게다가 이러한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사회는 남성의 편을 들어주고 자신을 겁탈한 남성과 혼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말이라며 여성에게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하고 있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가 《소현성록》에서 소운성과 소영의 관계이다. 소운성은 단순히 자신의 앵혈을 없애기 위해 소영을 겁탈하는데, 이에 대해 죄책감은커녕 앵혈을 찍은 석과에 대한 보복이라고만 생각한다. 이를 안 석과도 소운성의 행동에 어이없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영에게 “네 그런 장부를 구하려 하여도 쉽지 아니하니 십여세 쇼의 전정이 머러시미 나흔는디로 용심말고 이시면 선처하리라.”¹⁴⁸⁾ 하며 소영을 달랜다. 후에 석과의 건의에 따라 소운성은 소영을 첩으로 맞지만, 소영을 애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소운성이 소영을 겁탈한 것이 현수문이나 윤여옥처럼 애정을 발한 것이 아닌 앵혈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애정을 위한 것이었던, 장난을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혼인 전에 겁탈을 당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 채 상대 남성과 화락해야 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당대의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에 희생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異人이 등장하거나 異界가 설정되어 작품 내내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재자가인소설보다는 우리 소설에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월적인 인물이나 공간 등은 우리 소설에서 주로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거나, 앞일을 예언하여 주인공이 올바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술이나 무술, 병법 등을 가르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비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초월적 존재의 개입은 善人들이 고난을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요 인물들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¹⁴⁹⁾

148) 《소현성록》, 권지팔.

149) 군담 모티프도 재자가인소설보다 우리 소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싸우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단지 싸움에 대해 언급만 되기도 하는 등 그 표현 양상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군담 모티프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소설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삽입되어 있다. 군담은 우선 주인공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군담이 발생하여 주인공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집안에서 일을 도모하여 사건이 해결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군담은 새로운 사건을 발생하게 하는 계기도 되는데, 가장이 집안을 비운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집안 내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악인이 음모를 도모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 중에 새로운 인물을 만나 또 다른 사건의 시작 되는 계기도 제공하는 것이 군담이다. 우리 소설 중 장편 소설에서의 군담은 군담 자체보다는 이러한 양상으로 사건의 전환점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재자가인소설에서는 군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이것은 남녀간의 만남과 결혼에 있어서 군담이 큰 의미가 되지 못하는 한편, 〈삼국지연의〉나 〈수호지〉 등의 본격적인 군담 소설이 장르를 형성하여 성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

혼인의 과정을 다루면서 그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그리고 재자와 가인의 혼인으로 마무리 되는 재자가인소설에서는 개인의 애정 발현이 자유롭게 드러나고, 가족이나 주변의 생각보다는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재자와 가인에게 일어나는 사건 또한 혼인과 관련하여 미미하게 일어나는 반동 인물의 방해나 엇갈림 등에 불과하여 개인의 노력이나 주변 인물들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현실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논리들이 작용하고, 환상적인 모티프나 소재들이 개입할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우리소설에서는 혼인 전보다는 혼인 후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7세기 소설인 〈구운몽〉에서는 혼인 전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같은 17세기 작품임에도 〈창선감의록〉이나 《소현성록》에는 혼인 후 가족, 가문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더 지배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18세기 소설에 가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바 〈현씨양옹쌍린기〉의 경우에는 발단에서 주인공의 소개 이후 바로 혼인한 두 형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 혼인 후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⁰⁾ 혼인 후 새롭게 형성된 가족 관계에 대한 갈등에 주목하고 있는 점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부부 당사자간의 갈등과 옹서 갈등이 작품 전체에 두루,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¹⁵¹⁾ 특히 옹서갈등은 우리 장편소설에서만 나타나는, 본고에서 다른 작품 중에서 본격적인 옹서갈등은 〈현씨양옹쌍린기〉에서 현경문과 주어사 부부의 갈등이다. 주어사는 경박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학식이나 덕망 등 모든 면에서 사위인 현경문보다 부족한 인물이다. 게다가 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극진하여 딸을 박대하는 사위를 미워하는 한편, 딸의 행복을 위한다며 경망스러운 행동을 한다. 주어사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이성적이고 냉정한 현경문의 비웃음을 사게 되고, 주소저는 자신의 부모를 경멸하는 현경문과 대립한다. 이 갈등은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데, 특히 후부인이 영월의 계교에 빠져 현경문은 물론 그 부모까지 욕을 하고 패악을 부린 일로 인해 현경문이 주소저에게 칼을 주며 죽음으로 어머니의 죄를 갚으라는 부

다. 한편 우리 나라 소설에서 나타나는 군담도 〈삼국지연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정규복, 앞의 책; 이상익, 앞의 책 등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150) 역시 18세기의 대하소설인 〈창랑호연록〉, 〈옥원재합기연〉, 〈유씨삼대록〉 등에서도 혼인전의 남녀간의 관계보다는 혼인 이후에 가문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더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151) 부부갈등이나 옹서갈의 경우 선악이나 도덕, 비도덕을 판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의 치열한 갈등이 작품 내내 계속되고, 미완의 경우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분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소제 또 부모의 불화하미 조가의 죄라 침석의 테읍하더니 총지의 글이 왔시를
듯고 마지 못하여 피봉을 찌히미 문득 혼 줄 은빛치 니러누며 프른 놀이 섬삭하니
소제 이를 보미 문져 밋음이 노르온지라. 기셔의 왈 ‘...생략...이제 영조당은 출언이
인륜하시고 특별이 오상하여 스스로 조과 가중 만정치 하여도 오히려 죽흔거시어늘
현경문은 엄군과 엄부와 엄스와 엄형이 겨시니 후부인 교제하미 아니라도 또한 정
엄 주선심을 스슬치 아닐거시어늘 멸륜망상지언으로 심의 이변을 놀내고 찍려흔 언
식지존을 침범하니 맛당이 유스의 고흐고 룰던을 상고홀거시로되 프리를 노하여 장
부의 위의를 손너지못홀지라. 유유범범하거니와 다만 그되 여츠난안흔 형세를 당하
여 구츠히 인세를 탐년하미 불가하니 이 같은 심의 소익지물이니 오히려 구경을 가
익하여 보느니 썰니 죽어 써 금후세를 징계하고 또 나의 녀를 쓴흐라 만일 지지
하미 이실진디 별단거죄이시리니 형혀 광망하를 고이히 너기지 말고 구툰의 도라가
나의 조의 모친을 원하코 심을 한치말라. 152)

칼을 주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어머니의 죄를 대신하라는 현경문에 말에 주소저
는 실신까지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준 몸이기에 함부로 죽을 수 없다는 답서를 보
내어 현경문의 명을 거절한다. 현경문이 애증하는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죽음까지 종
용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은 후부인이 자신의 부모를 욕했기 때문에 용서
할 수 없다는 현경문의 효성과 부모를 경멸하는 남편을 따를 수 없으며, 효를 다해
야한다는 주소저의 갈등이 심각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이렇듯 주어사 부부와 현경문
의 갈등은 다시금 현경문과 주소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 부부갈등이 다시 용서
갈등으로 연결되는 등 맞물려서 계속 발생한다.¹⁵³⁾ 이 갈등은 주소저의 해산을 통해
표면적으로 마무리 되는데, 갈등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부분이 없기에 실상은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152) 〈현씨양옹쌍린기〉 권지칠

153) 이러한 용서갈등은 같은 18세기 작품인 〈창란효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바 이 작품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발현된다. 하나는 한공과 장희의 경우로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한 政敵인 한공의 딸
과 혼인한 장희는 이 관계 때문에 작품 내내 장인 및 아내와 대립하고, 이 때문에 아버지인 장공에
게도 늘 꾸중을 듣는다. 이 대립은 결국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미진하게 마무리 된다. 다른 하
나는 이공과 장우의 경우인데, 아내를 박대하고 다른 여인을 사랑한 장우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공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 대립도 작품 내내 계속되다가 천정연이라는 이소저와 장우의 관계와 화
해를 통해 해결된다.

부부 갈등이나 용서 갈등은 혼인 후의 이야기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 재자가인소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론, 17세기 소설에서도 미약하게 나타나다가 18세기 소설에 이르면 부부 갈등과 용서 갈등이 작품 내 갈등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의 중심 갈등으로 자리잡게 된다.¹⁵⁴⁾ 또한, 一夫多妻 모티프는 재자가인소설이나 우리 소설에서 둘 다 나타나지만 一夫多妻로 인한 갈등, 즉 처첩갈등이나 계모가 전처 소생을 박대하는 이야기 등은 재자가인소설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역시 혼인 후 새롭게 맺어진 가문, 가족들이 화합, 화락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당대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소설에서는 가족, 가문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게 되고, 인물들 또한 개인의 욕망보다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물들의 애정 발현과 관련한 사건들로, 특히 남성 인물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17세기 소설에서는 남성들의 애정 발현은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여러 여성들과 인연을 맺으면서도 그에 대한 윤리적 제재가 없다. 오히려 능력있고 뛰어난 남성으로 인식되는 한편, 여성들도 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일부다처를 희망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재자가인소설에서 재자들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재자가인소설이 계속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반면, 우리 소설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애정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발견된다. 비록 인연을 맺을지라도 별을 받거나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인물들의 애정발현은 이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17세기 소설에서는 표면적으로나마 여성들이 먼저 애정을 발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18세기 소설에 이를수록 여성들의 애정 발현은 악인이나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남성들의 애정 발현이 작은 사건에서 끝나고 이를 가문에서 받아들이는 반면, 여성들의 애정발현은 그 여성이 속한 가문은 물론 더 나아가 나라까지 혼란에 빠트리는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집단의 윤리를 강조하고 개인의 애정을 가로막는 한편, 남성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모습은 17세기 이후 가부장이 중심이 되는 가문을 중시하는 당대의 지배적 이념이었던 주자학적 논리가 소설에 적용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

154)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18세기 작품인 <현씨양옹쌍린기>를 비롯, <창란호연록>, <옥원재합기연> 등에서도 부부 갈등과 용서갈등이 작품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다.

이렇게 혼인 후의 이야기와 남성 이데올로기를 중요하게 다루는 우리 소설의 모습은 중국 소설과 우리 소설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편, 우리 소설에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¹⁵⁵⁾ 개인성을 중시하는 재자가인 소설에서는 집안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인물들도 가문이나 집안보다는 개인의 욕망에 더 충실하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거의 동등하거나 더 뛰어나게 묘사되어 있으며 사고방식이나 행동도 남성들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우리 소설도 초기 소설에서는 집안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고뇌나 욕망에 더 집중하고, 남성들과 비슷한 여성들의 모습도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시대가 흐를수록 가문의 유지와 영달에 관심을 두게 되고, 소설에서도 이러한 성향이 반영되는 바, 17세기에 나타난 장편 소설에서는 〈구운몽〉에서처럼 개인 애정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창선감의록〉이나 〈소현성록〉에서처럼 집안의 문제를 다루면서, 개인을 강조하는 모습과 가문을 강조하는 모습이 공존하여 소설에 나타난다. 여성들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과 도덕을 지키며 남성들에게 순종하는 여성의 모습이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면서부터는 개인보다는 혼인과 부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향의 소설이 등장한다. 이 시기의 소설에서는 개인적인 갈등보다는 주로 부부 갈등을 보여주면서, 서로 다른 가문의 사람이 만나 한 가문을 어떻게 유지 발전 시켜 나가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부부 갈등을 보여주는 한편, 강력한 아버지의 권리를 보여주면서 가문을 유지시키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보다 집단, 즉 가문을 중시하고, 남성이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면서, 혼인 후에 일어나는 갈등을 통해 가문의 안정과 영화를 추구하는 문제를 다루는 우리 소설의 모습은 비슷한 에피소드와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재자가인소설과 차별화 될 수 밖에 없는 우리소설만의 독자적인 모습이다.

155) 최수경은 “남성 문인 작가들이 창조해 낸 가인들은 남성들이 지킬지 못하는 예와 도덕, 순결과 포용을 수호해 내는 숙녀들이고 이러한 숙녀들은 남성의 이상을 결집해 낸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최수경, 앞의 글, 238쪽) 즉 여성들이 뛰어나게 묘사되고 있는 재자가인소설에서도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룬 우리 소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나다고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드물며, 뛰어난 여성이라고 해도 중국에는 남성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자가인소설보다 강력하게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VI. 결론

본고에서는 재자가인소설과 우리소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 대상과 결과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才子佳人小說이면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옥교리〉, 〈호구전〉, 〈평산냉연〉과 한국고전장편소설인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현씨양옹쌍린기〉를 개별 모티프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우리소설이 재자가인소설과 연관되었는지 우리소설만의 독자성을 추구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2장에서는 재자가인소설과 한국고전소설이 각각 유형성을 띠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각 작품에서 비교적 비중 있는 모티프를 추출하여 비교하고 표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재자가인소설과 우리소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모티프도 있는 반면, 우리소설에서만 나타나는 모티프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슷한 모티프라고 해도 사상이나 의식의 변화에 따라 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2장에서 분석한 것을 토대로 3장에서는 배경과 구성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재자가인소설과 한국소설의 사상·의식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異界의 설정이나 異人의 등장인물이 재자가인소설에서는 거의 없거나 있으며 비중이 적은 반면 우리소설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긍정적 인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러한 모티프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재자가인소설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현실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異界가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서유기〉나 〈봉신전〉 같이 본격적으로 귀신이나 요물, 異界를 소재로 한 소설들이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발달되어 있었던 것도 재자가인소설이 이러한 모티프를 다루지 않은 한 요인일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룬 소설도 많지 않거니와, 주인공들이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소설에서는 하늘이나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 뜻을 이루는 일도 매우 빈번하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대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지키면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당시의 사고 방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재자가인소설이 서두에 개인의 존재를 강조한 것과는 달리 우리소설에서는 가문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자가인소설에서는 獨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반면 우리소설, 특히 18세기로 접어들수록 다수의 형제가 등장하여 작품을 이끌어 가는 것도 두

소설 사이의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이 차이는 결말부에서 재자와 가인이 혼인하여 개인의 행복과 명예만을 서술하는 재자가인소설에 비해서 우리소설의 경우는 한 사람 개인의 영화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더욱 가문을 번창시키는 이야기까지 서술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우리소설에서는 자녀들의 후일담을 쓰는 것에서 확장하여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따로 서술한 연작들도 있어 당시 사회가 가문의 번영과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장에서는 각 작품을 중심인물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그들이 작품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바에서 나타나는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남성인물들의 경우 대체로 애정 추구형과 도덕 추구형의 두 가지 인물형으로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의 비호를 받으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마음껏 누리는 당대의 이상적인 남성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애정 추구형이건 도덕 추구형이건 중국 소설의 남성들보다 우리 소설의 남성들에게서 더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었다. 그리고 애정을 발하는 경우, 재자가인소설의 남성들은 낭만적인 애정이 대다수인 반면, 우리소설의 남성들은 단순한 욕망 충족을 위한 애정을 발하는 경우도 있음이 나타났다. 게다가 재자가인소설에서는 한 작품에 한 가지 추구형의 인물만 등장하는 반면, 우리소설에서는 한 작품에서 애정 추구형과 도덕 추구형이 함께 드러나고 있어 이상적인 남성상에 대해 생각하게끔 하고 있다.

여성 인물들의 경우는 재자가인소설의 여성들이 우리소설의 여성들에 비해 매우 자유롭게 애정추구를 하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양상이 남성 인물들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소설의 여성들은 애정을 발할 경우 부정적으로 처리되거나, 아예 악인으로 설정되어 있어 남성들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여성들의 애정 추구나 주장은 남성들의 용인이 있어야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제공되며, 이들도 중국에는 남성들이 세운 가부장적인 논리와 순종적인 여성상이라는 틀에 갇히게 된다. 이것은 재자가인소설에서 남·녀 인물이나 우리소설에서 남성 인물들이 애정과 도덕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5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했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소설의 독자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재자가인소설과 우리 소설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모티프가 남녀의

만남과 결연에 관한 것이었다. 즉 두 나라 모두 남녀의 만남과 혼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혼인에 관한 사건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소설에서만 볼 수 있는 모티프에서는 우리 소설이 재자가인소설보다 더 남성 중심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재자가인소설에는 없는 앵혈과 관련된 사건이 우리 소설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앵혈이 여성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남성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또한 여성이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종종 등장하고 이 사건이 남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말지어지는 것도 역시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는 우리소설은 혼인 전의 이야기보다 혼인 후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재자가인소설보다는 애정 발현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재자가인소설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부 갈등이나 웅서 갈등은 혼인 후의 가문의 안정과 齊家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모티프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비록 비슷한 모티프와 인물들이 등장하여 일면으로는 유사하게만 보이는 재자가인소설과 한국고전소설이라도 그 이면에 나타나는 사상을 살펴보면 개인보다 가문을 강조하고,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에 충실하며, 부부 갈등을 통해 가문의 안정과 영화를 추구하는 우리소설만의 독자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는 앞으로 계속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첫째는 중국 소설과 비교하면서 중국의 수많은 소설 분야 중 재자가인소설만 비교 대상으로 다루었을 뿐, 중국의 연의 소설이나 신마 소설, 기타 다른 소설들과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우리소설에서도 장편소설만 대상으로 하였을 뿐, 그 이외의 소설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했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류의 재자가인소설과 우리소설에서도 각기 여러 요소에서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들과의 비교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모든 재자가인소설이나 장편 소설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일부 작품으로 한정하여 논의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모티프와 인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미흡함이 남아있다. 본고에서 다룬 작품보다 다루지 못한 작품들이 더 많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정밀하게 비교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1. 자 료

- 〈옥교리〉 3권 3책 동경대본.
〈평산냉연〉 10권 10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본.
〈호구전〉 한글탈초본. 선문대중한번역문헌연구소.
〈구운몽〉 4권 4책 규장각본.
〈창선감의록〉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10권. 아세아문화사.
《소현성록》 21권 21책 서울대본.
〈현씨양옹쌍린기〉 10권 10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본.

2. 단행본

- 김병국, 최재남, 정운채 譯, 『서포연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김진세 편,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노 신, 『중국소설사략』, 살림출판사, 1998.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송성욱, 『한국 대하소설의 미학』, 월인, 2002.
——,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설성경, 『〈구운몽〉 연구』, 국학자료원, 1999.
이상익, 『한중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 삼영사, 1983.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정규복, 『한중문학비교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94.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3. 논문

강상순, 「〈구운몽〉과 17세기 장편 소설의 정신분석」, 『배달말』 27, 배달말학회, 2000.

고민희, 「명말 인정소설의 대두에 관한 고찰」, 『중국소설논총』 제2집, 1993.

김명신, 「청대 협의애정소설의 인물형상」, 『중국소설논총』 제9집, 한국중국소설학회, 1999. 2.

김진세, 〈현씨양옹쌍린기의 서지적 연구 - 낙선재본과 덕흥서림본의 경우〉, 관악어문연구 제6집, 1981.

류준경, 「낙선재본 중국 번역 소설과 장편소설사」, 『한국문학논총』 26집, 한국문학회, 2000.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국내 유입시기와 과정 및 판본에 대한 고찰」, 『중국소설논총』, 3집, 1994.

——, 「중국고전소설의 한글 번역 문제」, 『고소설연구』 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 「17세기 재자가인 소설의 수용과 영향 - 〈好述傳〉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집, 1998.

박일용, 「창선감의록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특징」, 『고전문학연구』 1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12.

——,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관련 양상 - 형성기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0, 2001.

박재연, 「완산 이씨 『중국소설회모본』에 대하여」, 『한국 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 - 낙선재본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송성욱, 「17세기 중국소설의 번역과 우리소설과의 관계」, 『한국고전연구』 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 _____,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 <사씨남정기>,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 _____, 「명말청초 소설의 변안과 한국소설-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소설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발표문, 중국연변과기대, 2001.
- 신동일, 「한국고전소설에 미친 명대 단편소설의 영향 - 혼사장애주지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85.
- 심우창, 「〈현씨양옹쌍린기〉 연작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2.
- 양민정, 「초기 가문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가문의식 - 〈창선감의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2집, 2002.
- 이지하, 「〈현씨양옹쌍린기〉 연작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2.
- 이혜순, 「〈호구전〉 연구」, 『이화논총』 30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77.
-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소설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장효현, 「장편 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태」, 『정신문화연구』 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_____, 「한국 고전소설 비교 연구의 현황과 전망-중국소설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0, 2001.
- 전성운, 「〈九雲夢〉의 창작과 명말청초 艷情小說」, 『고소설연구』 12집, 2002.
- 정병설, 「조선후기 동아시아 어문 교류의 한 단면 - 동경대 소장 한글번역본 〈옥교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27, 서울대, 2001.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 장편 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 조동일, 「한국·일본·월남의 중국소설 수용양상 비교연구 서설」,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집문당, 1998.
-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작품 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최수경, 「청대 재자가인소설의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classic novel with Chinese classic novel

– focusing on Jaejagain novel of China and 17th Century Korean novel –

A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By

GANG MI SEON

SEOUL, KOREA

DECEMBER, 2003

The undersigned certify that they have read this thesis and that in their opinion it is satisfactory in scope and quality as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THESIS COMMITTEE

Chairman _____
(Lee, Taek dong)

Member _____
(Ryu, Yang seon)

Member _____
(Song, Sung uk)

December, 2003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classic novel with Chinese classic novel – focusing on Jaejagain novel of China and 17th Century Korean novel –

Although there has been a lot of research done on a study to find a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Chinese novel, the objects and results of the research have been criticized to be skewed towards one cas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dentify the similarity of Korean and Chinese novel and I would like to study the unique elements of Korean novel by comparing some translated novel with Korean classic ones. <Okgyori>, <Hogujeon>, <Pyeongsannaengyeon> are examples of originally Chinese Jaejagain novel but translated into Korean and <Guwunmong>, <Changseongameuirok>, <Soheonseongrok>, <Hyeonssiyangwungssangringi> are examples used as Korea classic long-novel.

To start with, acknowledging the fact that Chinese Jaejagain novel and Korean novel have their own forms, I have abstracted the motif of each literature and compared then represented the results in the means of diagrams. It has been shown that both Chinese and Korean novel have some similar motif and for some examples, almost identical motif is found. However some motif exists only in Korean classic novel and even for the similar motif, the aspects differ according to its social ideology.

Also in Jaejagain novel, extrasensory perception hardly exists and even when the concept is introduced in Jaejagain novel, the concept is insignificant. However extrasensory concept often appears in Korean novel especially when the main characters face difficulties. This is because in Jaejagain novel, conflicts between characters can be solved in realistic world, extrasensory perception does not have to be used. Because Chinese Jaejagain novel did not introduce extrasensory concept in the literature, a separate genre of novel that fully utilize the extrasensory concept such as <Seoyugi> and <Bongsinjeon> has been developed

from early days in China.

In Jaejagain novel, the introduction focuses on individuals while Korean novel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amilies. Also another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at only child often plays a main character in Chinese Jaejagain novel but in Korean novel, especially from the 18th century many siblings appear in the literature and each plays an important role. Such a difference also exists in conclusions. In Chinese Jaejagain, Jaeja and Gain usually get married and the novel mainly describes individual's success and happiness while Korean novel talks not only individual's success but the offspring's success are often described in the conclusion. Some Korean novel even mention the offspring's success as a separate novel. Therefore from the above, it is clear that at that time, family's success and its expansion received a lot of attention.

However when it comes to development of main characters' love, both Jaejagain and Korean novel show similar aspects. Male character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within the literature, love seeker and ethic seeker. Irrespective of love or ethic seekers, the common element was that male characters always achieved what they wanted, backed by strong sexism at that time. Male characters in Korean novel showed more emphasis on ethical aspects moreover Korean novel described both love and ethic seekers within the literature. Chinese Jaejagain only talked about one type of seeker in each novel. Thus Korean novel shows what an identical man should be.

In Chinese Jaejagain, development of love for female characters is described in a similar way as male characters are described but Korean novel preferred passive love for female characters. For instance if female characters take the initiatives, it was not socially accepted. For women, it was not right to actively seek love nor opinion was socially respected. This shows a big difference compare to male and female characters in Chinese Jaejagain or male characters seeking both love and ethic.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described above, Korean novel puts more emphasis on group rather than individuals and also mainly describes stories after the marriage. This makes love an issue which is rather negatively accepted when it appears in Korean literature, this aspect becomes more apparent in 18th century. Korean novel puts more emphasis on families rather than individuals and the

importance of father within a family is described. However in Chinese Jaejagain novel, which emphasizes roles of individuals rather than families, the role of a father within the family is insignificant while in Korean novel, father has a mighty role and power within the family. Its doctrine was that a family can only flourish if the father has a mighty power within the family.

From the above, it is clear that even if Korean novel and Chinese Jaejagain novel had similar motif and characters thus might appear as similar, significant differences have been studied. The main difference is due to different ideology such as different emphasis between families and individuals. Korean novel seeks comfort and flourish of family by conflict between a married couples. The limitation of this paper is the limited sample size. The sample used was Jaejagain novel of China and long-novel of Korean novel and only a number of literature was included in the sample.

I would like to see consistent study using more broad sample of Chinese and Korean novel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